



2016 K LEAGUE TECHNICAL REPORT

01 Introduction

"Remember 2016"

02 CLASSIC Overview

"To be Champion, To be Survivor"

03 CHALLENGE Overview

"Road to CLASSIC"

04 Season Review

"Points of the Season"

05 Statistics

06 K LEAGUE in the World

07 Club Profiles

01

Introduction

Remember 2016



K LEAGUE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016시즌의 데이터와 지표를 분석한 시즌총괄보고서 ‘2016 K LEAGUE Technical Report’를 발간합니다.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6’은 그 어느 시즌보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K리그 클래식에서는 마지막 라운드가 돼서야 우승컵의 주인공이 결정되었고 K리그 챌린지에서는 클래식 승격티켓을 놓고 격돌이 벌어졌습니다. 4년차에 접어들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승강 시스템은 경기 결과에 대한 절실함을 배가시켰고, 그만큼 치열해진 순위 경쟁이 마지막까지 축구팬 분들께 더욱 특별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가 세계적인 수준의 리그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 2016 시즌 K리그 클래식(1부)과 챌린지(2부) 총 450경기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득점, 패스, 볼 점유 등 각 부문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였던 구단과 선수들의 기록을 담았으며, 또한 분석된 데이터를 통해 우리 K리그와 다른 리그를 비교해본 Chapter ‘K LEAGUE in the World’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것인 만큼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 부터’라는 말처럼 K리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을 안고 기획한 ‘2016 K LEAGUE Technical Report’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눈다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후원사 여러분과 올 한해 K리그를 사랑 해주신 축구팬 여러분, 그리고 올 한해 최선을 다한 선수 및 코칭스태프와 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즌총괄보고서 ‘2016 K LEAGUE Technical Report’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한 2016시즌의 환희와 아쉬움을 되새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01

Introduction

데이터 항목 정의

공격 포인트

공격포인트	득점+도움
경기당 도움	전체 도움 / 출전 경기
경기당 득점	전체 득점 / 출전 경기
도움	득점으로 연결된 마지막 패스
득점	상대방 골 라인을 완전히 통과한 경우
스로인 득점	스로인으로 인한 득점
세트피스 득점	세트피스로 인한 득점
역습 득점	역습으로 인한 득점
오픈 플레이 득점	코너킥, 프리킥, 페널티킥, 스로인 득점을 제외한 득점
일반 공격 득점	오픈 플레이 득점 중 역습에 의한 득점을 제외한 득점
코너킥 득점	코너킥으로 인한 득점
프리킥 득점	프리킥으로 인한 득점
페널티킥 득점	페널티킥으로 인한 득점

슈팅

슈팅 (부가데이터 기준)	득점을 목적으로 공을 차거나 헤딩하는 플레이
경기당 슈팅	전체 슈팅 / 출전 경기
득점당 슈팅	슈팅 / 득점
유효슈팅 (부가데이터 기준)	수비수에 의해 차단당하지 않고 골대 범위 내를 향한 슈팅
유효슈팅 (%)	유효슈팅 / 전체슈팅
페널티 지역 슈팅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 수
페널티 지역 외 슈팅	페널티 박스 밖에서의 슈팅 수

패스

패스	같은 팀 선수에게 볼을 연결하는 플레이
경기당 패스	전체 패스 / 출전 경기
단거리 패스	패스 거리가 0-15m인 패스
중거리 패스	패스 거리가 16-40m인 패스
장거리 패스	패스 거리가 41m 이상인 패스
키 패스	슈팅으로 연결된 마지막 패스
키 패스 성공률 (%)	키 패스 성공 / 키 패스 시도
패스 성공	전체 패스 성공 수
패스 성공률 (%)	패스 성공 / 패스 시도
패스 시도	전체 패스 시도 수
평균 패스 거리	팀의 평균 패스 성공 거리

드리블 & 크로스

드리블	상대 선수를 돌파 혹은 따돌리려고 하는 플레이 (퍼스트 터치에 의한 돌파 제외)
크로스	상대팀 진영 절반 측면 부근에서 페널티 박스로 향하는 패스 (공중볼 또는 땅볼)
경기당 드리블	전체 드리블 / 출전 경기
경기당 크로스	전체 크로스 / 출전 경기
드리블 성공률 (%)	드리블 성공 / 드리블 시도
크로스 성공	크로스 성공 수
크로스 성공률 (%)	크로스 성공 / 크로스 시도
크로스 시도	크로스 시도 수

경합

경합	공 소유권을 두고 양 팀 선수가 경쟁하는 플레이
경기당 경합	전체 경합 / 출전 경기
경합 성공률 (%)	경합 성공 / 경합 시도
공중볼 경합	공중에 뜬 공을 두고 양 팀 선수가 공중에서 경쟁하는 플레이
수비형 경합	자기팀 수비지역에서의 상대방과 경합하는 플레이

수비

태클	볼을 상대방으로부터 빼앗으려는 시도를 통해 2m 이상 볼을 떼어놓는 것
실점	팀 또는 골키퍼가 상대에게 득점을 허용
선방	상대방 유효슈팅에 대해 골키퍼가 볼을 잡거나 막아내는 플레이
인터셉트	상대방의 공을 가로채어 볼 소유권을 획득하는 플레이
경기당 태클	전체 태클 / 출전 경기
자기지역 내 태클	자기지역 내에서의 태클
태클 성공률 (%)	태클 성공 / 태클 시도

파울

파울	부정 행위 또는 반칙
자기지역 파울	자기지역 내에서의 파울
피파울	파울 당함
경고	항의, 비스포츠적 행동, 지속적인 파울 등의 사유로 주어지는 경고
퇴장	부정한 행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두 번 째 경고에 의해 주어지는 퇴장 명령
경기당 경고	전체 경고 / 출전 경기
경기당 퇴장	전체 퇴장 / 출전 경기

경기 & 경기시간

경기	출전한 전체 경기(교체 출전 포함)
APT (부가데이터 기준)	지연된 시간을 제외한 실제 경기 진행 시간 (Actual Playing Time)
출전 시간	경기장 위에서 플레이 한 전체 시간(분)
교체 지연	선수 교체로 인한 경기 지연
볼 아웃 지연	사이드 라인, 골 라인 아웃으로 인한 경기 지연
부상 지연	부상 선수로 인한 경기 지연
파울 지연	파울로 인한 경기 지연

기타

승	팀이 90분 정규시간 동안 승리한 경기 수
무	팀이 90분 정규시간 동안 무승부를 기록한 수
패	팀이 90분 정규시간 동안 패한 경기 수
승점	순위를 결정하는 기록(승리 시 3점, 무승부 시 1점, 패전 시 0점)
득실 차	득점 - 실점
점유율	볼을 소유한 시간을 백분율로 나눈 기록, %
평점 (부가데이터 기준)	선수 평점
MOM	경기 MVP(Man Of the Match)의 약어

02

CLASSIC Overview

To be Champion,

To be Survivor

01 우승경쟁
"Final Comeback"

02 ACL 티켓 경쟁
"Tickets to Asia"

03 강등권 생존 경쟁
"Survival DNA"

04 BEST 11



01

Final Comeback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이하 클래식)의 우승 레이스는 마지막 경기에서 결판났다. FC 서울(이하 서울)의 우승으로 막을 내리긴 했으나, 리그 최종전이 끝나기 전까지 챔피언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치열했다. 시작은 서울이 좋았다. 그러나 시즌 초반 전북 현대 모터스(이하 전북)가 무패 행진을 멈추지 않으며 1위를 빼앗았고, 마지막엔 다시 서울이 힘을 내 드라마와 같은 역전 우승에 성공했다. 두 팀이 만든 우승 레이스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치열했다.

출발이 좋았던 서울

시즌 초반엔 서울이 좋았다. 서울은 3월 12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클래식 개막전에서 전북에 0-1로 패했으나, 이후 6연승을 구가하며 1위 자리에 올랐다. 시즌 초반 치른 여덟 경기에서 6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승점을 19점이나 쓸어 담은 게 큰 힘이 됐다. 데안과 아드리야노로 구성된 투톱의 시너지 효과에다 신진호를 포함한 미드필더들의 고른 활약이 만든 상승세였다. 여기에 최용수 감독이 만든 탄탄한 스리백까지 힘을 보태면서 좋은 스타트를 기록할 수 있었다. 반면 전북은 개막전 승리에도 불구하고 무승부가 많아지면서 승점 쌓기가 좀 더디게 진행됐다.



전북은 여덟 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했지만, 네 번이나 비기면서(4승 4무) 승점 16점을 얻는 데 그쳤다. 전북이 시즌 초반에 보다 많은 승점을 얻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큰 폭의 스쿼드 변화로 조직력이 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선수가 나가고 들어오면서 기존 선수들과 이적생들 간 호흡이 맞지 않아 상대를 압도하는 힘을 보이지 못했던 전북이다.



무패 행진을 거듭한 전북

그랬던 전북이 힘을 내기 시작한 것은 5월에 접어들어서였다. 원동력은 예상보다 빨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조직력에 있었다. 특히 2선 조직력이 좋아졌다. 로페즈는 레오나르도와 함께 좌우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했고, 김보경도 이재성과 호흡이 좋아지며 상대에 큰 위협이 됐다. 그 결과 전북은 5월에 열린 세 경기에서 전승을 거뒀고, 5월 29일 열린 12라운드를 기점으로 1위 탈환에 성공했다. 전북은 3~4월 치른 여덟 경기에서 13득점을 기록했는데, 5월엔 세 경기만 치르면서도 8득점을 기록하며 강해진 화력을 과시했다. 4월 13일 1위에 오른 후 한 달 보름 넘게 자리를 지키던 서울은 전북에 1위를 내준 후 또 다른 어려움을 겪었다. 6월 21일 최용수 감독이 지휘봉을 내려놓으면서 사령탑 교체란 변화를 맞이해야 했던 것이다. 서울은 최 감독의 퇴임과 동시에 황선홍 전 포항 스틸러스 감독을 선임하며 대응했으나, 모든 혼란을 잠재울 순 없었다. 더군다나 황 감독이 부임 후 서울에 다양하고 많은 변화를 주면서 승점 쌓기는 더욱 더디게 진행됐다.

마지막 경기에서 갈린 우승

5월 29일 바뀐 두 팀의 순위는 쉽게 바뀌지 않았다. 전북은 33라운드까지 무패 행진을 달리며 꾸준히 승점을 쌓았고, 서울은 황 감독이 추구하는 새로운 축구가 자리를 잡지 못해 추격 속도를 높이지 못했다. 그러나 9월 말 전북 스카우트의 심판들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으로 승점을 삭감 당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당시 서울에 승점 14점 앞서 있던 전북은 승점 9점을 삭감당하며 승점 5점 차이로 쫓기는 신세가 됐다.

이후 두 팀의 승점 차이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33라운드에서는 승점 5점 차이가 3점으로 변했고, 34라운드에서는 승점 3점 차이가 0점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승점 차이 없이 1위와 2위를 유지하던 두 팀은 마지막 38라운드에서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맞대결을 펼쳤다. 승점은 같지만 다 득점에 뒤진 서울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는데, 후반 13분 박주영이 결승골을 터트리며 전북을 1-0으로 꺾었다. 결국 서울은 마지막 경기에서 전북을 2위로 끌어 내리고 드라마와 같은 역전 우승의 주인공이 됐다.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이하 클래식)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이하 제주), 울산 현대(이하 울산), 전남드래곤즈(이하 전남)는 치열한 AFC 챔피언스리그(이하 ACL) 출전권 경쟁을 벌였다. 정규리그 최종 순위 1~3위에 주어지는 ACL 출전 티켓 석 장 중 두 장은 일찌감치 굳어진 1위와 2위가 차지했다. 세 팀은 한 장 남은 ACL 티켓을 두고 경쟁했는데, 제주가 리그 종료 가 임박했던 시점에 3위를 확정하며 마지막 ACL 티켓의 주인공이 됐다.



꾸준했던 제주, 뒤늦게 시동 걸린 전남

세 팀 중 가장 꾸준했던 팀은 제주였다. 제주의 월별 순위를 살펴보면 가장 낮았던 게 6위였을 만큼, 꾸준히 상위권에 포진하며 ACL 출전 티켓을 노렸음을 알 수 있다. 제주가 한 시즌 동안 큰 편차 없이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강력한 공격력에 있었다. 제주는 클래식에 참가한 열두 개 팀 중 전북 현대 모터스(이하 전북)와 함께 가장 많은 71득점을 성공시켰는데, 최소 득점을 기록한 수원FC(40득점)보다 31골이나 많이 넣었다.

전남은 제주에 비해 시동이 늦게 걸렸다. 초반보단 중반, 중반보단 후반이 좋았다. 다소 순위 등락도 있었다. 전남의 올 시즌 월별 최고 순위는 5위, 최저 순위는 11위였으며, 전남은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 6월이 지나갈 때까지 두 자릿수 순위(10위)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나, 7월을 기점으로 순위를 끌어 올리더니 33라운드가 종료된 후에는 ACL 출전 티켓을 경쟁할 수 있을 5위까지 올라섰다.

결정적 순간 힘이 부쳤던 울산

윤정환 감독의 부임 두 번째 시즌이었던 울산은 제주처럼 꾸준한 경기력을 보였다. 큰 기복이 없었다. 개막 후 첫 한 달 동안 11위를 기록한 걸 제외하면, 4월부터 11월까지 상위권에 머물렀다. 4월 중위권으로 도약한 울산은 5월엔 순위를 4위까지 높이며 상위권 순위 판도를 변화시킬 핵으로 떠올랐다. 또 9월에는 3위까지 치고 올라가 다음 시즌 ACL 출전권 획득 가능성을 증폭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 힘이 부쳤다. 특히 10월 2일 열린 33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 2-3으로 패한 게 컸다. 이후 울산은 35라운드까지 1무 2패에 그치며 3위 자리를 지키는데 실패했다. 반면 제주는 무패 행진을 달리던 전북을 3-2로 꺾는 등 3연승을 구가해 두 팀의 순위가 바뀌고 말았다. 울산은 스플릿 라운드 돌입 후 치른 다섯 경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으며 목표로 했던 ACL 티켓 획득에 실패했다.

맞대결 결과도 제주가 으뜸

세 팀의 ACL 티켓 경쟁은 맞대결에서도 살필 수 있다. 먼저 제주는 울산·전남을 상대로 총 여덟 경기를 치러 4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승점 14점을 수확했다. 홈과 원정 구분할 것 없이 2승 1무 1패씩을 기록해 어디서나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제주는 울산과 격돌한 네 차례 대결에서는 1승 2무 1패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남을 상대로 3승 1패를 기록하며 승점을 9점이나 따내며 ACL 출전권을 획득하는데 큰 힘을 얻었다. 울산은 제주·전남을 상대로 3승 3무 2패란 평범한 결과를 얻었다. 제주와는 1승 2무 1패를 기록해 동률을 이뤘고, 전남엔 2승 1무 1패로 근소하게 앞섰다.



울산은 시즌 말미 제주·전남과 벌인 세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게 3위 탈환 실패의 한 요인이 됐다. 마지막으로 전남은 제주·울산과 맞대결을 펼쳐 2승 1무 5패를 기록해 가장 저조한 성적을 남겼다. 홈에서는 2승 1무 1패로 선전했지만, 원정에서 4패를 당한 게 컸다. 무엇보다 제주에 세 번이나 패하면서 ACL 출전 경쟁에서 멀어졌다.

03

Survival DNA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이하 클래식)의 강등권 생존 경쟁은 그 어떤 시즌보다 치열했다. 강등이 유력했던 인천 유나이티드(이하 인천)는 후반으로 갈수록 급반등하며 판을 뒤엎었고, 강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던 성남FC(이하 성남)는 갑자기 흔들리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여기에 1부리그 잔류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수원FC(이하 수원FC)의 투혼, 명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포항 스틸러스(이하 포항)의 의지까지 더해지며 우승 경쟁 못잖은 치열함이 생성됐다.



인천의 드라마 같은 반등

2016 시즌 인천은 그 어떤 팀보다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썼다. 매우 유력한 강등 후보에서 기적처럼 탈출했기 때문이다. 인천은 시즌이 개막했던 3월부터 종료 직전이었던 10월까지 11위 이상 순위를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9월부터 살아날 기미를 보이더니 11월 6일 치른 마지막 38라운드를 통해 10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인천은 시즌 초반 10경기에서 4무 6패를 기록하며 승점 4점을 얻는데 그쳤으나, 시즌 막판 10경기에서 승점을 21점(6승 3무 1패)이나 쓸어 담으며 잔류에 성공했다.

인천의 상승세는 김도훈 감독이 물러나고 이기형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 역할을 하면서 시작됐다. 김 감독이 물러났던 9월만 하더라도 인천은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 감독 대행이 지휘봉을 잡고 팀에 절박함을 불어 넣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전까지 28경기를 치르며 5승을 하는 데 그쳤던 인천은, 이 감독 대행 부임 후 6승이나 추가하며 생존 드라마를 쓰기 시작했다. 특히 반드시 이겨야 했던 시즌 최종전에서 수원FC를 꺾으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성공했다.

박수 받을 만했던 수원FC

팀 창단 후 처음으로 클래식 무대에 선 수원FC의 2016시즌은 절반의 성공이었다. 비록 한 시즌 만에 다시 2부리그(K리그 챌린지)로 내려갔지만, 2016시즌 수원FC가 보인 도전 정신은 박수 받을 만했다. 특히 시즌 초반엔 신선한 충격을 안기며 선전했다. 첫 클래식 경기에서 전남 드래곤즈와 맞붙어 1-1 무승부를 거둬 첫 승점을 획득한 수원은, 3라운드 광주 FC전에서는 2-1로 승리하며 첫 승의 감격을 맛봤다. 이후 5라운드까지 1승 4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달리기도 했다.



5월까지 9위와 10위를 오가며 강등권에서 살짝 비켜있던 수원FC는 마빈 오군지미와 하이메 가빌란 등 기대를 모았던 외국인 선수들이 적응에 실패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팀 전력에서 큰 몫을 차지해야 할 외국인 선수들의 부진은 곧 성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그래도 주장 이승현을 중심으로 김병오·이재안 등이 분전했지만, 기존 클래식 팀과의 격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았다. 여기에 시즌 막판 인천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달아나, 한 시즌만 치르고 챌린지로 돌아가야 했다.

추락한 성남, 생존한 포항

인천이 극적 드라마를 연출하며 살아남았고, 수원FC가 분전 끝에 2부리그로 떨어진 강등권 생존 경쟁에서 최대 피해자는 성남이었다. 성남은 시즌 초반 하더라도 선두권에서 우승을 경쟁할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성남은 3월부터 5월까지 꾸준히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9월 김학범 감독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 감독은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성남을 떠났는데, 그 자리에 구상범 감독 대행이 앉았지만 위기를 수습하지 못했다. 결국 성남은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38라운드에서 11위로 내려앉았고, 이어 벌어진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강원 FC에게 밀리며 다음 시즌을 챌린지에서 맞이하게 되었다.



최종 순위에서 9위를 차지하며 생존 경쟁에선 살아남았지만, 시즌 말미 강등의 위협을 받았던 포항도 힘든 시즌을 보냈다. 특히 한여름이었던 8월엔 성적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임한지 1년도 안 된 최진철 감독이 물러나야 했다. 최순호 감독 부임 후에도 10월 순위가 10위까지 떨어지는 등 힘들었지만, 최종전에서 성남을 꺾고 잔류에 성공했다.



〈K리그 클래식 최종 순위표〉

순위	팀	경기수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득실차
1	서울	38	70	21	7	10	67	46	21
2	전북	38	67	20	16	2	71	40	31
3	제주	38	59	17	8	13	71	57	14
4	울산	38	54	14	12	12	41	47	-6
5	전남	38	47	12	11	15	44	53	-9
6	상주	38	43	12	7	19	54	65	-11
7	수원	38	48	10	18	10	56	59	-3
8	광주	38	47	11	14	13	41	45	-4
9	포항	38	46	12	10	16	43	46	-3
10	인천	38	45	11	12	15	43	51	-8
11	성남	38	43	11	10	17	47	51	-4
12	수원FC	38	39	10	9	19	40	58	-18



*선정방식: '2016 현대오일뱅크 K리그 대상 후보선정위원회'에서 3배수 선정 후 선정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기자단 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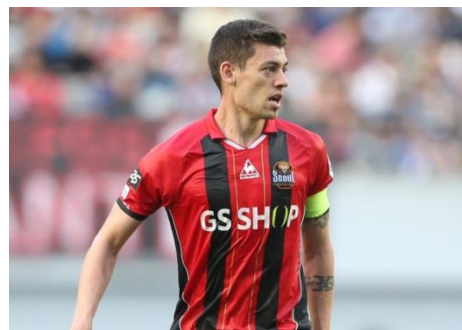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이하 클래식) 베스트 11을 확인해보면 K리그 최고 선수들의 라인업에도 세대교체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었다. 11명의 수상자 중 골키퍼 부문에 세 번째 이름을 올린 권순태를 제외하면 모두가 2회 이하 수상자였다. 먼저 공격수 부문에는 정조국(광주FC)과 아드리아노(FC서울)가 선정됐다. 클래식 득점왕이기도 한 정조국



은 88.8%의 지지를 받으며 공격수 두 자리 중 한 자리를 차지했다. 정조국은 클래식 베스트 11과 득점왕에 이어 시즌 MVP까지 선정되면서 3관왕을 기록했다. 다른 한 자리는 시즌 초 매서운 골 폭풍을 몰아 친 아드리아노의 몫이었다.



총 네 명이 선정된 미드필더 부문에는 왼쪽부터 레오나르도(전북 현대 모터스)-이재성(전북 현대 모터스)-권창훈(수원 블루윙즈)-로페즈(전북 현대 모터스)가 차지했다. 네 명 중 이재성은 클래식 전체 평점 2위(244점)와 도움 2위(11개)에 올랐고, 로페즈는 공격 포인트(19개)와 경합(785회)에서 모두 4위를 기록했다.



수비수 부문에는 최다 득표율(93.5%)을 기록한 오스마르(FC서울)를 포함해 요니치(인천 유나이티드), 경운(제주 유나이티드), 고광민(FC서울)이 뽑혔다. 이 중 오스마르는 기록 세 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클래식 전체 평점 1위(245점), 패스 1위(2,528회), 태클 1위(185회)가 모두 오스마르의 몫이었다.

마지막으로 골키퍼 부문 베스트 11은 권순태(전북 현대)가 차지했다. 권순태는 82.6%의 득표율을 기록해 함께 후보에 오른 김동준(성남FC)과 이창근(수원FC)을 제치고 세 번째 베스트 11에 올랐다.

03

CHALLENGE Overview

Road to CLASSIC

01안산 우승 스토리
“Story of the Cops”

02 시기별 순위변동

03 BEST 11



01

안산 우승 스토리 "Story of the Cops"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6(이하 챌린지) 우승은 안산 무궁화 FC(이하 안산)가 차지했다. 2015시즌만 하더라도 11개 팀 중 10위에 머물렀던 안산은 1년 만에 '챌린지 강호'다운 모습을 되찾으며 정상에 올랐다. 이흥실 감독의 리더십이 잘 발휘됐고, 신형민·이현승·조성진 등 선수들의 기량이 잘 어우러져 얻은 결과였다. 다음 시즌 연고지를 아산으로 옮겨야 했던 탓에 1부리그(K리그 클래식) 승격 자격을 얻진 못했지만, 경찰청 축구단의 힘을 보여 준 시즌이었다.

출발부터 좋았던 안산, 끝내 우승

안산은 시즌 전부터 우승 후보 중 한 팀으로 분류됐다. 이흥실 감독이 부임 후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한다는 점, 훌륭한 선수를 많이 보유했다는 점에서 그랬다. 이 감독의 지도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선수들의 조직력이 맞아 들어간다면, 챌린지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란 기대가 반영됐다. 이 두 가지 기대는 모두 현실로 이뤄졌다. 이 감독은 부임 2년 차를 맞아 더 안정적으로 팀을 이끌었고, 신형민·신광훈·정혁 등 기존 선수들과 한지호·이현승·공민현 등 새로운 선수들이 잘 어우러지며 조직력이 극대화됐다. 그 결과 시즌 내내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안산의 2016시즌은 출발부터 좋았다. 안산은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한 챌린지 개막전에서 3-1로 승리하며 기분 좋게 스타트를 끊었다. 원정 경기였음에도 세 골이나 넣고 승리해 자신감도 얻었다. 이후 안산은 3라운드까지 연승 행진을 하며 일찌감치 1위에 올라섰다. 물론 위기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5월엔 빠르게 승점을 쌓으며 추격한 강원FC에 잠시 1위 자리를 뺏겼고, 9월엔 다수의 전역자가 발생하며 선두 수성에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안산은 시즌이 끝날 때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덕분에 10월 30일 열린 최종전에서 1위를 지켜 우승을 일궜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

2016시즌 챌린지 챔피언 자리에 오른 안산은 2017년에는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다. 그간 안산시와 연고지 협약을 맺었던 경찰청 축구단(이하 경찰청)이 새 보금자리로 아산시를 선택해 옮기게 됐고, 그들이 떠난 자리엔 안산 그리너스란 새로운 이름을 가진 시민 구단이 창단했다.

먼저 경찰청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연고 협약을 맺었다. 팀 명칭도 아산 무궁화 FC로 바꿨다.

신임 사령탑 자리엔 2016시즌까지 부천 FC 1995를 이끌었던 송선호 감독이 선임됐다. 2016시즌 챌린지를 제패한 우수한 선수들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산은 2017년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다. 반면 안산 그리너스는 안산시에 뿌리를 유지한 채 시민 구단으로 탈바꿈했다. 이름이 바뀌었지만 구단 프런트가 남으면서 뼈대를 유지했고, 이흥실 감독도 잔류해 새로운 팀을 이끌게 됐다. 안산은 신생 구단의 패기와 도전 정신을 앞세워 2017시즌 챌린지 무대에서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다짐했다.

02 시기별 순위 변동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6(이하 챌린지)에서 팀들의 순위 변동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상위 그룹에 네 팀이 포진해 우승 경쟁을 벌였고, 중위 그룹엔 다섯 팀이 위치해 순위 싸움을 펼쳤다. 마지막으로 하위 그룹엔 두 팀이 포함됐다. 세 그룹 중 상위 그룹과 중위 그룹에선 리그 막바지로 가면서 순위가 새롭게 조정됐고, 하위 그룹은 6월 이후 순위 변동 없이 시즌을 마무리했다. 또 가장 극심한 순위 변동을 기록한 때는 여름이 시작되던 6월로 나타났다.



팀	부산	서울E	대전	경남	안양
부산		1무 3패	1승 1무 2패	1승 1무 2패	3승 1패
서울E	3승 1무		2승 1무 1패	3승 1무	2무 2패
대전	2승 1무 1패	1승 1무 2패		2승 1무 1패	1승 2무 1패
경남	2승 1무 1패	1무 3패	1승 1무 2패		3승 1패
안양	1승 3패	2승 2무	1승 2무 1패	1승 3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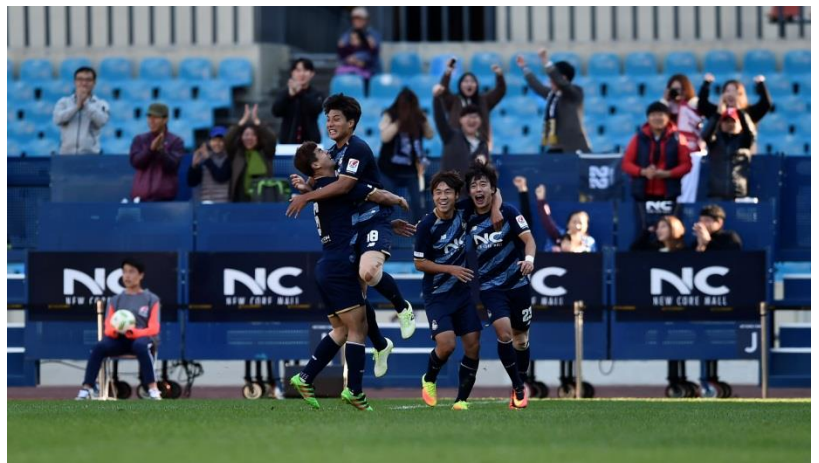
치열했던 그룹 간 순위 싸움

2016시즌 상위 그룹에는 총 네 팀이 포진했다. 올 시즌 최종 순위에서 1위부터 4위를 차지한 안산 무궁화 FC(이하 안산), 대구FC(이하 대구), 부천 FC 1995(이하 부천), 강원FC(이하 강원)이다. 네 팀은 5월부터 상위 그룹을 형성해 시즌 종료 때까지 한 번도 5위 이하로 벗어나지 않았다.

안산은 꾸준히 1위를 지켰고, 대구·부천·강원이 2위부터 4위를 오르락내리락하며 경쟁했다. 이들 중 대구는 7월부터 9월까지 3위에 머물렀으나, 마지막 10월에 2위로 도약하며 K리그 클래식 진출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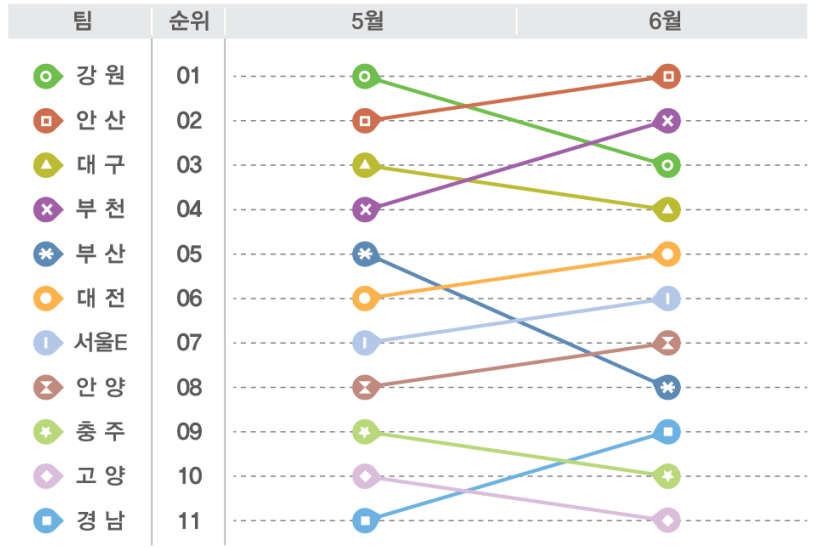
중위 그룹에는 다섯 팀이나 몰려 있어 혼전이 심화됐다. 부산 아이파크(이하 부산), 서울 이랜드 FC(이하 서울 이랜드), 대전 시티즌(이하 대전), 경남FC(이하 경남), FC안양(이하 안양)이 그 다섯 팀이다. 이들은 맞대결에서도 승패를 나눠 가지며 팽팽한 경쟁을 펼쳤는데, 특히 서울 이랜드는 중위 그룹 맞대결에서 가장 좋은 성적(16전 8승 5무 3패)을 기록했다. 또 막판엔 6연승을 기록해 6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경남은 승점감점 징계의 영향으로 5월까지 11위에 처져 있었지만 점진적 상승세를 보인 끝에 8위로 시즌을 마쳤다. 반면 하위 그룹에 있었던 충주 험멜(이하 충주)과 고양 자이크로 FC(이하 고양)는 6월부터 각각 10위와 11위란 순위를 유지하며 시즌을 마무리 했다.

팀	승점	전적
서울E	29	8승 5무 3패
대전	23	6승 5무 5패
경남	21	6승 3무 7패
안양	19	5승 4무 7패
부산	18	5승 3무 8패



순위 변동, 6월에 가장 심했다

2016 챌린지에서 팀별 순위 변동이 가장 극심했던 달은 6월이었다. 시즌이 개막했던 3월을 기준으로 다음 달의 순위 변동을 살펴보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 중 6월 달에 가장 많은 팀의 순위가 바뀌었다. 6월은 5월과 비교해 11개 팀 모두의 순위가 바뀌었는데, 안산이 2위에서 1위로 올라서고 부산이 5위에서 8위로 내려가는 등 가장 큰 폭의 순위 변동이 일어났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6월에 세 개의 그룹이 형성됐다는 사실이다. 6월에 열린 모든 경기가 마무리 됐을 때 안산·부천·강원·대구가 1위부터 4위에 올랐고,



대전·서울·이랜드·안양·부산·경남이 5위부터 9위를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충주·고양도 10위와 11위를 기록하며 시즌 마지막까지 각자의 그룹 안에서 경쟁했다.

6월을 제외하고 팀별 순위 변동을 살펴보면 시즌 초반이 가장 심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폭이 줄었다. 4월과 5월은 전월인 3월과 4월에 비해 똑같이 9개 팀의 순위가 바뀌었고, 7월엔 8개 팀, 8월엔 7개 팀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9월엔 가장 적은 5개 팀에서만 순위 변동이 일어났다. 마지막 10월엔 다시 한 팀 늘어나 6개 팀의 순위가 바뀌었는데, 이는 순위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시즌 말미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K리그 챌린지 최종 순위 >

순위	구단	경기수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득실차
1	안산	40	70	21	7	12	57	55	2
2	대구	40	70	19	13	8	53	36	17
3	강원	42	66	21	9	12	53	34	19
4	부천	41	67	19	10	12	50	35	15
5	부산	41	64	19	7	15	52	40	12
6	서울E	40	64	17	13	10	47	35	12
7	대전	40	55	15	10	15	56	52	4
8	경남	40	50	18	6	16	61	58	3
9	안양	40	46	11	13	16	40	53	-13
10	충주	40	29	7	8	25	42	62	-20
11	고양	40	16	2	10	28	21	72	-51



*선정방식: '2016 현대오일뱅크 K리그 대상 후보선정위원회'에서 3배수 선정 후 선정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기자단 투표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6(이하 챌린지) 베스트 11은 유난히 처음 이름을 올린 선수가 많았다. 총 11명의 수상자 중 세 번째(개인 통산) 수상한 황재원(대구FC)과 두 번째 선정된 조현우(대구FC)를 제외하면 아홉 명이 모두 새로운 얼굴이었다.

먼저 공격수 부문에는 챌린지에서 득점왕과 MVP를 차지해 3관왕을 일군 김동찬(대전 시티즌)과 외국인 선수 포프(부산 아이파크)가 이름을 올렸다. 3관왕의 주인공 김동찬은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서 96%의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최고의 한해를 완성했다.

미드필더 네 자리에서는 세징야(대구FC), 이현승(안산 무궁화 FC), 황인범(대전 시티즌), 바그닝요(부천 FC 1995)가 주인공으로 등극했다. 특히 세징야는 거의 모든 기록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챌린지 전체 평점 1위(211점)와 키 패스 1위(142회) 등을 달성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수비수 부문에는 왼쪽부터 정승용(강원FC) - 황재원(대구FC) - 이한샘(강원FC) - 정우재(대구FC)이 차례대로 선정됐다. 대구와 강원 소속 선수들이 두 자리씩 나눠 가진 셈이다. 이들 중 정승용은 패스 1위(2,549회)와 함께 총 39경기(3,770분)에 출전했는데, 이는 챌린지에서 한 경기 이상 출전한 345명 중 6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마지막으로 골키퍼 부문에는 대구의 골문을 지킨 조현우가 이름을 올렸다. 조현우는 경기당 0.9골(39경기 출전 35실점)을 허용, 0점대 실점률 달성에도 성공했다.



04

Season Review

Points of the Season

01 "The Champions" FC서울

02 공격축구 트렌드

03 Old Boys & Young Boys

04 MOM을 통해 본 에이스들의 활약

05 The Saviors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이하 클래식) 챔피언에 오른 FC서울은 전반기와 후반기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전반기엔 최용수 감독이 스리 백을 기반으로 한 효율성 높은 축구를 보여줬고, 후반기 황선홍 감독이 부임한 후에는 포 백이 주 포메이션으로 자리 잡으며 점유율 높은 축구를 구사했다. 이 두 가지 포메이션의 혼용은 상대의 예상을 어렵게 만들며 서울의 강점으로 작용했다. 또 공격의 핵 데얀과 멀티 플레이어 오스마르의 맹활약도 절대 빼놓을 수 없다.

스리 백과 포 백의 적절한 혼용

서울의 2016시즌은 전임 최용수 감독 시절과 후임 황선홍 감독 시절로 나뉜다. 먼저 최 감독 시절에는 스리 백을 기반으로 경기했다. 최 감독은 3-5-2 포메이션을 가동했는데, 선수들의 전술 이해도가 높아 좋은 경기력을 발산했다. 데얀과 아드리아노는 상호 보완 작용을 보이며 공격을 이끌었고, 신진호·다카하기·주세종이 버틴 중원의 짜임새도 좋았다. 또 좌우 측면에 선 고광민과 고요한은 공격과 수비에 적절히 가담하며 포지션별 숫자 싸움에서 서울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오스마르·김원식·김동우로 이어진 스리 백도 탄탄한 수비력으로 뒷받침했다.

6월 말, 황 감독이 부임한 후에는 서울의 주 포메이션이 3-5-2에서 4-4-2와 4-3-3을 혼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는 스리 백에서 포 백으로 전환한 것이다. 황 감독은 서울의 스리 백 전술이 상대에 많이 노출됐다고 판단해 포 백으로 바꿨다. 또 수비를 보던 오스마르를 미드필드 지역으로 끌어 올리고, 최전방 공격수 박주영을 측면으로 배치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줬다. 여러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던 탓에 황 감독 부임 초기엔 다소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을 되찾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시즌 마지막 경기를 통해 역전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다.

우승 'Key' 플레이어, 데얀과 오스마르

서울의 클래식 우승 원동력은 감독들의 포메이션 변화와 활용에만 있지 않다. 많은 선수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격 지역 여러 포지션을 소화한 박주영, 허리에서 굵은일을 도맡았던 주세종, 늦게 합류 했음에도 수비 리더 구실을 잘해낸 곽태휘, 주전 골키퍼 자리를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 유현과 유상훈 등의 활약이 고루 어우러졌다.

그러나 서울 우승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선수를 꼽으라면 역시 데얀과 오스마르다. 각각 공격과 수비의 핵으로 활약한 두 선수는 시즌 중 역할 변경과 포지션 변경 등 쉽지 않은 과제가 주어졌음에도 흔들림 없이 잘 소화해 냈다. 시즌 초반 데얀은 팀 동료들, 특히 아드리아노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며 팀에 공헌했으나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직접 득점을 올리는 해결사로서 서울의 우승에 힘을 보탰다. 오스마르는 전반기엔 수비수, 후반기엔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우승을 뒷받침했다. 기록을 봐도 두 선수의 활약상이 잘 드러난다. 데얀은 팀 내에서 득점 2위와 슈팅 1위를 기록했고, 오스마르는 리그 전체 패스와 경합 모두 1위에 오르며 2016시즌 서울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음을 입증했다.



데얀	기록	오스마르
2,781분	출전시간	3,521분 (리그3위)
13골 (리그 공동 3위)	득점	4골
1,105회 (80%)	패스 성공률	2,528회 (85%) (리그1위)
675회(34%)	경합 성공률	707회 (66%)
238점 (리그 5위)	평점	245점 (리그1위)



02 공격축구 트렌드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이하 클래식)은 지난 시즌들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 바로 순위 결정 방식의 변화다. 2015시즌까지는 승점→골 득실→다득점 순이었으나, 2016시즌엔 골 득실 대신 다득점이 우선순위로 바

뀌면서 전반적으로 공격 축구가 활기를 띠었다. 특히 2015시즌과 비교했을 때 전체 골 수가 72개나 늘어나면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상위 세 팀, 모두 골 늘었다

2015시즌 K리그 클래식에서는 총 228경기에서 546골이 나왔다. 경기당 2.40득점이었다. 반면 2016시즌에는 72골이 늘어난 618골이 터졌다. 경기당 2.71득점으로 한 경기 평균 0.31득점이나 늘어났다. 순위 결정 방식의 변화가 더 많은 골을 이끌어 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상위 세 팀의 골 증가 수가 도드라졌다. 1위 FC 서울은 전년 대비 15골을 더 넣었고, 2위 전북 현대 모터스도 14골을 더 기록했다. 가장 많은 골이 증가한 팀은 3위 제주 유나이티드다. 제주는 2015시즌에는 55골을 넣는데 그쳤지만, 2016시즌에는 71골을 성공시켜 16골이나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열두 팀 중 여덟 팀의 골이 늘었다. 앞서 언급한 상위 세 팀 외 광주FC(+6골), 인천 유나이티드(+8골), 성남FC(+6골)이 증가세를 보였다. 또 상주 상무와 수원 FC도 전년도 클래식에 있었던 대전 시티즌과 부산 아이파크에 비해 각각 24골과 10골이 늘었다. 반면 골이 줄어든 팀은 네 팀이었다. 울산 현대가 13골 줄었고, 전남 드래곤즈와 수원 삼성 블루윙즈도 각각 2골과 4골이 적어졌다. 포항 스틸러스 역시 6골이 줄었다. 하지만 울산을 제외하면 두 자릿수를 기록할 만큼 크게 하락한 팀은 없어, 전반적으로 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팀	2015년	2016년	+-
서울	52	67	+15
전북	57	71	+14
제주	55	71	+16
울산	54	41	-13
전남	46	44	-2
상주	30(부산)	54	+24
수원	60	56	-4
광주	35	41	+6
포항	49	43	-6
인천	35	43	+8
성남	41	47	+6
수원FC	32(대전)	40	+8
계	546	618	+72

GA 정면, 후반 15~30분 사이 최다

클래식에서 골이 가장 많이 터진 위치와 시간은 각각 GA(골 에어리어) 정면과 후반 16~30분 사이였다. 먼저 골은 GA 정면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곳에서만 총 176골이 터졌다. GA 내 지역에서 96골이 터졌고, GA를 기준으로 각각 왼쪽에 있는 지역(90골)과 오른쪽에 있는 지역(89골)에서도 많은 골이 나왔다. 골이 많이 나온 이 네 개 지역을 합하면 총 451골로 전체 618골 중 73%를 기록했다. 이 외에는 페널티 박스 외곽지역에서 65골이 터졌으며, 좌측과 우측 측면에서 나온 골은 각각 12골과 17골이었다.

골이 가장 많이 나온 시간대를 살펴보면 다득점 우선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전체 618골 중 전반전에 245골, 후반전에 373골이 터졌다.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128골이나 많다. 후반전 중에서도 16~30분 사이가 가장 많았다. 이 시간대에선 109골이나 터져 최다를 기록했다. 2015시즌엔 같은 시간대 92골이 나왔다. 두 번째로 많았던 시간대는 후반 31~45분 사이로 108골이 들어갔다. 이 기록을 보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많은 골이 터졌음을 알 수 있는데, 다득점에 대한 각 팀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후반 추가 시간에 54골이나 터져 2015시즌(26골)에 비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이하 클래식)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노장(OB)과 신예(YB)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OB에서는 30대 후반에 다다른 이동국(전북 현대 모터스·이하 전북)과 현영민(전남 드래곤즈·이하 전남), 그리고 30대 중반인 조병국(인천 유나이티드·이하 인천)이 세월을 거스르는 활약을 보였다. YB에서는 클래식 신인왕에 빛나는 안현범(제주 유나이티드)을 비롯해 성남FC 골키퍼 김동준과 울산 현대 공격수 김승준이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뜨거웠던 노장들의 투혼

2016년 클래식에서 가장 돋보인 활약을 펼친 OB는 단연 이동국이다. 이동국은 전북에서 총 27경기에 나와 1,714분을 소화했다. 출전 경기 수와 시간도 많지만 골도 많이 넣었다. 총 12골을 성공시킨 이동국은 팀 내 득점 2위, 리그 전체 득점 7위에 오르며 여전한 골 감각을 뽐냈다.

골 수보다 주목할 만한 기록은 경기당 키 패스 숫자다. 이동국은 경기당 1.4회의 키 패스를 성공시켰는데, 이는 같은 공격수 포지션에서 리그 전체 1위에 해당할 만큼 훌륭한 기록이다. 공중볼 경합도 팀 내 3위를 기록하며, 아직 리그 정상급 공격수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동국 (전북)	
출전	27경기 (1,714분)
득점	12골 (리그 공동 7위, 팀 내 2위)
키 패스	경기당 1.4회 (공격수 리그 1위)
공중볼 경합	196회 (팀 내 3위)



현영민 (전남)	
출전	29경기 (2,436분)
패스	1,576회 (팀 내 2위)
크로스	52회 (팀 내 3위)
인터셉트	170회 (팀 내 3위)

조병국 (인천)	
출전	29경기 (2,692분)
패스	1,271회 (팀 내 3위)
인터셉트	212회 (팀 내 3위)
공중볼 경합	143회(팀 내 5위)

전남 왼쪽 측면 수비수 현영민과 인천 중앙 수비수 조병국도 좋은 활약을 보였다. 먼저 현영민은 전남이 상위 스플릿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수비 만형' 구실을 톡톡히 했다. 클래식 29경기에 출전해 2,436분을 뛰며 슈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록에서 팀 내 상위권에 들었다. 패스는 전남에서 2위(1,576회)를 기록했고, 크로스(52회)와 인터셉트(170회)도 각각 3위를 기록해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했다. 조병국도 인천 수비의 중추 역할을 해냈다. 조병국은 팀 내에서 인터셉트(212회)와 패스(1,271회) 3위를 기록하며 인천이 클래식에 잔류하는 데 힘을 보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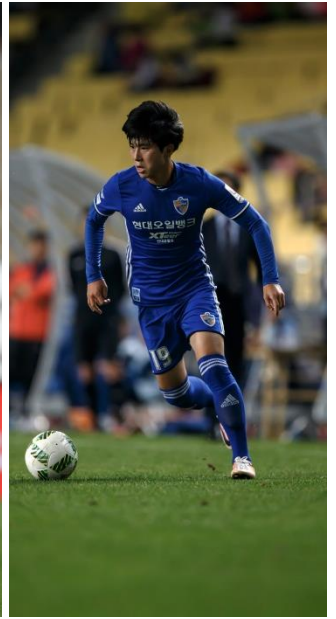
03

Old Boys & Young Boys

내일을 기대케 한 영건들

YB들은 신선한 활력과 함께 내일의 가능성을 키웠다. 클래식 무대를 누빈 많은 영건 중에서 가장 인상적 활약을 펼친 선수는 제주 유나이티드 미드필더 안현범이었다. 신인왕을 차지하기도 한 안현범은 팀 내 공격 포인트 순위 3위(8득점 4도움)를 차지했을 만큼 훌륭한 활약을 펼쳤다. 득점만 따지면 11골을 성공시킨 마르셀로에 이어 팀 내 2위다. 이 외에도 드리블(110회)과 태클(102회) 부문에서도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해 다방면에서 고루 활약했음이 드러났다.

또 안현범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경기에서 제주가 6승을 거둬 기분 좋은 승리 방정식도 생겼다. 성남 김동준과 울산 김승준도 내일을 기대케 하는 수준 높은 경기력을 선보였다. 2016시즌 성남 주전 골키퍼로 활약한 김동준은 팀 내 최다인 26경기에 나왔다.



김동준 (성남)

출전	26경기 (2,507분)
평점	214점 (골키퍼 리그 7위)
경합/인터셉트 성공률	95% (골키퍼 리그 2위)

안현범 (제주)

출전	28경기 (2,131분)
공격포인트	8득점, 4도움
드리블	110회 (팀 내 2위)
태클	102회 (팀 내 3위)

김승준 (울산)

출전	30경기 (2,024분)
득점	8골 (팀 내 1위)
드리블	77회 (팀 내 3위)
키 패스	29회 (팀 내 4위)

경기 수만 많지 않았다. 김동준은 출전한 경기에서 평균 평점이 리그 골키퍼 중 7위였으나 2,000분 이상 출전한 선수들로 범위를 좁히면 리그 골키퍼 중 3위에 해당하는 훌륭한 기록이다. 울산 공격의 한 축을 담당한 김승준의 활약도 인상적이었다. 김승준은 이정협과 코바 등을 제치고 팀 내 득점 1위를 기록했는데, 드리블(77회)과 키 패스(29회)에서도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하는 고른 활약을 보였다.

04

MOM K리그 클래식



38라운드를 치른 K리그 클래식 2016(이하 클래식) MOM에는 총 104명이 선정됐다. 1회 선정된 선수들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회 선정된 선수들이 29명이었다. 3회 이상 선정된 선수들부터는 횟수가 급감한다. 3회는 꼭 11명이었고, 4회와 5회는 각각 9명과 2명

이었다. 여섯 번 MOM에 선정된 선수는 5명, 일곱 번 영광을 차지한 선수는 1명이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이나 MOM에 선정된 선수도 1명 있었다.



정조국, 8회 최다... 데얀은 7회

클래식 MOM에 선정된 104명 중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선수는 광주 FC(이하 광주) 공격수 정조국이었다. 정조국은 여덟 번이나 MOM에 선정돼 2016년 한 해 가장 빛난 활약을 펼친 선수임이 기록으로도 입증됐다. 2016시즌 정조국은 광주 소속으로 31경기에 출전해 20득점 1도움을 기록하며 득점왕도 차지했다. 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팀 내에서 정조국이 차지한 득점 비중이다. 광주는 2016시즌 클래식에서 총 41득점을 기록했는데, 절반에 육박하는 골을 정조국 혼자서 기록했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무려 48%에 이를 만큼 팀 내 비중이 높았다.

2위는 FC서울 공격수 데얀의 몫이었다. 데얀은 일곱 번 MOM에 선정되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했다.

순위	선수	MOM	득점	도움
1	정조국 (광주)	8	20	1
2	데얀 (서울)	7	13	2
3	티아고 (성남)	6	13	5
-	양동현 (포항)	6	13	4
-	아드리아노 (서울)	6	17	6
-	로페즈 (전북)	6	13	6
-	권창훈 (수원)	6	7	4

서울 유니폼을 입고 총 36경기에 나선 데얀은 2,781분을 뛰며 13득점 2도움을 기록했다. 데얀은 시즌 초엔 동료 선수들의 공격을 돕는役に 충실했다. 그러나 아드리아노가 7월 한 달 동안 부상 등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자 기다렸다는 듯 골 퍼레이드(7월 2득점, 8월 5득점 1도움)를 펼쳤다. 특히 서울이 포기하지 않고 선두 전북 현대 모터스(이하 전북)를 추격하던 8월엔 다섯 골이나 터트렸다.

MF 1등 권창훈, DF 1등 김태환

MOM에 가장 많이 선정된 미드필더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 미드필더 권창훈이었다. 권창훈은 아드리아노

등과 함께 여섯 번이나 MOM에 선정됐다. 참고로 MOM 톱 10 중 미드필더는 권창훈이 유일하다. 나머지 아홉 명은 정조국과 데얀을 포함해 모두 최전방 공격수들이 차지했다. 권창훈은 MOM에 여섯 번이나 뽑힐 만큼 좋은 기록을 양산했다. 득점은 수원 내에서 3위(7득점)를 차지했고, 슈팅 횟수에서는 산토스에 이어 2위(67회)를 기록했다. 도움 부문에서도 염기훈에 이어 팀 내 2위(4개)를 차지했다.

수비수 부문에서 가장 많이 MOM에 선정된 선수는 울산 현대에서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활약한 김태환(3회)이었다. 김태환은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도 많이 뛰었지만, 수비수로 활약할 때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고로 MOM 중 톱 30엔 수비수가 딱 두 명 있는데, 김태환과 같은 울산에서 뛴 이용이다. 이용은 두 번 MOM에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골키퍼 부문은 3회 이상 수상자 없이 두 번 선정된 선수가 많았다. 전북 골키퍼 권순태와 수원FC 수문장 이창근 등 모두 여섯 명이 MOM에 선정됐다. 이들 중 권순태는 공격 성향이 강한 전북의 골문을 지키며 35경기에서 37골만 허용해 실력을 과시했다.

04

MOM K리그 챌린지

44라운드를 소화한 K리그 챌린지 2016(이하 챌린지)에서 MOM에는 총 107명이 선정됐다. 104명이 이름을 올린 클래식과 비슷하다. 챌린지도 1회 선정된 선수들이 가장 많았다. 총 60명이다. 두 번 MOM에 오른 선수들은 26명이었다. 여기까진 클래식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횟수가 위로 올라갈수록 차이가 났다. 클래식에서는 7회 이상 선정된 선수가 단 두 명이었지만, 챌린지에서는 여섯 명이나 됐다. 최다 선정 횟수도 10회였다.

토종 자존심 지킨 주민규

서울 이랜드 FC(이하 서울 이랜드) 공격수 주민규는 챌린지 MOM에 가장 많은 열 번이나 선정됐다. 2015시즌 23득점이나 성공시켰던 주민규는 2016시즌 초반엔 슬럼프를 겪으며 부진했다. 3월부터 7월까지 2득점 1도움에 그쳤다. 그러나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좋아졌고, 특히 8월부터 시즌 종료까지 15경기에서 12득점 2도움을 기록해 MOM에 가장 많이 선정된 선수가 됐다. 주민규는 또 29경기(2,624분)에 나서 14득점 3도움을 기록했는데, 이는 38경기에서 12득점을 올린 타라바이보다 높은 경기당 득점이기도 하다.

주민규에 이어서는 각 팀 외국인 공격수들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2위는 아홉 번이나 MOM에 선정된 부천 FC 1995(이하 부천) 공격수 루키안이었다. 루키안은 15득점(38경기·3,555분)을 성공시키며 팀 내 득점 1위도 차지했다. 공동 3위는 7회 선정된 대구FC(이하 대구) 세징야 등 네 명이었다. 네 명 중 부천의 바그닝요는 톱 5에서 유일한 미드필더였다. 뒤를 이어서는 6회를 기록한 부산 아이파크(이하 부산) 포프와 대전 시티즌 김동찬이 차지했고, 챌린지 우승을 이끈 안산 무궁화 FC의 이현승과 한지호는 똑같이 다섯 번 MOM에 이름을 올렸다.

구상민, GK 중 유일하게 3회 선정

챌린지 MOM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이름은 부산 골키퍼 구상민이다. 구상민은 이창근이 떠난 자리를 안정감 있게 메웠고, 그 활약을 인정받아 MOM에 세 번이나 선정됐다. 이는 클래식 골키퍼들까지 통틀어 유일한 기록이다. 구상민은 2016시즌 32경기에서 부산 골문을 지켰는데, 25골만 내주며 0점대 실점률(0.78실점)을 기록했다. 2016년이 프로 데뷔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활약을 펼쳤다 할 수 있다. 뒤를 이어선 서울 이랜드 골키퍼 김영광과 대구 수문장 조현우 등 네 명이 각각 두 번씩 MOM에 선정됐다.

수비수 부문에서는 도드라짐 없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세 번 이상 선정된 선수는 한 명도 없었고, 두 번 MOM에 뽑힌 선수도 다섯 명에 불과했다. 톱 10 중 여덟 명이 이름을 올린 공격수들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2회 선정된 선수들은 서울 이랜드에서 오른쪽 측면을 담당했던 이규로(11경기·954분), 대구에서 왼쪽 측면을 맡았던 정우재(37경기·3,458분), 부천에서 오른쪽 측면에서 뛰던 이학민(35경기·3,409분) 등이다. 이들은 함께 난형난제 모습을 보인 챌린지에서 가장 인상적 수비를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장 황재원(대구)과 김동진(서울 이랜드) 등도 각각 1회 이름을 올렸다.

순위	선수	MOM	경기수	득점	도움
1	주민규(서울E)	10	29	14	3
2	루키안(부천)	9	38	15	4
3	바그닝요(부천)	7	35	9	3
-	세징야(대구)	7	36	11	8
-	크리스찬(경남)	7	38	19	6



05

The Saviors

‘Savior(세이버어)’는 구조자 혹은 구제자를 뜻한다. 위기에 빠진 이를 구해내는 세이버어는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에도 있었다. 특히 강등권 탈출을 위해 노력한 세 팀에 몰려 있었는데,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해낸 이들의 활약은 꽤 인상적이었다. 스플릿 라운드 돌입 후 수원 삼성(이하 수원)을 무패로 이끈 염기훈·조나탄·권창훈, 광주FC(이하 광주)의 공격 선봉장 역을 한 정조국, 인천 유나이티드(이하 인천)의 ‘승리를 부르는 파랑새’ 송시우가 그 세이버어들이다.

수원 구한 염기훈·조나탄·권창훈

수원은 스플릿 시스템이 적용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그룹 B로 떨어졌다. 스플릿 라운드 돌입 후에도 강등권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했는데, 염기훈·조나탄·권창훈 세 선수의 특급 활약에 힘입어 최종 순위를 7위로 마쳤다. 7위는 그룹 B에서 차지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순위다. 수원이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첫 번째 원동력은 조나탄에게서 나왔다. 조나탄은 스플릿 라운드서 치른



스플릿 5라운드 기간 6G, 6AS 합작 (총 11G, 6AS)
팀은 3승 2무 기록 (순위 10위 ▶ 7위로 상승)

먼저 염기훈은 시즌 중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이며 조나탄 등 동료의 골을 도왔다. 염기훈은 필요한 순간마다 도움을 기록했는데, 스플릿 라운드에서만 3도움(4경기)을 기록하며 팀에 큰 힘을 보탤었다. 권창훈도 마찬가지다. 특히 권창훈은 37라운드 인천전에서 1-1이던 후반 4분 리드를 잡는 팀의 두 번째 골을 터트리며 수원이 강등권에서 완전히 탈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앞서 언급한 조나탄·염기훈·권창훈 등 세 명은 스플릿 라운드에서 치른 다섯 경기에서 6골 6도움을 합작해 수원의 비상을 주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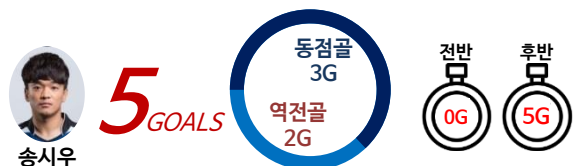
클래식 잔류 이끈 정조국과 송시우

수원 ‘삼총사’의 활약 못잖게 광주 공격수 정조국과 인천 공격수 송시우도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 우선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정조국은 소속 팀 광주가 강등 걱정 없이 시즌을 보낼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다. 정조국은 31경기에서 2,489분을 뛰었는데, 열일곱 경기에서 20골을 성공시키며 광주의 잔류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 정조국이 넣은 20골은 광주의 총 득점(41골)의 절반에 육박할 만큼 대단한 수치다. 양만 많지 않았다. 질도 좋았다. 정조국이 골을 넣은 열일곱 경기 중 결승골 만네 개였을 정도다. 그야말로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맹활약한 정조국이다. 올해 처음으로 프로 무대를 경험한 송시우는 극적 골을 많이 터트렸다. 송시우는 28경기에 나왔지만 총 출전 시간이 1,003분일만큼 짧았다. 한 경기 평균 35.8분이다.



팀 전체 득점 (41점) 중 20득점 기록
총 31게임 출전 17경기 득점 (4번 결승골 - 팀 내 최다)

이는 28경기 이상 출전한 클래식 76명 중 가장 적은 시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시우는 다섯 골이나 넣었다. 골이 터진 시점도 드라마틱했다. 다섯 골 중 세 골이 동점골이었고, 두 골이 역전골이었다. 또 다섯 골 모두 후반전에 터졌으며, 추가 시간에만 세 골이 나왔다. 더해 송시우가 골을 기록한 경기에서 인천은 ‘무패(5전 2승 3무)’를 거뒀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클래식 최고의 조커로 성장할 자질을 보여줬다



총 5득점 (3번의 동점골, 2번의 역전골) - 무패 기록(2승 3무)
시즌 5골 모두 후반에 기록, 그중 3골을 추가시간에 기록

05

Statistics

Reading the Data

01 GOAL

02 PASS & CRO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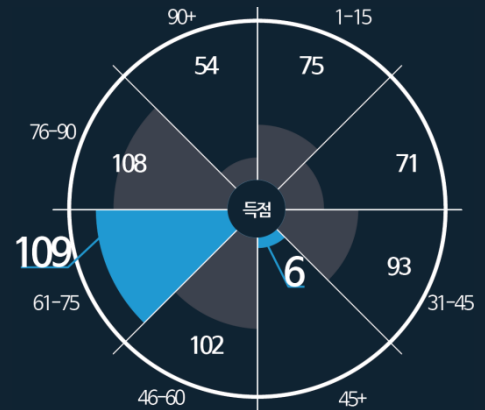
03 POSSESSION / FOUL

04 PAUSE & APT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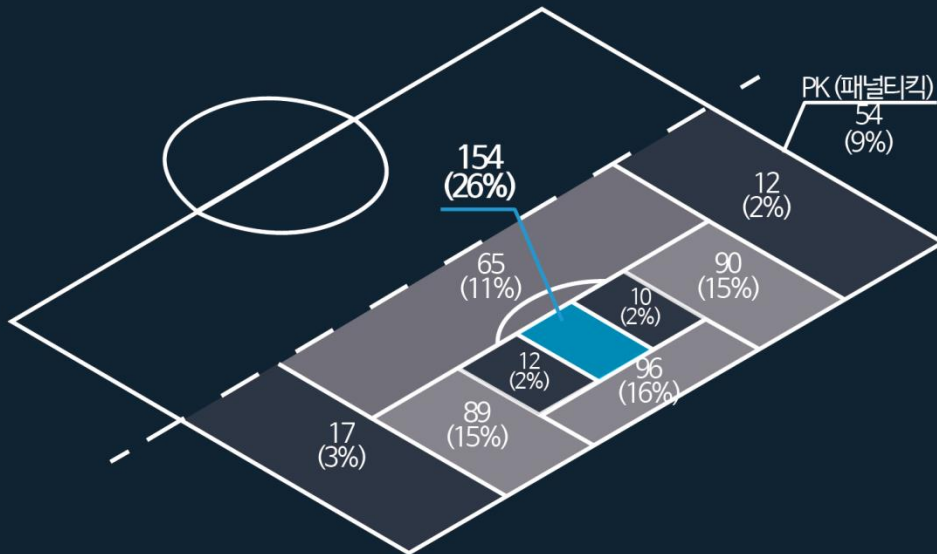
시간대별 득점

구분	합계	전반	후반	0-15	16-30	31-45	45+	46-60	61-75	76-90	90+
서울	67	26	41	11	7	8	-	19	9	6	7
전북	71	25	46	9	6	10	-	12	16	14	4
제주	71	27	44	5	5	14	3	10	13	18	3
울산	41	19	22	6	7	6	-	7	3	5	7
전남	44	15	29	8	-	7	-	6	5	15	3
상주	54	20	34	3	8	8	1	12	9	8	5
수원	56	30	26	10	10	10	-	4	13	5	4
광주	41	15	26	5	4	5	1	7	9	5	5
포항	43	20	23	6	11	3	-	4	4	9	6
인천	43	13	30	5	4	4	-	8	8	7	7
성남	47	19	28	3	5	10	1	12	10	5	1
수원FC	40	16	24	4	4	8	-	1	10	11	2
합계	618	245	373	75	71	93	6	102	109	108	54
평균	51.5	20.4	31.1	6.3	5.9	7.8	0.5	8.5	9.1	9	4.5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에 골이 더 많이 나왔다. 전반전엔 평균 20.4골이 터진 것에 비해 후반전엔 평균 31.1골이 나왔다. 후반전이 10.7골 많다. 특히 후반 16분부터 30분까지 가장 많은 109골이 터졌다. 후반 31분부터 45분까지는 108골, 후반 추가 시간 때도 54골이나 나왔다.

위치별 득점 현황



골이 가장 많이 터진 지역은 GA(골 에어리어) 정면이다. 총 176골이 나왔다. 전체 골의 29%다. GA 정면을 세분화하면 정면 지역에서 154골이 나왔다. 그 다음으로는 GA 정면 안(96골)과 GA 왼쪽(90골), GA 오른쪽(89골) 순이다. 페널티 박스 외곽에선 94골(16%)이 터졌다.

선취득점시 결과

구단명	시즌			선제 득점 시			선제 실점 시		
	승	무	패	승	무	패	승	무	패
서울	21	7(2)	10	19	3	1	2	2	9
전북	20	16(4)	2	14	8	1	6	4	1
제주	17	8(4)	13	15	1	2	2	3	11
울산	14	12(6)	12	12	2	2	2	4	10
수원	10	18(1)	10	10	12	2	-	5	8
광주	11	14(3)	13	10	3	1	1	8	12
전남	12	11(6)	15	9	2	4	3	3	11
포항	12	10(3)	16	12	4	2	-	3	14
인천	11	12(5)	15	10	2	3	1	5	12
성남	11	10(4)	17	8	4	2	3	2	15
상주	12	7(1)	19	9	2	2	3	4	17
수원FC	10	9(5)	19	8	2	3	2	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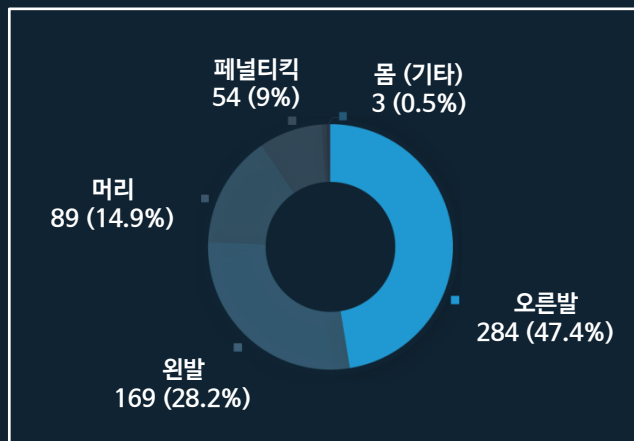
제주 유나이티드는 선취 득점 시 승률이 가장 높았다. 18경기에서 15승 1무 2패 기록, 승률이 83.3%나 된다. 다음은 FC서울로 83%(19승 3무 1패)다. 전북 현대 모터스는 선제 실점을 허용한 11경기에서 6승 4무 1패를 기록했다. 먼저 골을 허용하고도 55%의 승률을 보였다. 선제 실점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따라잡는 저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반면 수원과 포항은 선제 실점을 당한 경기에서는 역전승을 한번도 거두지 못했다

득점 TOP 5

순위	선수	팀	득점
1	정조국	광주	20
2	아드리아노	서울	17
3	티아고	성남	13
-	양동현	포항	13
-	로페즈	전북	13
-	데얀	서울	13

득점 1위는 20골을 성공시킨 정조국(광주 FC)이다. 정조국은 경기당 0.65골을 만들었다. 2위 아드리아노는 30경기에서 17골을 성공시켜 경기 당 0.57골을 터트렸다. 득점 TOP 5 중 경기당 득점이 가장 높은 선수는 성남FC서 뛰었던 티아고로 0.68(19경기 13골)골이다.

득점 방법별 득점 현황



오른발에 의한 득점이 총 284골(47.4%)로 절반에 육박했다. 왼발은 169골(28.2%)이었다. 머리를 이용한 득점이 89골(14.9%)이었고, 몸에 맞고 들어간 득점은 3골(0.5%)이었다. 페널티킥에 의한 득점은 총 54골이었으며, 이 중 오른발에서 50골이 나왔고 왼발은 4골이었다.

오픈 플레이 득점



세트피스 득점

팀	세트피스	코너킥	프리킥	페널티킥	스로인
제주	22	11	5	4	2
광주	20	6	4	9	1
상주	20	4	7	9	-
수원	19	6	11	1	1
전북	17	7	2	6	2
인천	16	4	9	3	-
서울	16	3	5	8	-
성남	16	7	6	2	1
울산	14	6	5	3	-
수원FC	13	2	7	4	-
포항	11	3	5	3	-
전남	9	2	6	1	-
리그평균	16.1	5.1	6.0	4.4	1.4

오픈 플레이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은 전북 현대 모터스다. 총 54골을 넣었다. 일반 공격 득점이 36골이고, 역습 득점이 18골이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역습에 강점을 보였다.

오픈 플레이로 얻은 49골 중 역습으로 22골을 넣었다. 성남FC는 역습 득점이 가장 적었다(7골). 제주 유나이티드는 세트피스에서 22골을 만들어 이 부문 1위를 기록했다. 그 중 코너킥에 의한 득점이 11골로 가장 많았다. 클래식 12개 팀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는 프리킥으로 11골을 만들어 최다를 기록했다. 그 다음은 9골을 기록한 인천 유나이티드다.

슈팅



전북 현대 모터스는 가장 많은 슈팅(584개)을 시도했다. 두 번째는 543개를 기록한 수원 삼성 블루윙즈다. 유효 슈팅 비율이 가장 높은 팀은 FC서울과 상주 상무다. 서울은 총 511개의 슈팅 중 204개(40%)가 유효 슈팅이었고, 상주는 453개 중 181개(40%)가 유효 슈팅이었다.

구분	전체 슈팅	경기당 슈팅	유효슈팅	유효슈팅율(%)
전북	584	15.4	207	35%
수원	543	14.3	184	34%
제주	541	14.2	211	39%
수원FC	534	14.1	172	32%
서울	511	13.4	204	40%
전남	462	12.2	159	34%
상주	453	11.9	181	40%
울산	453	11.9	151	33%
성남	432	11.4	147	34%
포항	423	11.1	153	36%
인천	415	10.9	154	37%
광주	413	10.9	137	33%
리그평균	480	12.6	171.7	36%

패스

팀	패스 시도	패스 성공	패스 성공률
서울	21,849	18,149	83.1%
상주	20,593	16,959	82.4%
제주	18,893	15,318	81.1%
수원	18,836	15,245	80.9%
포항	18,551	14,970	80.7%
성남	17,738	14,197	80.0%
전남	17,574	14,082	80.1%
울산	17,546	13,963	79.6%
전북	17,426	13,695	78.6%
인천	17,304	13,833	79.9%
수원FC	16,833	13,277	78.9%
광주	15,672	11,827	75.5%
리그평균	18,235	14,626	80.1%



FC서울은 패스 시도가 가장 많고, 성공률도 제일 높은 팀이다. 총 2만 1,894회의 패스를 시도해 1만 8,149회를 성공시켰다. 성공률은 83.1%다. 성공률이 가장 낮은 팀은 광주FC로 75.5%였다. 광주는 패스 시도(1만 5,672회)와 패스 성공(1만 1,827회) 횟수에서도 가장 낮았다.

거리별 패스

팀	평균패스 길이	단거리/정확도	중거리/정확도	장거리/정확도
울산	20.4	82%(107/88)	82%(302/249)	63%(49/31)
수원FC	20.2	79%(104/82)	82%(293/240)	64%(42/27)
제주	19.6	82%(109/89)	84%(344/289)	62%(40/25)
수원	19.6	82%(113/93)	83%(340/283)	64%(40/26)
인천	19.6	80%(103/82)	82%(312/257)	66%(38/25)
광주	19.4	78%(109/86)	78%(258/202)	59%(40/24)
상주	19.1	84%(130/109)	85%(368/311)	64%(41/26)
성남	19.1	82%(111/91)	83%(314/260)	59%(37/22)
전남	18.9	81%(112/91)	83%(313/259)	60%(34/21)
전북	18.8	80%(127/102)	80%(294/236)	64%(35/23)
포항	18.7	82%(119/97)	83%(332/275)	63%(34/22)
서울	18.3	84%(144/121)	86%(391/334)	62%(37/23)
리그평균	19.3	81.3%(116/94)	82.6%(322/266)	62.5%(39/25)



단거리 패스(0~15m) 정확도가 가장 좋은 팀은 FC서울과 상주 상무였다. 공히 84%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중거리 패스(16~40m) 정확도는 서울이 86%로 1위였고, 장거리 패스(41m 이상) 정확도는 66%를 기록한 인천 유나이티드가 제일 좋았다. 경기당 평균 38회를 시도해 25회를 적중 시켰다.

*단거리(0-15m), 중거리(16-40m), 장거리(+41m)

패스 / 키 패스 / 크로스 성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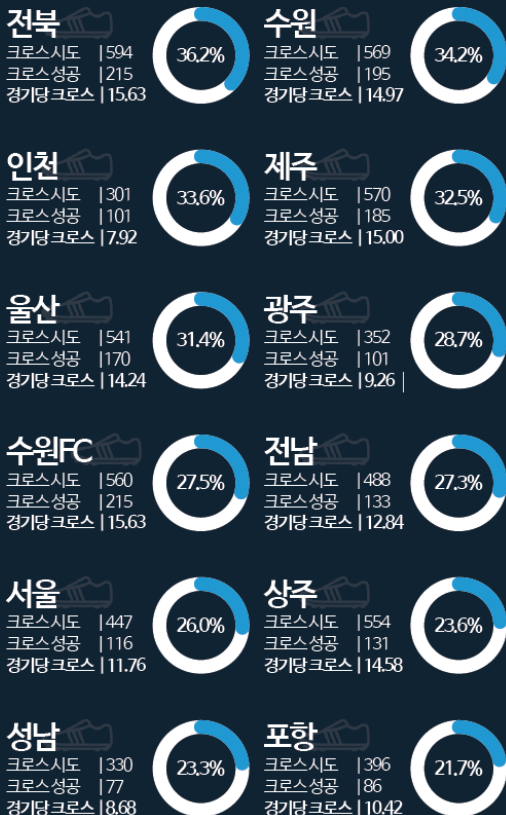
구분	패스 성공률	키 패스 성공률
서울	83% (575/478)	52% (15/8)
상주	82% (542/446)	47% (13/6)
제주	81% (497/403)	56% (12/7)
수원	81% (496/401)	57% (13/7)
포항	81% (488/394)	53% (10/5)
성남	80% (467/374)	48% (12/6)
전남	80% (462/371)	52% (10/5)
울산	80% (462/367)	58% (12/7)
인천	80% (455/364)	55% (11/6)
전북	79% (459/360)	59% (14/8)
수원FC	79% (443/349)	53% (13/7)
광주	75% (412/311)	55% (11/6)
리그평균	80.1% (480/385)	53.8% (12/7)



경기 당 패스 성공률은 FC서울이 가장 좋았다. 83% (575회 시도, 478회 성공)를 기록했다. 경기 당 키 패스 성공률은 전북 현대 모터스가 가장 높았다. 14회 시도해 8회 (59%) 성공했다. 울산 현대도 58% (12회/7회)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고, 다음은 수원 삼성 블루윙즈 (57%)였다.

* 키 패스: 골키퍼와 1:1 상황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선수로 향하는 패스

크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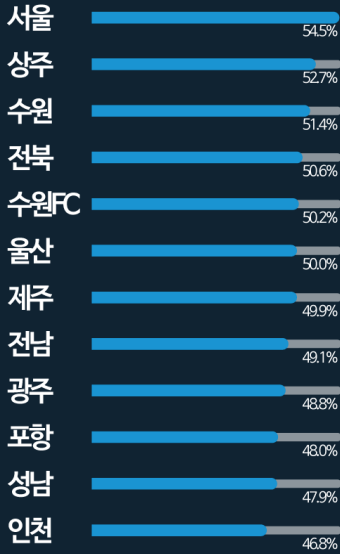


좌우 측면 크로스의 정확도는 전북 현대 모터스가 가장 정확했다. 594회의 크로스를 시도해 215(36.2%)회 성공했다. 크로스 시도 횟수가 가장 적은 팀은 성남FC였다. 330회만(성공 77회, 성공률 23.3%) 시도했다. 크로스 성공률이 가장 낮은 팀은 포항 스틸러스(21.7%)였다.



* 크로스: 상대팀 진영 절반 측면 부근에서 페널티 박스로 향하는 패스 (공중볼 또는 땅볼)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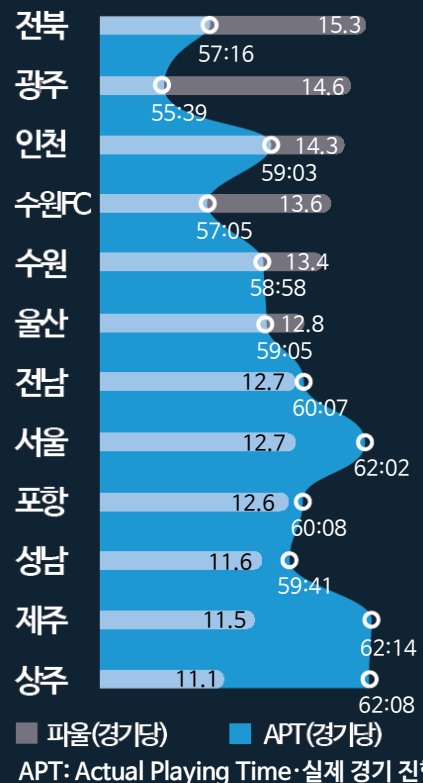
우승 팀 FC서울은 54.5%로 제일 높은 볼 점유율을 보였다. 상주 상무가 두 번째 (52.7%)다. 리그 순위 하위 5개 팀은 볼 점유율에서도 하위권에 위치했다. 8위 광주FC부터 11위 성남FC까지 모두 볼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했다. 12위 수원FC만 예외로 50.2%를 기록했다.



파울

팀	파울	피파울	경기 당 경고	경기 당 퇴장
전북	582(15.32)	491(12.92)	2.61	0.05
광주	556(14.63)	445(11.71)	2.21	0.03
인천	542(14.26)	469(12.34)	1.95	0.03
수원FC	515(13.55)	481(12.66)	2.45	0.05
수원	509(13.39)	409(10.76)	1.74	0.00
울산	487(12.82)	409(10.76)	1.76	0.05
전남	484(12.74)	477(12.55)	2.03	0.00
서울	483(12.71)	444(11.68)	1.66	0.03
포항	479(12.61)	497(13.08)	1.92	0.08
성남	440(11.58)	500(13.16)	1.79	0.08
제주	436(11.47)	391(10.29)	1.08	0.00
상주	420(11.05)	514(13.53)	1.66	0.00
리그평균	494 (13.01)	460 (12.12)	1.90	0.03

파울 - APT 상관 관계



전북 현대 모터스는 범한 파울과 당한 파울 합계가 가장 많은 팀(1,073개)이다. 범한 파울이 582개(경기당 15.32개), 당한 파울이 491개(경기당 12.92개)였다. 경기당 경고도 2.61장으로 가장 많다. 경기당 경고가 가장 적은 팀은 제주 유나이티드다. 경기당 1.08장 받았다.

파울이 적으면 실제 경기 시간(APT)이 길었다. 경기당 파울이 가장 적은 상주 상무(11.1개)와 제주 유나이티드(11.5개)는 APT에서 각각 2위(62분08초)와 1위(62분14초)를 기록했다. 실제 경기 시간이 가장 짧은 팀은 광주FC(55분39초)였다. 광주는 두 번째로 파울이 많았다(14.6개).

04 PAUSE & APT DATA

〈 경기당 평균 APT 〉

제주 유나이티드는 경기 당 실제 경기 시간(APT)이 가장 길고 각종 지연 시간은 대부분 짧았다. 특히 파울로 인한 지연 시간이 유일하게 10분대(10.14분)를 기록하며 APT 증대에 기여했다.

상주 상무는 부상 지연 시간(1.23분)과 교체 지연 시간(1.24분)이 모두 클래식에서 제일 짧았다. 이에 APT는 62.12분으로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다. 볼 아웃에 의한 경기 지연 시간이 가장 짧았던 팀은 FC서울로 경기 당 19.77분만 지연됐다. 클래식서 10분대 볼 아웃 지연 시간을 기록한 건 서울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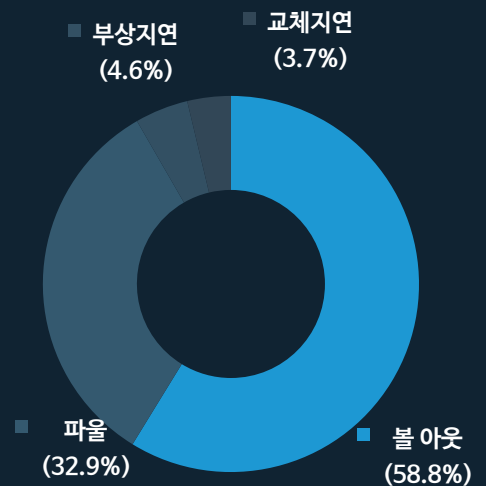
클래식	전체	홈	원정	승	패	무
제주	62분14초	63분25초	61분04초	63분26초	60분58초	61분47초
상주	62분08초	62분34초	61분44초	62분34초	62분22초	60분45초
서울	62분02초	62분58초	61분08초	61분23초	63분10초	62분25초
포항	60분08초	60분28초	59분48초	62분14초	60분28초	57분04초
전남	60분07초	59분25초	60분47초	61분38초	61분52초	56분01초
성남	59분41초	58분37초	60분48초	60분43초	50분35초	57분04초
울산	59분05초	58분50초	59분19초	59분33초	60분37초	57분00초
인천	59분03초	59분16초	58분50초	57분35초	60분27초	58분40초
수원	58분58초	59분08초	58분48초	59분52초	58분01초	59분03초
전북	57분16초	57분44초	56분48초	58분49초	50분37초	56분10초
수원FC	57분05초	56분24초	57분47초	56분36초	57분52초	55분59초
광주	55분39초	54분48초	56분31초	55분04초	56분46초	55분05초
리그평균	59분27초	59분28초	59분27초	59분58초	59분29초	58분05초

〈 경기당 경기 지연 데이터 〉

클래식	전체 경기시간	볼 아웃 지연	파울 지연	부상 지연	교체 지연
전북	97분52초	23분02초	14분26초	01분40초	01분23초
수원	97분42초	22분55초	11분59초	02분17초	01분29초
광주	97분28초	24분51초	13분07초	02분09초	01분38초
서울	97분22초	19분46초	12분23초	01분43초	01분23초
수원FC	97분05초	23분59초	12분56초	01분39초	01분23초
전남	97분02초	21분43초	12분10초	01분43초	01분15초
성남	97분00초	22분10초	12분07초	01분33초	01분25초
포항	96분50초	21분35초	12분02초	01분41초	01분20초
인천	96분46초	20분41초	13분10초	02분17초	01분29초
울산	96분46초	22분32초	12분16초	01분22초	01분28초
제주	96분38초	21분23초	10분08초	01분25초	01분23초
상주	96분27초	20분14초	11분33초	01분14초	01분14초
리그평균	97분05초	22분04초	12분22초	01분43초	01분24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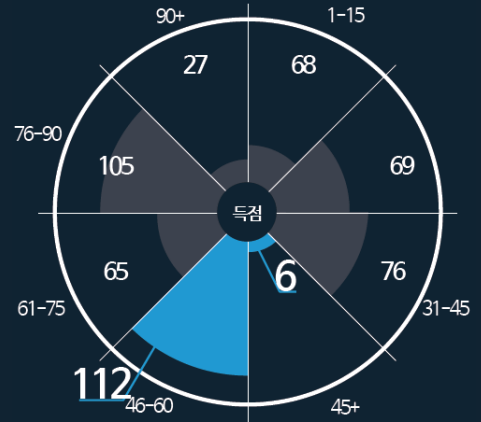
* 전체경기시간: 전후반 추가 시간을 포함한 경기시간

〈 경기 지연 사유 비율 〉



시간대별 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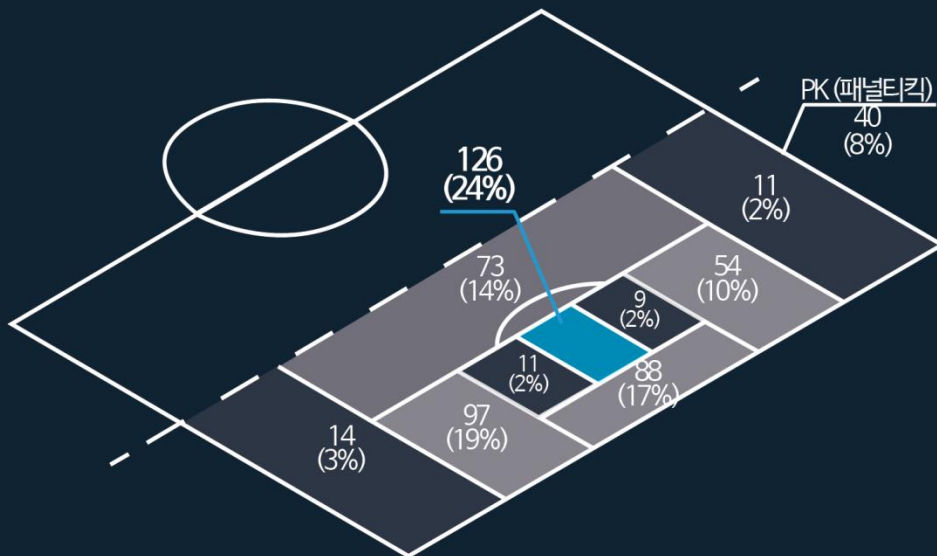
구분	합계	전반	후반	0-15	16-30	31-45	45+	46-60	61-75	76-90	90+
안산	57	25	32	10	7	7	1	15	6	9	2
대구	53	17	36	8	3	6	0	13	11	9	3
부천	49	18	31	6	4	8	0	11	8	10	2
강원	50	20	30	4	4	10	2	8	8	10	4
부산	52	13	39	3	5	5	0	12	9	17	1
서울E	47	19	28	3	8	7	1	10	5	8	5
대전	56	32	24	13	6	12	1	11	5	6	2
경남	61	31	30	10	10	10	1	10	4	11	5
안양	40	16	24	4	10	2	0	10	4	9	1
충주	42	17	25	6	6	5	0	6	4	14	1
고양	21	11	10	1	6	4	0	6	1	2	1
합계	528	219	309	68	69	76	6	112	65	105	27
평균	48	19.9	28.1	6.2	6.3	6.9	0.5	10.2	5.9	9.5	2.5



전반전에 219골, 후반전엔 309골이 터졌다. 평균으로 따지면 전반전엔 팀 당 19.9골, 후반전엔 28.1골이다. 골은 후반 초반에 가장 많이 터졌다.

후반 1분부터 15분까지 112골로 전체 득점의 21.2%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후반 31분부터 후반 45분까지다. 총 105골이 터졌다.

위치별 득점 현황



가장 많은 골은 GA(골 에어리어)서 나왔다. 126골로 전체 득점의 28%를 차지한다. 특히 GA 정면에서 24%에 이르는 126골이 터졌다. 페널티 박스 밖에선 98골(19%)이 터졌다.

선취득점시 결과

구단명	시즌			선제 득점 시			선제 실점 시		
	승	무	패	승	무	패	승	무	패
안산	21	7(3)	12	17	3	2	4	1	10
대구	19	13(5)	8	15	4	1	4	4	7
부천	19	10(5)	11	16	4	3	3	1	8
강원	19	9(5)	12	16	3	4	3	1	8
부산	19	7(3)	14	17	1	1	2	3	13
서울E	17	13(4)	10	16	3	3	1	6	7
대전	15	10(3)	15	14	5	2	1	2	13
경남	18	6(2)	16	16	3	1	2	1	15
안양	11	13(4)	16	10	3	2	1	6	14
충주	7	8(4)	25	4	1	3	3	3	22
고양	2	10(6)	28	1	1	3	1	3	25



부산 아이파크는 선취 득점 시 89.5%의 대단히 높은 승률을 보였다. 반대로 선제 실점 시 승률은 11.1%로 낮았다.

선제 실점 시 승률이 가장 낮은 팀은 고양 자이크로 FC로 3.5%였다. 고양은 선제 득점 시에도 1승 1무 3패를 기록하는 데 그쳐 20%의 가장 낮은 승률을 보였다.

득점 TO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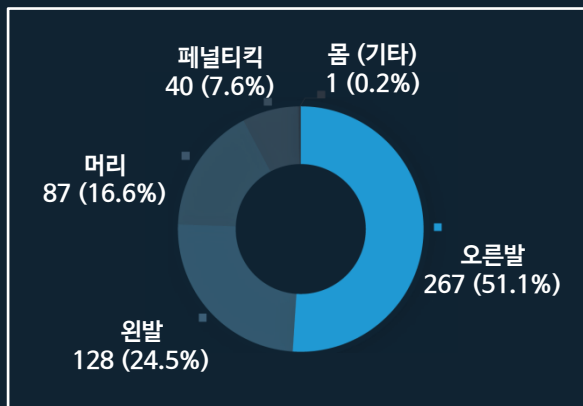
순위	선수	팀	득점
1	김동찬	대전	20
2	크리스찬	경남	19
3	포프	부산	18
4	파울로	대구	17
5	루키안	부천	15

김동찬(대전 시티즌)은 20골을 넣어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경기당 득점은 0.51골이다.

대구 FC 파울로는 17골을 기록해 4위였지만, 경기당 득점은 0.52골로 가장 높았다.

부산 아이파크 포프는 37경기에서 총 102개의 슈팅을 때려 18골을 성공시켰다. 유효 슈팅은 46개였다.

득점 방법별 득점 현황



오른발로 넣은 골은 총 267골(51.1%)로 전체 득점의 절반 이상이었다. 왼발과 머리로 만든 득점은 각각 128골(24.5%)와 87골(16.6%)이었으며, 총 40개의 페널티킥 득점 중 왼발로 성공시킨 골은 1골이었다. 몸에 맞고 들어간 1골로 전체 득점의 0.2%를 차지했다.

세트피스 득점

팀	세트피스	코너킥	프리킥	페널티킥	스로인
강원	18	4	6	8	-
안산	16	3	7	6	-
대구	15	3	8	4	-
서울E	14	10	2	2	-
부산	14	6	4	3	1
부천	14	3	8	3	-
경남	12	8	1	2	1
안양	11	3	2	6	-
대전	10	4	3	3	-
충주	7	3	1	2	1
고양	5	-	2	3	-
리그평균	12.6	4.7	4	3.8	1

오픈 플레이 득점



경남FC는 오픈 플레이로 가장 많은 득점(47골)을 올렸다. 역습에 의한 득점은 11골로 많지 않았지만, 일반 공격에 의한 득점이 36골로 가장 많았다.

서울 이랜드 FC는 유일하게 일반 공격에 의한 득점과 역습에 의한 득점이 같은 팀이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16골씩 만들어 냈다. 강원FC는 세트피스에서 제일 많은 18골을 얻었다. 코너킥 득점이 4골, 프리킥 득점이 6골, 페널티킥 득점이 8골이었다. 페널티킥 득점은 최다다. 서울 이랜드 FC는 코너킥에서 가장 많은 10골을 만들었다. 고양 자이크로 FC는 유일하게 코너킥에서 득점을 만들지 못한 팀이었다.

슈팅



대전 시티즌은 총 588개의 슈팅을 시도했다. 챌린지 11개 팀 중 최다였다. 유효 슈팅도 가장 많은 214개를 기록했다. 유효 슈팅 비율은 36%다. 챌린지에서 400개 이하의 슈팅을 기록한 건 부천 FC 1995뿐이다. 부천은 총 387개의 슈팅을 때렸고, 유효 슈팅은 138개(36%)였다.

구분	전체 슈팅	경기당 슈팅	유효슈팅	유효슈팅율(%)
대전	588	14.7	214	36%
대구	511	12.8	181	35%
부산	505	12.6	197	39%
안산	455	11.4	166	36%
경남	454	11.4	147	32%
강원	450	11.3	167	37%
안양	448	11.2	146	33%
고양	448	11.2	137	31%
서울E	416	10.4	163	39%
충주	408	10.2	118	29%
부천	387	9.7	138	36%
리그평균	460.9	11.5	161.3	35%

패스



안산 무궁화 FC는 85.2%의 패스 성공률을 보였다. 2만 3,163번의 패스 중 1만 9,733번 성공시켰다. 패스 성공률과 패스 시도 횟수 모두 챌린지 11개 팀 중 1등이다.

고양 자이크로 FC는 안산의 패스 성공 숫자보다 적은 1만 6,754번만 패스했다. 성공은 1만 2,974회 (77.4%)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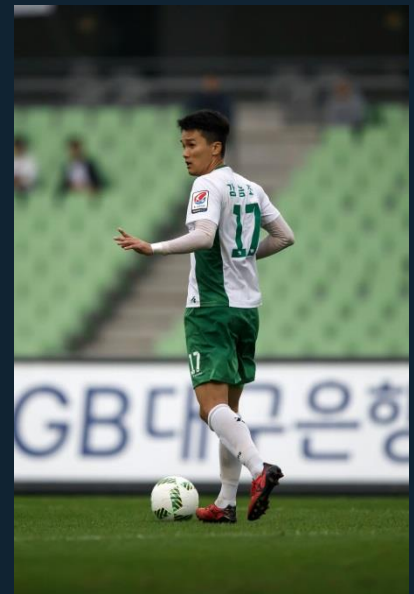
팀	패스 시도	패스 성공	패스 성공률
안산	23,163	19,733	85.2%
강원	22,056	18,250	82.7%
대전	20,818	16,995	81.6%
부산	20,389	16,700	81.9%
안양	19,378	15,876	81.9%
충주	19,273	15,467	80.3%
경남	19,200	15,802	82.3%
서울E	18,901	15,036	79.6%
대구	18,767	15,273	81.4%
부천	18,228	14,544	79.8%
고양	16,754	12,974	77.4%
리그평균	19,721	16,059	81.3%

거리별 패스

팀	평균패스 길이	단거리/정확도	중거리/정확도	장거리/정확도
부천	20.4	79% (106/84)	82% (299/247)	66% (46/30)
고양	19.7	80% (111/89)	80% (261/210)	60% (43/26)
서울E	19.6	80% (122/98)	82% (317/259)	67% (43/29)
충주	19.3	82% (129/106)	83% (316/263)	63% (45/28)
안양	19.3	82% (128/105)	85% (336/285)	67% (42/28)
대구	19.0	82% (115/94)	84% (314/263)	66% (34/23)
부산	18.9	83% (129/107)	85% (339/288)	63% (38/24)
경남	18.5	83% (132/109)	85% (332/282)	66% (37/25)
안산	18.4	85% (154/131)	88% (397/348)	69% (40/28)
강원	18.2	83% (154/129)	85% (341/291)	63% (37/24)
대전	18.0	85% (153/130)	84% (321/268)	57% (41/24)
리그평균	19.0	82% (130/107)	84% (325/273)	64% (41/26)

*단거리(0-15m), 중거리(16-40m), 장거리(+41m)

단거리 패스(0~15m) 정확도는 안산 무궁화 FC와 대전 시티즌이 가장 높았다. 공히 85%였다. 중거리 패스(16~40m) 정확도는 88%의 성공률을 보인 안산이었으며, 장거리 패스(41m 이상) 정확도 역시 안산(69%)이 으뜸이었다. 대전 시티즌은 평균 패스 길이가 18m로 가장 짧았다.



패스 / 키 패스 / 크로스 성공률

구분	패스 성공률	키 패스 성공률
안산	85% (595/507)	51% (12/6)
강원	83% (536/443)	53% (12/6)
부산	82% (511/419)	51% (12/6)
안양	82% (510/418)	46% (12/6)
경남	82% (505/416)	49% (14/7)
대전	81% (517/421)	47% (13/6)
대구	81% (467/379)	49% (14/7)
충주	80% (494/397)	52% (10/5)
서울E	80% (485/386)	55% (14/7)
부천	80% (453/361)	49% (13/6)
고양	77% (419/325)	43% (7/3.2)
리그평균	81.0% (499/407)	49.6% (1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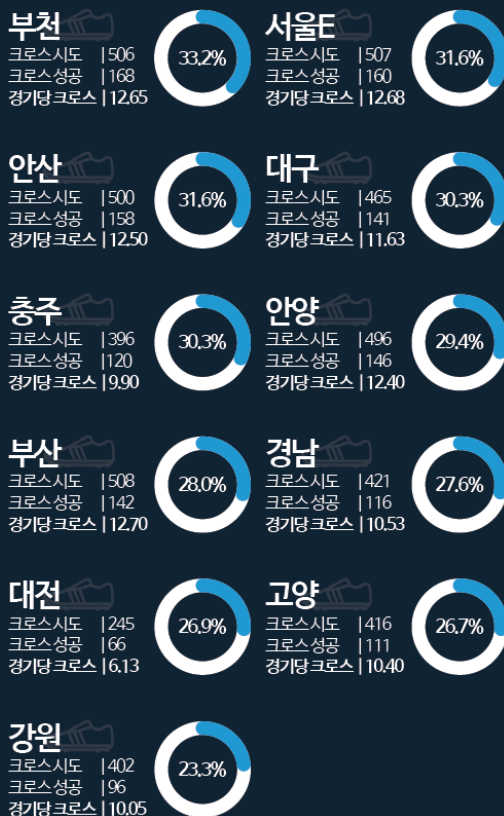
안산 무궁화 FC는 경기 당 평균 595회 패스해 507회 성공했다. 85%로 가장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다. 서울 이랜드 FC는 경기 당 키 패스 성공률이 제일 높은 팀이었다. 14회 시도해 7회 성공했다. 성공률은 55%다. 크로스 성공률 1위는 33%를 기록한 부천 FC 1995다.

* 키 패스: 골키퍼와 1:1 상황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선수로 향하는 패스

크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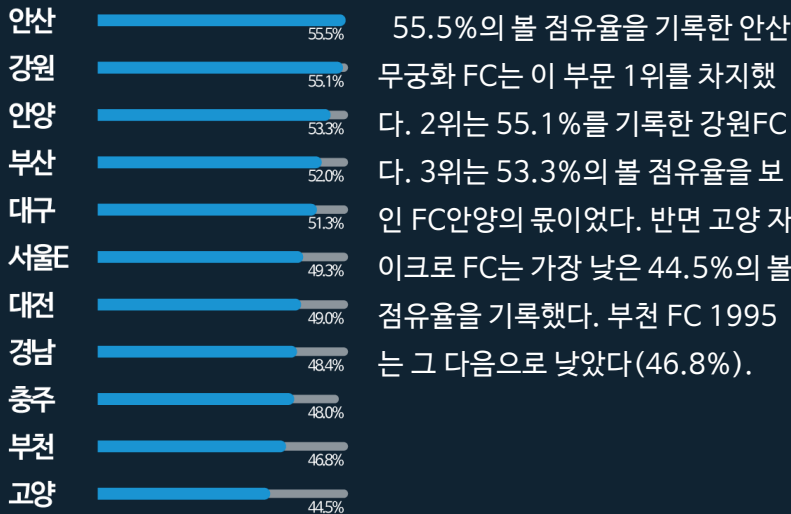


부천 FC 1995는 크로스가 가장 정확한 팀이었다. 총 506회 크로스를 시도해 168회 성공했다. 성공률 33.2%다. 그 다음은 31.6%(시도 507회, 성공 160회)의 성공률을 기록한 서울 이랜드 FC다. 강원FC는 402회 시도해 96회만 성공, 가장 낮은 23.9%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 크로스: 상대팀 진형 절반 측면 부근에서 페널티 박스로 향하는 패스 (공중볼 또는 땅볼)

점유율



55.5%의 볼 점유율을 기록한 안산 무궁화 FC는 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55.1%를 기록한 강원FC다. 3위는 53.3%의 볼 점유율을 보인 FC안양의 몫이었다. 반면 고양 자이크로 FC는 가장 낮은 44.5%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다. 부천 FC 1995는 그 다음으로 낮았다(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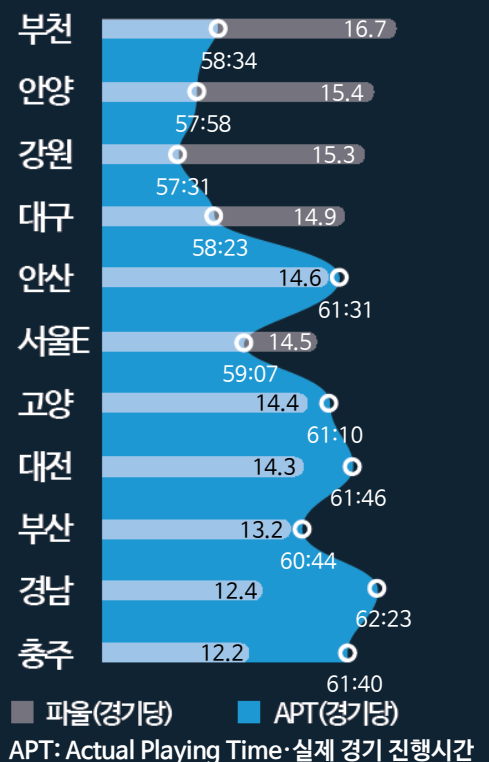
파울

팀	파울	피파울	경기 당 경고	경기 당 퇴장
부천	669(16.73)	543(13.58)	2.13	0.05
안양	614(15.35)	481(12.03)	2.20	0.00
강원	612(15.30)	645(16.13)	2.23	0.03
대구	594(14.85)	598(14.95)	2.03	0.03
안산	585(14.63)	497(12.43)	1.93	0.08
서울E	579(14.48)	518(12.95)	2.20	0.00
고양	576(14.40)	489(12.23)	2.20	0.05
대전	573(14.33)	465(11.63)	1.93	0.03
부산	527(13.18)	535(13.38)	1.98	0.03
경남	494(12.35)	503(12.58)	1.58	0.03
충주	488(12.20)	480(12.00)	1.58	0.00
리그평균	669(14.35)	523(13.08)	2.00	0.03

부천 FC 1995는 총 669개의 파울을 기록했다. 이는 클래식과 챌린지를 통틀어 가장 많은 파울 수다. 경기 당 경고가 가장 많은 팀은 강원 FC다. 한 경기 평균 2.23장의 경고를 받았다. 서울 이랜드 FC와 안양FC, 그리고 충주 험멜은 시즌 중 단 한 명도 퇴장을 당하지 않았다.

실제 경기 시간(APT)이 가장 긴 팀은 경남FC(62.4분)다. 경남은 경기 당 파울 수가 12.4개로 챌린지 전체를 통틀어 두 번째로 적었다. 경기 당 파울 수가 가장 적은 충주 험멜(12.2개) 역시 APT가 세 번째로 길었다(61.7분). 반면 경기 당 파울이 많은 팀일수록 APT는 짧았다.

파울 - APT 상관 관계



04 PAUSE & APT DATA

〈 경기당 평균 APT 〉

경기 당 실제 경기 시간(APT) 62분23초를 기록한 경남FC는 홈(62분46초)과 원정(62분03초) APT가 모두 62분을 넘은 유일한 팀이다. 볼 아웃 지연 시간(20분08초)과 파울 지연 시간(11분53초) 등 대부분 지연 시간이 짧았던 덕이다. 특히 부상 지연 시간은 경기 당 1분31초로 제일 짧다. 안산 무궁화 FC는 볼 아웃 지연 시간이 챌린지에서 유일하게 10분대(19분47초)를 기록한 팀이다. 볼이 아웃 되면 가장 신속하게 경기를 재개한 팀이었던 셈이다. 그 다음은 20분07초만 소비한 대전 시티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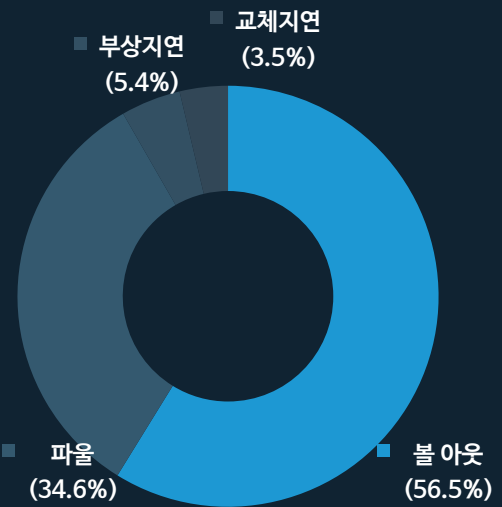
챌린지	전체	홈	원정	승	패	무
경남	62분23초	62분46초	62분03초	62분05초	63분46초	59분41초
대전	61분46초	61분49초	61분43초	63분10초	61분06초	60분43초
충주	61분40초	62분07초	61분11초	63분15초	61분55초	59분32초
안산	61분31초	61분56초	61분04초	62분09초	61분21초	59분53초
고양	61분10초	62분40초	59분38초	58분40초	62분14초	58분53초
부산	60분44초	59분26초	62분02초	61분34초	59분59초	59분59초
서울E	59분07초	59분46초	58분25초	60분41초	57분34초	58분22초
부천	58분34초	59분38초	57분33초	58분33초	57분46초	59분35초
대구	58분23초	58분10초	58분38초	59분36초	59분50초	55분49초
안양	57분58초	56분06초	59분56초	58분15초	58분24초	57분09초
강원	57분31초	56분27초	58분29초	57분17초	57분39초	57분49초
리그평균	60분04초	60분05초	60분04초	60분29초	60분08초	58분52초

〈 경기당 경기 지연 데이터 〉

챌린지	전체 경기시간	볼 아웃 지연	파울 지연	부상 지연	교체 지연
부천	97분46초	21분23초	14분28초	02분14초	01분05초
서울E	97분40초	21분42초	12분57초	02분31초	01분19초
대구	97분37초	20분53초	14분58초	01분57초	01분21초
강원	97분22초	21분52초	14분23초	02분05초	01분26초
부산	97분20초	21분08초	12분25초	01분44초	01분14초
대전	97분15초	20분07초	11분51초	02분08초	01분19초
경남	97분13초	20분08초	11분53초	01분31초	01분15초
안양	97분11초	22분14초	13분24초	02분19초	01분11초
충주	97분02초	20분46초	11분09초	01분55초	01분28초
안산	96분46초	19분47초	12분16초	01분50초	01분17초
고양	96분40초	20분41초	11분35초	01분50초	01분20초
리그평균	96분16초	20분58초	12분51초	02분00초	01분17초

* 전체경기시간: 전후반 추가 시간을 포함한 경기시간

〈 경기 지연 사유 비율 〉



06

K LEAGUE in the World

Statistics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이하 K리그)에서 수집된 주요 기록들을 해외 리그들과 비교했다. 이웃 일본 J리그와 유럽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독일 분데스리가와 비교해 어떤 특징들이 발견됐는지 살펴보았다. 비교는 슈팅을 비롯해 패스·드리블·태클·파울 등 다섯 개 항목에서 실시했다. 리그마다 총 경기 수가 다르므로 경기당 평균치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대상 경기는 클래식과 J리그는 2016시즌,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는 2015-2016시즌으로 했다.

K리그, 세 개 부문에서 우위

조사한 5개 항목 16개 부문 중 전체 슈팅 수와 자기 지역 내 태클, 그리고 자기 지역 내 파울 수는 리그별 전체 경기 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으로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세 가지 부문을 제외한 13개 부문 중 K리그가 상대적 우위를 보인 것은 페널티 지역 외 슈팅, 경기 당 슈팅, 태클 성공률 등 총 3개 부문이었다. 먼저 경기 당 페널티 지역 외 슈팅은 12개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 우위를 보인 3개 부문 중에서 K리그의 경기 당 9.4개로 가장 낮은 분데스리가와 비교하면 경기당 2.6개 많다.

경기 당 전체 슈팅도 25.2개로 가장 많았다. J리그는 24개,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는 각각 24.6개와 23.3개를 기록했다. 태클 성공률도 K리그가 57.3%로 가장 높았다. J리그가 56.5%로 뒤를 이었고, 분데스리가는 53.2%, 프리미어리그는 51%를 기록했다. 슈팅이 많은 이유는 페널티 지역 외 슈팅 숫자가 많아서다. 즉 골문과 거리가 먼 지역이라도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많이 시도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반면 세밀함과 정교함이 필요한 페널티 박스 내에서 슈팅 숫자는 가장 낮았다(경기 당 13.2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수치로 평가한 리그별 특징

다섯 개 항목을 종합하면 이렇다. K리그는 슈팅을 많이 때리고 패스와 드리블 수준은 보통이며, 파울 숫자와 경기 당 경고나 퇴장 발생이 적은 리그다. 분데스리가는 슈팅 숫자는 다소 부족하지만 전체 패스 성공률과 키 패스 성공률이 높으며, 태클이 많아 파울과 경고도 많이 발생하는 리그다. 프리미어리그는 전반적으로 슈팅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며, 드리블로 대표되는 개인 전술이 성행하는 리그다. 마지막으로 J리그는 슈팅 숫자는 적지만 키 패스 중심의 부분 전술이 자주 쓰이고, 경기 당 파울 숫자에 비해 퇴장이 좀 많은 리그다. 수치로 본 네 리그의 특징과 차이점이다.

	K LEAGUE CLASSIC	BUNDESLIGA	Premier League	J LEAGUE
득점 당 슈팅	9.0	9.5	9.0	8.5
페널티 지역 내 슈팅	13.2	13.9	14.0	13.6
페널티 지역 외 슈팅	12.0	9.4	10.6	10.2
경기 당 슈팅	25.2	23.3	24.6	24.0
전체 패스 성공률	80.4%	83.0%	80.5%	80.2%
키 패스 성공률	48.8%	50.3%	47.6%	53.8%
경기 당 드리블	55.3	61.2	59.0	48.1
드리블 성공률	54.2%	57.4%	60.6%	56.1%
경기 당 태클	70.2	75.1	73.0	62.1
태클 성공률	57.3%	53.2%	51.0%	56.5%
경기 당 파울	24.8	28.8	25.9	21.1
경기당 파울(자기지역)	12.25	13.50	10.38	10.60
경기 당 경고	2.68	3.81	3.59	3.12
경기 당 퇴장	0.10	0.13	0.17	0.16

한국 K리그 클래식 (2016) - 228경기, 독일 분데스리가(2015-2016)-306경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2015-2016)-380경기, 일본 J1(2016)-306경기

경고와 퇴장, K리그 가장 적었다

K리그는 경기 당 24.8개의 파울이 나왔다. 21.1개의 파울이 나온 J리그 다음으로 적다. 가장 많은 파울이 나온 곳은 분데스리가로 한 경기에서 28.8개의 파울이 생산됐다. 프리미어리그는 25.9개로 K리그와 비슷하다. 경기 당 경고도 분데스리가가 가장 많았다. 분데스리가는 한 경기에서 4개에 육박하는 경고(3.81개)가 나왔다. 뒤를 이어서는 3.59개를 기록한 프리미어리그와 3.12개의 J리그가 차지했다. K리그는 가장 적은 2.68개의 경고가 나왔다. 경기 당 퇴장은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많았다. 한 경기에서 0.17명이 퇴장 당한 것으로 나왔고, K리그는 가장 적은 0.1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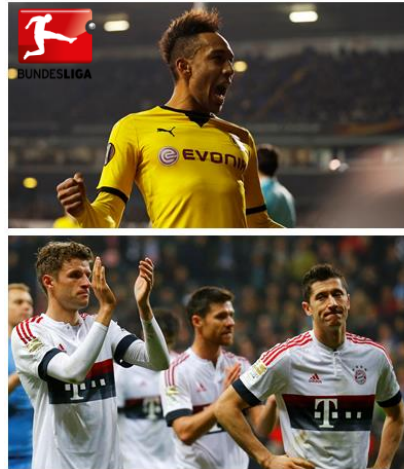
10경기를 치러야 한 명이 퇴장 당한 K리그는 전반적으로 파울과 관련한 수치가 대부분 적은 편이었다. 경기 당 파울 수는 네 리그 중 J리그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고, 경기 당 경고와 경기 당 퇴장은 모두 최소였다. 반면 J리그는 경기 당 파울 수가 가장 적었던 것이 비해 경기 당 퇴장 수는 두 번째로 높게(0.16명) 나왔다. 분데스리가는 경기 당 파울 숫자와 경고 숫자 모두 네 리그 중 가장 높았다.

패스는 보통, 드리블은 낮음

K리그의 패스 성공률은 보통 수준이다. 그러나 드리블 성공률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먼저 K리그의 전체 패스 성공률은 80.4%다. 80.5%를 기록한 프리미어리그와 비슷한 수준이다. 가장 높은 성공률은 분데스리가로 83.0%를 기록했으며, J리그도 K리그와 비슷한 수준인 80.2%의 성공률을 보였다. 키 패스 성공률에선 K리그가 3위다. 48.8%로 47.6%를 기록한 프리미어리그 보다 조금 높다.

키 패스 성공률이 가장 높은 곳은 J리그로 53.8%를 기록했다. J리그는 K리그보다 키 패스 성공률에서 5%나 높았다. 경기 당 드리블 횟수에서 K리그는 세 번째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곳은 분데스리가로 한 경기에서 61.2회 드리블이 나왔고, 프리미어리그가 59회를 기록했다. K리그는 55.3회, J리그는 48.1회로 가장 낮았다. 드리블 성공률은 K리그가 가장 낮았다. 54.2%다. 가장 성공률이 높은 프리미어리그와 비교하면 6.4%나 차이가 난다. 일본에 비해서도 1.9% 적었다.

경기 당 드리블 횟수와 키 패스 성공률을 함께 보면 K리그와 J리그의 차이가 나타난다. K리그는 키 패스 성공률이 낮은 편이었는데 비해 J리그는 가장 높았다. 반면 경기 당 드리블 횟수는 J리그가 가장 낮았다. 이는 J리그가 드리블을 통한 개인 전술보다는 키 패스를 앞세운 부분 전술을 더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K리그는 경기 당 드리블 횟수가 리그 전체 평균 15회였는데 키 패스는 12.2회였다. 전반적으로 키 패스보다는 드리블에 의한 공격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01 CLASSIC Clubs

02 CHALLENGE Clu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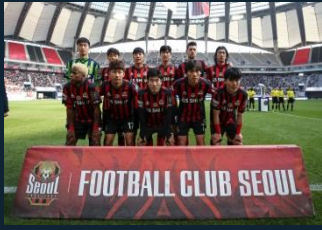




FC 서울

창단: 1983

우승: K리그 5회(1985, 1990, 2000, 2010, 2012)
K리그 클래식 1회(2016), 리그컵 2회(2006, 2010)
FA컵 2회(1998, 2015), 슈퍼컵 1회(2001)



감독 : 황선홍

재임기간:
16.06.27 ~ 현재
성적:
22경기 12승 4무 6패



SQUAD

경기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골키퍼

1	유현	18	1,693	0	0	229
31	이상훈	21	2,002	0	0	214

수비수

3	정인환	7	683	0	0	207
4	김동우	13	1,146	0	0	234
7	김치우	26	1,964	0	3	225
20	김원근	0	0	0	0	0
		(8)	(614)	(1)	(0)	(140)
23	심우연	9	94	0	0	107
26	김남춘	18	1,655	0	1	236
55	곽태휘	11	929	0	0	221
88	이규로	8	433	0	0	195
		(11)	(954)	(2)	(0)	(175)

미드필더

2	다카하기	32	2,489	1	4	219
5	오스마르	37	3,521	4	3	245
6	주세종	30	2,535	4	1	226
13	고요한	27	2,401	2	5	239
14	조찬호	11	520	0	1	197
15	김원식	20	1,603	0	0	213
22	박용우	19	1,598	1	0	225
25	이석현	20	1,137	2	0	210
27	고광민	33	3,057	1	2	229
29	이상협	3	110	0	0	218
35	임민혁	3	147	0	0	194
37	윤승원	1	36	0	0	203

공격수

9	데안	36	2,781	13	2	238
10	박주영	34	2,194	10	1	202
11	아드리아노	30	2,290	17	6	216
16	심제혁	5	99	0	1	148
17	윤일록	26	2,072	6	7	225
19	윤주태	17	602	3	2	168
34	김정환	1	33	0	0	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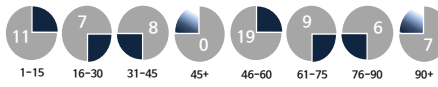
* 1경기 이상 출전선수 기준

* 괄호=이전소속팀 기록, 파란색=챌린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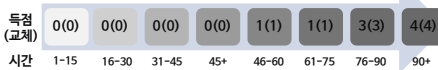
TEAM STATISTICS



시간대별 득점



교체선수 득점



TOP 3

득점	시즌	경기당
아드리아노	17	0.57
데안	13	0.36
박주영	10	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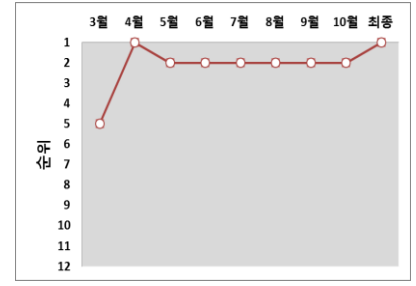
슈팅	시즌	유효슈팅 (%)
데안	117	49(42%)
아드리아노	75	40(53%)
박주영	50	22(44%)

도움	시즌	경기당
윤일록	7	0.27
아드리아노	6	0.20
고요한	5	0.19

패스	시즌	경기당	성공률
오스마르	2,528	66	85%
주세종	1,958	70	83%
고광민	1,723	51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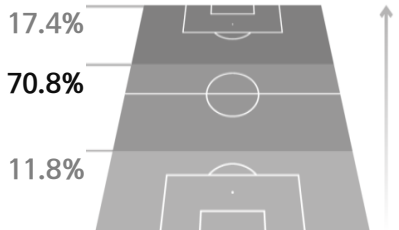
경합	시즌	경기당	성공률
오스마르	707	18	66%
데안	675	22	34%
아드리아노	503	20	29%

STA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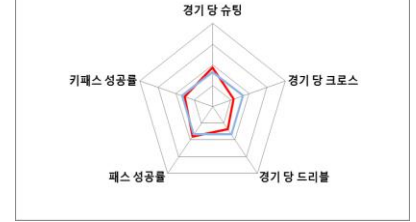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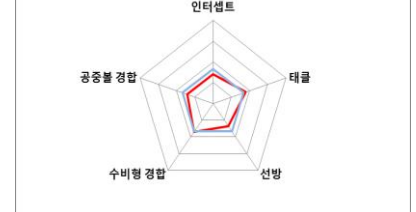
볼 점유율



공격



수비



OVERALL

공격에서는 데안과 아드리아노, 허리와 수비에서는 오스마르의 활약이 가장 빛났다. 특히 오스마르는 총 2,528회의 패스를 시도해 서울의 전체 패스(2만 1,849회) 중에서 11.6%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포지션별 볼 점유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곳은 미드필드 지역이었다. 미드필드 지역 볼 점유율이 70.8%나 되는데, 클래식 12개 팀 중 유일하게 70%를 넘었다. 서울의 강점은 데안-아드리아노가 포진한 공격과 오스마르가 버티는 허리였다.



전북 현대 모터스

창단: 1994

우승: K리그 2회 (2009, 2011), K리그 클래식 2회 (2014, 2015)
FA컵 3회 (2000, 2003, 2005), 슈퍼컵 1회 (2004)
AFC 챔피언스리그 2회 (2006, 2016)



감독 : 최강희

재임기간: 13.06.27 ~ 현재 (2005~2011)
성적: 369경기 181승 98무 90패



SQUAD

경기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골키퍼

1	권순태	35	3,411	0	0	222
41	황병근	3	288	0	0	230

수비수

3	김형일	13	1,175	0	0	218
6	최재수	12	930	0	1	205
15	임종은	28	2,544	0	0	206
16	조성환	14	1,312	1	0	226
19	박원재	18	1,586	0	2	233
23	최규백	15	1,357	1	0	195
25	최철순	30	2,888	1	4	230
26	최동근	1	101	0	0	196
27	김창수	8	765	0	1	219
30	김영찬	12	860	0	0	187
32	이주용	7	605	0	0	196

미드필더

2	이우혁	2	198	0	0	204
4	신형민	10	912	1	0	232
		(25)	(2,355)	(0)	(0)	(186)
5	이호	11	929	0	0	230
7	한교원	19	1,424	4	0	208
8	정혁	4	389	0	1	232
		(23)	(1,692)	(2)	(2)	(169)
10	레오나르도	34	2,220	12	6	238
13	김보경	29	2,727	4	7	232
17	이재성	32	3,004	3	11	244
22	서상민	8	331	0	0	199
34	장운호	11	846	1	2	215
88	이승기	4	162	0	1	211
		(15)	(1,097)	(1)	(1)	

공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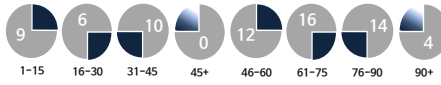
9	이종호	22	1,310	5	3	195
11	로페즈	35	2,540	13	6	235
18	고무열	22	1,018	1	2	191
20	이동국	27	1,714	12	0	221
81	에두	11	535	1	1	186
99	김신욱	33	1,644	7	2	220

* 1경기 이상 출전선수 기준
* 괄호=이전소속팀 기록, 파란색=챌린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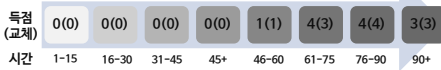
TEAM STATISTICS



시간대별 득점



교체선수 득점



TOP 3

득점	시즌	경기당
로페즈	13	0.37
이동국	12	0.44
레오나르도	12	0.35

슈팅	시즌	유효슈팅 (%)
레오나르도	91	28(31%)
로페즈	90	32(36%)
이동국	87	43(49%)

도움	시즌	경기당
이재성	11	0.34
김보경	7	0.24
레오나르도	6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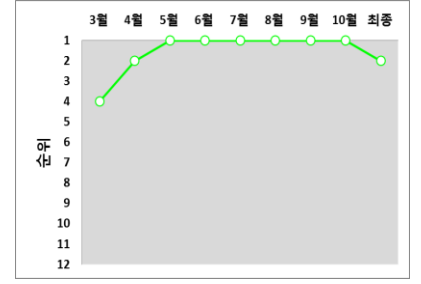
패스	시즌	경기당	성공률
이재성	1,848	55	83%
김보경	1,491	49	86%
최철순	1,416	44	81%

경합	시즌	경기당	성공률
로페즈	785	28	43%
이재성	687	21	51%
김신욱	565	31	50%

OVER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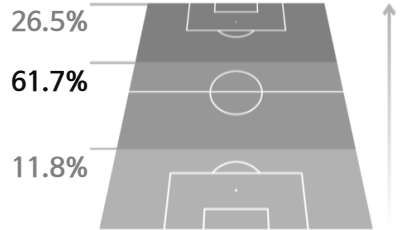
기록만 봐도 '탁공'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 당 슈팅과 경기 당 크로스 등 대부분 공격 지표가 클래식 평균보다 크게 앞섰다. 공격 지역 볼 점유율에서도 클래식 12개 팀 중 가장 높은 26.5%를 기록했다. 공격 역할 분담도 확실했다. 로페즈·이동국·레오나르도는 골을 넣었고 (합계 37득점), 이재성·김보경(합계 18도움)은 골을 도왔다. 특히 이재성과 김보경은 총 3,339회의 패스를 시도했는데, 팀 전체 패스(1만 7,426회)의 20%에 육박(19.2%)했다.

STA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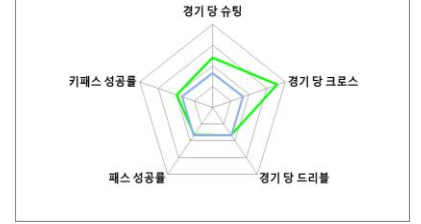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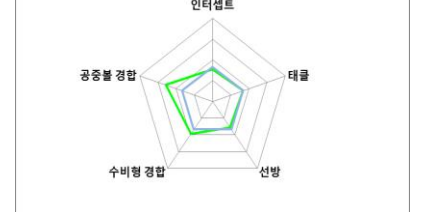
볼 점유율



공격



수비





감독 : 김인수

재임기간:
 16.10.15 ~ 현재
 성적:
 5경기 3승 1무 1패



SQUAD

경기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골키퍼

1	김호준	28	2,641	0	0	209
21	김경민	10	934	0	0	204
23	전수현	1	95	0	0	230

수비수

3	김상원	16	1,163	0	1	200
4	오반석	16	1,437	1	0	208
5	권한진	37	3,244	5	1	212
13	정운	32	2,979	1	5	214
15	백동규	21	1,516	0	1	186
18	배재우	16	961	0	1	163
19	이우진	3	89	1	0	145
20	이광선	34	3,192	5	1	224
25	강준우	1	9	0	0	0
26	곽해성	8	588	2	1	203
		(9)	(704)	(0)	(1)	

미드필더

6	김선우	5	206	0	0	152
7	권순형	37	3,348	5	8	229
14	이창민	21	1,409	2	3	206
17	안현범	28	2,131	8	4	217
24	문상운	22	1,065	3	2	169
28	좌준협	1	64	0	0	249
37	송진형	28	2,545	7	4	227
77	김재성	8	255	0	1	171
		(17)	(1,549)	(1)	(1)	(160)

공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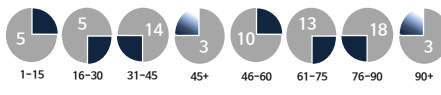
8	황일수	0	0	0	0	0
		(21)	(1,421)	(2)	(4)	(196)
9	완델손	14	968	4	3	206
		(18)	(1,544)	(5)	(2)	(188)
10	마르셀로	37	3,018	11	9	220
11	김호남	31	1,443	8	3	195
16	정영총	13	718	1	0	186
22	이근호	35	2,767	5	6	215
30	배일환	0	0	0	0	0
		(4)	(366)	(0)	(0)	(241)
89	헤난	4	99	0	0	88

* 1경기 이상 출전선수 기준
 * 괄호=이전소속팀 기록, 파란색=챌린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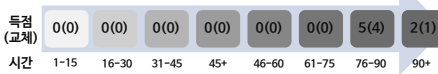
TEAM STATISTICS



시간대별 득점



교체선수 득점



TOP 3

득점	시즌	경기당
마르셀로	11	0.30
안현범	8	0.29
김호남	8	0.26

슈팅	시즌	유효슈팅 (%)
마르셀로	120	44(37%)
송진형	52	20(38%)
이근호	51	19(37%)

도움	시즌	경기당
마르셀로	9	0.24
권순형	8	0.22
이근호	6	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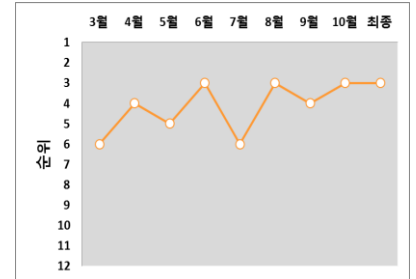
패스	시즌	경기당	성공률
권순형	2,526	68	85%
정운	1,658	50	82%
이광선	1,635	46	80%

경합	시즌	경기당	성공률
이근호	781	25	34%
이광선	735	21	70%
마르셀로	565	17	40%

OVERALL

특정 선수 의존도가 높지 않았다. 공격수 마르셀로부터 골키퍼 김호준까지 고르게 활약했다. 중앙 수비수 권한진이 5골을 넣은 것을 시작으로 8명이나 5골 이상을 기록했다. 범업도 잘 이뤄졌다. 마르셀로(11득점)와 김호남(8득점)은 골을 넣는 데 집중했고, 권순형(8도움)과 이근호(6도움)는 많은 도움을 기록했다. 정운과 이광선은 각각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패스(1,658회)와 경합(735회)을 했다. 90분 이상 출전한 선수도 18명이나 됐다.

STA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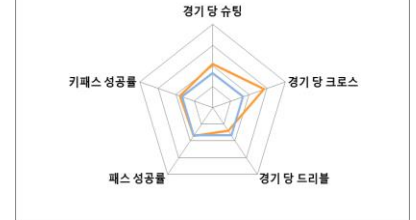


AVERAGES

볼 점유율



공격



수비



울산 현대

창단: 1983
 우승: K리그 2회 (1996, 2005)
 리그컵 5회 (1986, 1995, 1998, 2007, 2011)
 A3 챔피언스컵 1회 (2006), AFC 챔피언스리그 1회 (2012)



감독 : 윤정환
 재임기간: 15.01.01 ~ 16.12.31
 성적: 76경기 27승 26무 23패



SQUAD

경기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골키퍼

1	김용대	24	2,308	0	0	211
21	정산	11	1,066	0	1	213
31	장대희	3	296	0	0	183

수비수

2	정동호	29	2,514	0	2	219
3	정승현	19	1,597	1	0	201
11	김태환	36	3,276	4	3	209
13	이명재	5	345	0	1	203
15	이재성	25	2,379	2	0	221
22	김치곤	13	937	2	0	204
29	셀리오	10	742	1	0	215
33	이기제	35	3,137	0	2	209
34	김영삼	1	7	0	0	0
75	강민수	26	1,960	0	0	191
99	이용	1	96	0	1	223
		(23)	(2,057)	(2)	(2)	

미드필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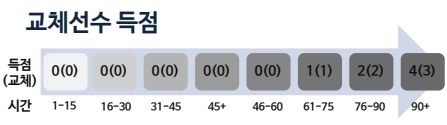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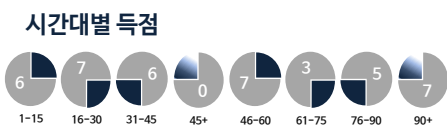
4	구본상	14	1,028	0	0	192
5	이창용	16	594	0	0	166
6	마스다	32	2,711	0	1	211
8	하성민	24	1,601	2	0	196
14	서명원	10	213	0	0	114
16	김건웅	12	584	0	0	175
17	정재용	10	697	0	1	185
		(16)	(1,344)	(4)	(0)	(177)
20	한상운	22	1,768	1	4	207
44	코바	36	2,727	7	9	217
88	김성환	6	574	0	0	217
		(23)	(1,980)	(7)	(1)	

공격수

7	김인성	16	598	1	0	192
9	박성호	8	452	1	0	192
10	멘디	18	1,481	6	1	228
18	이정협	30	2,047	4	1	198
19	김승준	30	2,024	8	2	194

* 1경기 이상 출전선수 기준
 * 괄호=이전소속팀 기록, 파란색=챌린지 기록

TEAM STATISTICS



TOP 3

득점	시즌	경기당
김승준	8	0.27
코바	7	0.19
멘디	6	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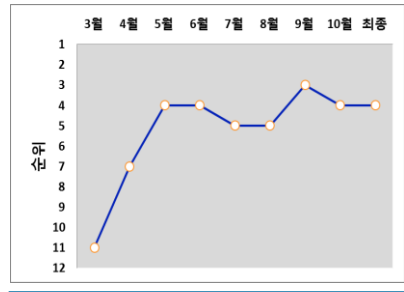
슈팅	시즌	유효슈팅 (%)
코바	115	47(41%)
이정협	43	15(35%)
멘디	37	14(38%)

도움	시즌	경기당
코바	9	0.25
한상운	4	0.18
김태환	3	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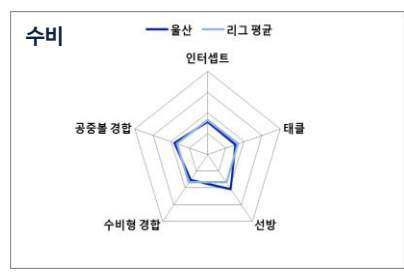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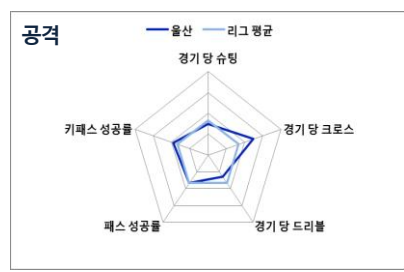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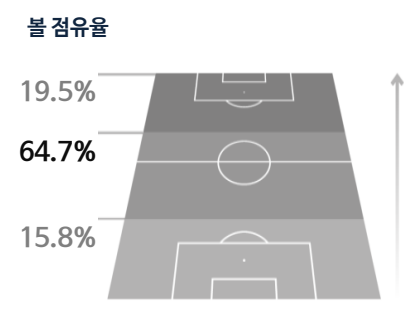
패스	시즌	경기당	성공률
이기제	1,729	50	82%
마스다	1,571	52	85%
정동호	1,560	54	81%

경합	시즌	경기당	성공률
멘디	566	34	43%
코바	495	16	38%
김태환	494	14	44%

STANDINGS



AVERAGES



OVERALL

후반전보다는 전반전에 골을 많이 넣었다. 리그 평균과 반대다. 전반전엔 19골을 넣었지만, 후반전엔 15골을 넣는 데 그쳤다. 단 후반 추가 시간에 7골이나 터뜨려 경기 종료 직전 집중력이 강했음이 드러났다. 이는 FC서울과 똑같은 수치로 클래식 전체에서 가장 많은 추가 시간 골 기록이다. 선제골을 넣은 16경기에선 12승 2무 2패를 기록해 좋은 성적을 남겼다. 반면 선제 실점을 허용한 16경기에서는 2승 4무 10패를 기록해 뒤집는 힘은 약했다.



전남 드래곤즈

창단: 1994
우승: FA컵 3회 (1997, 2006, 2007)



감독 : 송경섭

재임기간:
16.10.15 ~ 현재
성적:
5경기 1승 1무 3패



SQUAD

경기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골키퍼

1	김민식	7	679	0	0	209
21	이호승	28	2,694	0	1	210
27	한유성	3	213	0	0	224
29	김교빈	1 (1)	96 (96)	0	0	190

수비수

2	최효진	31	2,992	2	4	216
3	이슬찬	14	833	0	1	162
4	홍진기	9	526	0	0	189
5	고태원	26	2,301	0	1	206
13	현영민	29	2,436	0	1	207
15	방대중	11	949	0	0	204
17	이지남	30	2,813	0	0	210
19	이지민	20	1,318	1	0	195
24	김경재	7	352	0	0	144
28	토미	21	1,938	0	2	221

미드필더

8	유고비치	33	2,776	5	3	207
14	김영욱	33	2,861	2	0	217
16	한찬희	23	1,207	1	1	188
20	양준아	17	1,349	2	0	184
22	전우영	3	200	0	0	173
25	한지원	5	118	0	0	42
26	오영준	1	9	0	0	171
86	송창호	3	92	0	0	137

공격수

7	마우링요	7	435	0	0	216
9	조석재	9	424	1	0	176
10	자일	20	1,660	10	6	227
11	안용우	32	2,240	4	0	193
18	배천석	23	1,236	3	3	161
23	허용준	28	1,483	4	3	194
88	박기동	5	323	0	0	216
		(25)	(2,020)	(9)	(8)	
89	박준태	4	133	0	0	196
		(24)	(1,686)	(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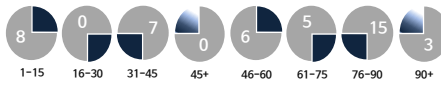
* 1경기 이상 출전선수 기준

* 괄호=이전소속팀 기록, 파란색=챌린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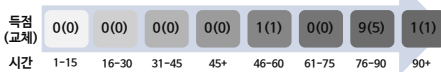
TEAM STATISTICS



시간대별 득점



교체선수 득점



TOP 3

득점	시즌	경기당
자일	10	0.50
오르샤	5	0.31
유고비치	5	0.15

슈팅	시즌	유효슈팅 (%)
자일	75	36(48%)
오르샤	42	10(24%)
유고비치	40	19(48%)

도움	시즌	경기당
자일	6	0.30
오르샤	4	0.25
최효진	4	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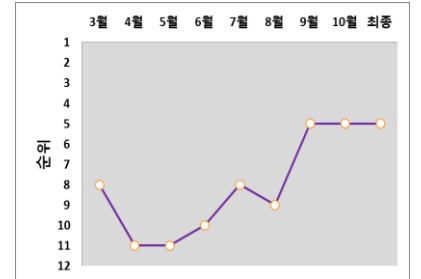
패스	시즌	경기당	성공률
김영욱	1,639	50	83%
현영민	1,576	59	84%
최효진	1,516	46	80%

경합	시즌	경기당	성공률
최효진	558	17	54%
김영욱	548	17	55%
안용우	465	19	40%

OVER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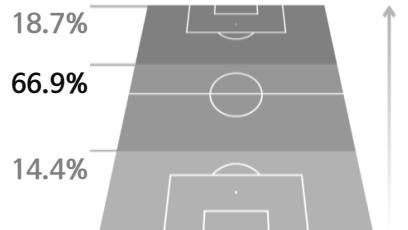
후반전보다는 전반전에 골을 많이 넣었다. 리그 평균과 반대다. 전반전엔 19골을 넣었지만, 후반전엔 15골을 넣는 데 그쳤다. 단 후반 추가 시간에 7골이나 터뜨려 경기 종료 직전 집중력이 강했음이 드러났다. 이는 FC서울과 똑같은 수치로 클래식 전체에서 가장 많은 추가 시간 골 기록이다. 선제골을 넣은 16경기에선 12승 2무 2패를 기록해 좋은 성적을 남겼다. 반면 선제 실점을 허용한 16경기에서는 2승 4무 10패를 기록해 뒤집는 힘은 약했다.

STA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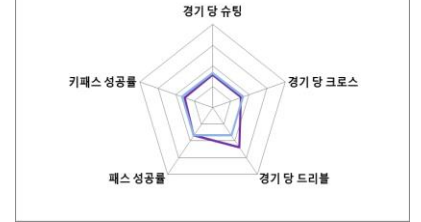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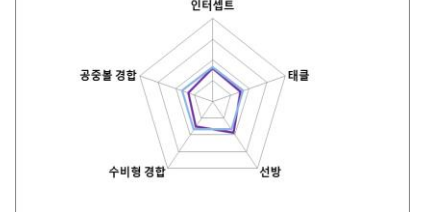
볼 점유율



공격



수비





상주 상무

창단: 2011
우승: K리그 챌린지 2회(2013, 2015)



감독 : 조진호

재임기간:
16.01.01 ~ 16.12.31
성적:
38경기 12승 7무 19패



SQUAD

경기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골키퍼

31	오승훈	18	1,731	0	0	205
41	제중현	6	580	0	0	185

수비수

3	이용희	23	2,197	2	0	210
5	이경렬	8	610	1	0	213
22	권진영	6	306	0	0	174
24	정준연	9	593	0	0	197
25	김오규	24	2,177	0	0	210
28	윤준성	10	925	0	0	208
33	이재명	9	619	0	0	220
34	김창훈	1	37	0	0	163
39	박준강	9	831	0	0	221
40	윤영선	6	577	0	0	208

미드필더

16	김성준	36	2,933	3	0	209
23	임성택	4	102	0	0	173
29	김성주	11	764	0	1	214
30	황순민	5	170	0	0	182
32	조지훈	10	446	0	0	199
36	박수창	14	918	0	0	195
37	신진호	23	1,791	0	6	229

공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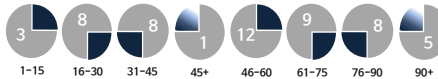
17	윤동민	6	369	1	0	200
26	신영준	16	772	2	0	191
27	조영철	27	1,536	3	0	182
35	박희성	15	1,058	3	0	195
38	유준수	11	614	1	0	181

* 1경기 이상 출전선수 기준
* 괄호=이전소속팀 기록, 파란색=챌린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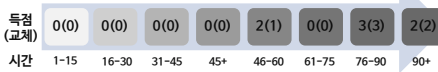
TEAM STATISTICS



시간대별 득점



교체선수 득점



TOP 3

득점	시즌	경기당
박기동	9	0.36
박준태	8	0.33
이상협	8	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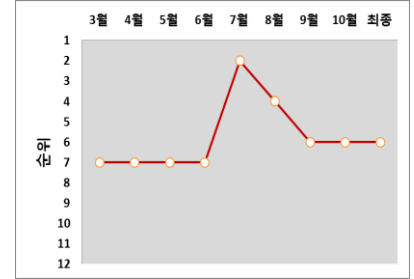
슈팅	시즌	유효슈팅(%)
박기동	60	25(42%)
박준태	45	19(42%)
신진호	37	15(41%)

도움	시즌	경기당
박기동	8	0.32
신진호	6	0.26
황일수	4	0.19

패스	시즌	경기당	성공률
김성준	2,025	63	85%
이용	1,615	71	79%
신진호	1,593	80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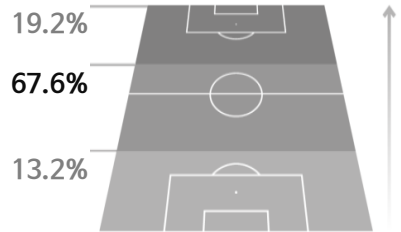
경합	시즌	경기당	성공률
박기동	689	27	37%
김성준	569	18	47%
김성환	455	16	53%

STA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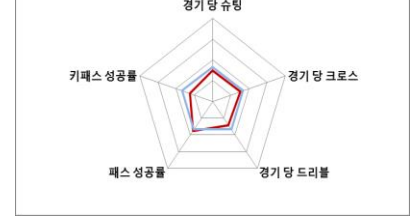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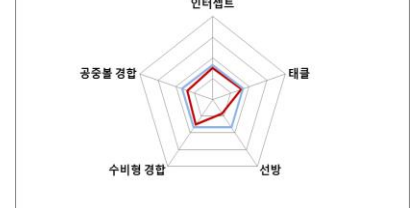
볼 점유율



공격



수비



OVERALL

선택과 집중의 묘를 잘 발휘했다. 공격 지표와 수비 지표 대부분은 리그 평균에 못 미친다. 공격 지표 중에서는 패스 성공률이 리그 평균과 비슷할 뿐이고, 수비 지표에서는 태클 정도가 우위에 있다. 그 외엔 대부분 리그 평균에 못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위를 기록해 그룹 A(상위 스플릿)에 진입할 수 있었던 건, 꼭 잡아야 할 경기에서 집중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전반전엔 20골을 터트린 데 비해, 후반전에 34골이나 터트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

창단: 1995

우승: K리그 4회(1998, 1999, 2004, 2008)

리그컵 6회(1999 전기, 1999 후기, 2000, 2001, 2005, 2008)

FA컵 4회(2002, 2009, 2010, 2016), 슈퍼컵 3회(1999, 2000, 2005)

AFC 챔피언스리그 2회(2001, 2002), 아시안 슈퍼컵 2회(2001, 2002)



감독 : 서정원

재임기간:

12.12.12 ~ 현재

성적:

152경기 63승 46무 43패



SQUAD

경기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골키퍼

1	노동건	22	2,056	0	0	211
21	양형모	17	1,636	0	0	226

수비수

3	양상민	16	1,183	0	0	208
6	연제민	10	731	1	0	182
8	조원희	26	2,176	1	0	226
15	구자룡	32	3,074	1	0	227
29	곽희주	10	543	1	0	222
30	신세계	22	1,993	0	1	224
33	홍철	12	958	0	3	222
34	곽광선	21	1,765	1	0	228
39	민상기	8	632	0	0	186
40	이정수	27	2,322	3	0	236
77	장호익	16	1,514	0	0	237

미드필더

4	이용래	13	1,013	0	0	223
5	박현범	8	554	0	0	208
7	이상호	29	2,208	4	2	212
10	산토스	33	2,665	12	3	220
12	고차원	11	757	0	1	192
16	이종성	19	1,683	0	1	226
17	김중우	3	86	0	0	137
20	백지훈	18	1,011	0	1	219
22	권창훈	27	2,011	7	4	231
24	고승범	13	561	0	0	169
26	염기훈	34	2,784	4	15	244
66	오장은	7	491	1	0	224

공격수

9	조동건	24	1,178	4	1	211
13	김건희	20	1,084	1	3	201
14	카스텔렌	5	154	0	0	197
18	김종민	11	442	1	1	202
70	조나탄	14	1,165	10	2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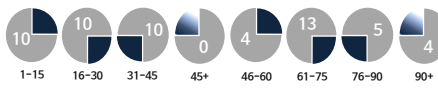
* 1경기 이상 출전선수 기준

* 괄호=이전소속팀 기록, 파란색=챌린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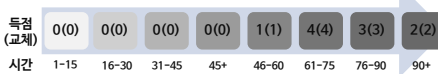
TEAM STATISTICS



시간대별 득점



교체선수 득점



TOP 3

득점	시즌	경기당
산토스	12	0.36
조나탄	10	0.71
권창훈	7	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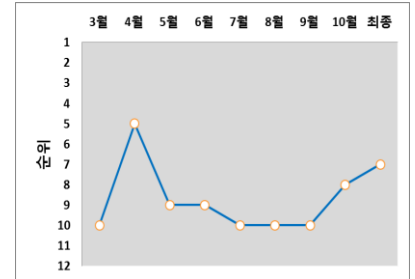
슈팅	시즌	유효슈팅(%)
산토스	82	33(40%)
권창훈	67	31(46%)
염기훈	61	24(39%)

도움	시즌	경기당
염기훈	15	0.44
권창훈	4	0.15
홍철	3	0.25

패스	시즌	경기당	성공률
염기훈	1,565	51	77%
구자룡	1,381	41	84%
이정수	1,260	50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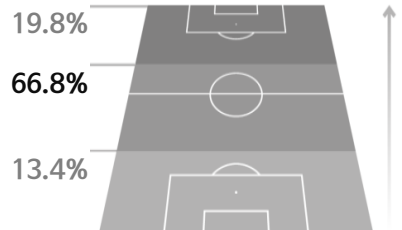
경합	시즌	경기당	성공률
염기훈	754	21	46%
구자룡	586	17	68%
산토스	493	17	34%

STA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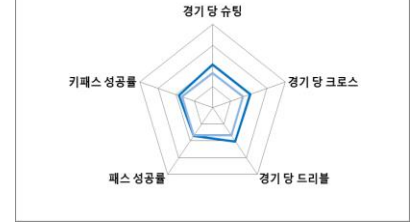


AVERAGES

볼 점유율



공격



수비



OVERALL

염기훈과 권창훈이 팀의 주축이었다. 염기훈은 득점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부문에서 모두 TOP 3에 들었고, 권창훈은 패스와 경합을 제외한 3개 부문에서 TOP 3에 들었다. 특히 염기훈은 도움(15개), 패스(1,565회), 경합(754회) 부문에서 모두 팀 내 1위에 등극하며 다시 한 번 에이스임을 입증했다. 산토스는 공격 부문에서 제 몫을 해냈다. 득점(12골)과 슈팅(82개) 등 두 개 부문에서 팀 내 1위를 기록하며 이름값에 어울리는 성적을 기록했다.



감독 : 남기일

재임기간:
13.08.18 ~ 현재
성적:
132경기 46승 39무 47패



SQUAD

경기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골키퍼

1	최봉진	17	1,553	0	0	206
21	윤보상	22	2,099	0	0	211
31	황인재	1	42	0	0	249

수비수

2	정호정	28	2,596	0	1	208
3	김영빈	27	2,466	0	0	204
5	박동진	24	1,671	0	0	200
6	오도현	13	320	2	0	143
8	이도뜸	24	2,020	0	4	203
12	이민기	9	515	1	0	198
17	이종민	21	1,665	0	1	210
18	정동윤	29	2,131	0	0	205
25	홍준호	22	1,725	1	0	198

미드필더

7	여름	30	2,698	2	0	200
11	조성준	32	1,981	1	2	193
13	주현우	20	1,068	2	2	180
19	박선홍	1	11	0	0	179
20	김정현	7	387	1	0	191
22	조용태	10	482	0	1	166
23	김민혁	36	3,301	3	8	211
33	와다	5	239	0	0	154
34	본즈	15	1,402	0	0	222
40	이찬동	25	2,059	0	0	194

공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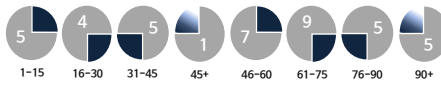
9	정조국	31	2,489	20	1	212
16	송승민	38	3,568	4	3	197
24	조주영	15	653	2	2	172
27	김진수	1	70	0	0	195
30	심광욱	4	144	0	0	174
32	김상욱	1	56	0	0	222

* 1경기 이상 출전선수 기준
* 괄호=이전소속팀 기록, 파란색=챌린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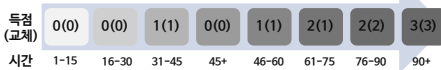
TEAM STATISTICS



시간대별 득점



교체선수 득점



TOP 3

득점	시즌	경기당
정조국	20	0.65
송승민	4	0.11
김민혁	3	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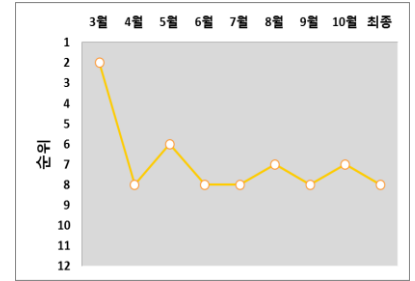
슈팅	시즌	유효슈팅(%)
정조국	105	45(43%)
송승민	72	22(31%)
김민혁	29	11(38%)

도움	시즌	경기당
김민혁	8	0.22
이도뜸	4	0.17
송승민	3	0.08

패스	시즌	경기당	성공률
여름	1,295	43	79%
김민혁	1,273	35	80%
정동윤	1,093	46	78%

경합	시즌	경기당	성공률
송승민	1,184	30	37%
김민혁	838	23	42%
조성준	522	24	40%

STANDINGS



AVERAGES

볼 점유율



공격



수비



OVERALL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훨씬 강했다. 전반전엔 추가 시간까지 더해 15골을 넣는 데 그쳤지만, 후반전엔 총 26골이나 뽑아냈다. 특히 후반 추가 시간에도 5골이나 넣으며, 경기 막판 집중력이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득점력의 중심엔 득점왕에 오른 정조국이 있다. 정조국은 31경기에 출전 2,489분을 뛰며 20골을 뽑아냈다. 경기 당 0.65골의 훌륭한 기록이다. 정조국 외 다른 선수들의 득점 가담은 부족했다. 송승민이 4골, 김민혁이 3골을 넣는 데 그쳤다.

창단: 1973

우승: K리그 4회 (1986, 1988, 1992, 2007), K리그 클래식 1회 (2013)
FA컵 4회 (1996, 2008, 2012, 2013), 리그컵 2회 (1993, 2009)
AFC 챔피언스리그 3회 (1997, 1998, 2009)



감독 : 최순호

재임기간:
16.10.01 ~ 현재 (2000~2004)
성적:
169경기 59승 49무 61패



SQUAD

경기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골키퍼

1	신화용	23	2,175	0	0	213
21	김진영	17	1,505	0	0	210

수비수

2	박선용	31	2,719	0	1	209
3	김광석	37	3,536	1	0	219
4	박준희	13	680	0	0	200
6	김준수	22	1,907	0	0	218
13	김원일	17	1,425	0	0	200
15	이재원	10	559	0	0	132
22	알리	10	786	1	0	216
24	배슬기	26	2,488	1	0	219
27	박선주	12	1,069	0	2	220
35	우찬양	2	179	0	0	198
46	신광훈	8	750	0	0	238
		(15)	(1,345)	(0)	(1)	(187)
47	박희철	0	0	0	0	0
		(1)	(57)	(0)	(0)	(199)

미드필더

5	무랄라	20	1,526	1	0	227
7	문창진	23	1,596	3	4	204
9	황지수	26	1,918	1	0	219
14	오창현	15	622	2	2	182
26	조수철	14	1,231	1	1	217
28	손준호	4	302	0	0	171
29	김동현	16	551	0	2	161

공격수

8	라자르	25	1,325	4	4	203
10	룰리나	18	1,032	2	1	193
11	심동운	36	2,944	10	1	213
12	이광혁	12	798	0	2	193
17	강상우	30	2,750	1	2	209
18	양동현	32	2,807	13	4	230
20	최호주	13	318	0	1	149
30	정원진	11	593	0	0	181
34	김중석	1	4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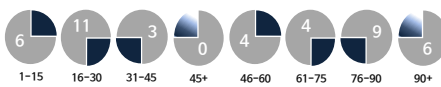
* 1경기 이상 출전선수 기준

* 괄호=이전소속팀 기록, 파란색=챌린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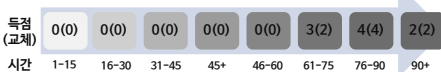
TEAM STATISTICS



시간대별 득점



교체선수 득점



TOP 3

득점	시즌	경기당
양동현	13	0.41
심동운	10	0.28
라자르	4	0.16

슈팅	시즌	유효슈팅 (%)
양동현	88	34(39%)
심동운	75	28(37%)
무랄라	38	8(21%)

도움	시즌	경기당
문창진	4	0.17
라자르	4	0.16
양동현	4	0.13

패스	시즌	경기당	성공률
김광석	1,668	43	85%
박선용	1,523	51	81%
강상우	1,300	43	79%

경합	시즌	경기당	성공률
양동현	699	23	40%
강상우	568	19	51%
심동운	503	15	38%

OVER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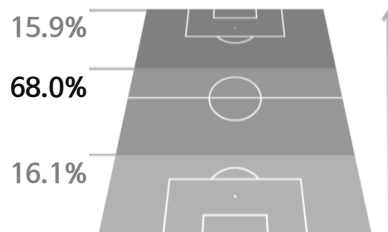
팀 컬러가 조금 바뀌었다. 부분 전술을 활용한 패스가 강점이었는데, 개인 전술을 앞세운 드리블이 많은 팀으로 약간 변화했다. 그 결과 경기 당 크로스(2.3회)는 아래서 두 번째, 경기 당 드리블(16회)은 위에서 세 번째로 나타났다. 부분 전술이 필요한 패스보다는 드리블 등 개인 전술이 많이 중용됐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선수 개인 기록에서는 득점(13골), 슈팅(88개), 경합(699회) 등 3개 부문에서 팀 내 1위를 기록한 양동현이 가장 빛났다.

STA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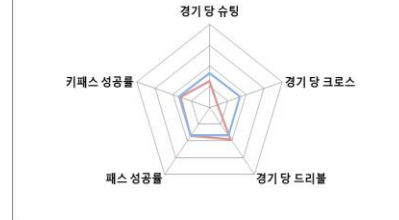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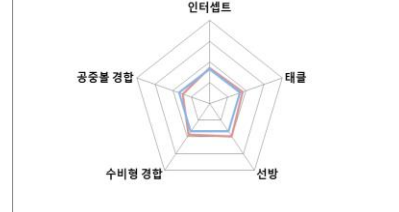
볼 점유율



공격



수비





감독 : 이기형
 재임기간:
 16.09.01 (감독대행)
 16.11.30 (정식선임) ~ 현재
 성적:
 10경기 6승 3무 1패



SQUAD

경기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골키퍼

1	조수혁	26	2,513	0	0	222
21	이태희	8	773	0	0	192
41	김다솔	3	293	0	0	191

수비수

3	김용환	28	2,385	3	2	212
4	김경민	9	581	0	0	221
15	김대중	16	958	1	0	206
16	이윤표	24	2,194	1	0	225
17	권완규	21	1,788	2	1	213
20	요니치	34	3,291	0	0	215
25	박대한	26	2,307	0	2	203
29	조병국	29	2,692	1	2	218
30	최중환	5 (11)	359 (700)	0 (0)	0 (0)	168
77	안재준	0 (8)	0 (621)	0 (0)	0 (149)	0

미드필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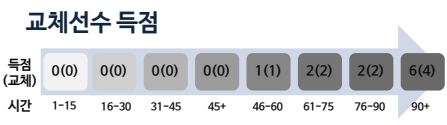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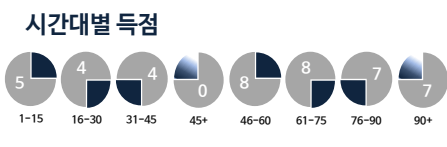
5	김태수	23	1,840	1	1	208
7	김도혁	33	2,774	3	2	216
8	김동석	10	818	0	0	202
13	이현성	9	267	0	0	171
14	윤상호	28	2,107	0	0	203
23	김세훈	1	47	0	0	191
44	배승진	4 (7)	327 (569)	0 (2)	0 (0)	238 (154)
60	쑤잉	4	264	0	0	213

공격수

6	이중권	1	79	0	0	195
9	송제현	14	638	3	1	169
10	케빈	33	2,924	9	10	226
11	진성욱	31	1,827	5	3	206
19	송시우	28	1,003	5	1	200
24	박세직	27	1,868	3	0	213
27	이진욱	2	28	0	0	177
36	김대경	16	920	1	1	188
37	박종진	8	364	0	0	149
88	벨코스키	24	1,696	4	2	197

* 1경기 이상 출전선수 기준
 * 괄호=이전소속팀 기록, 파란색=챌린지 기록

TEAM STATISTICS



TOP 3

득점	시즌	경기당
케빈	9	0.27
송시우	5	0.18
진성욱	5	0.16

슈팅	시즌	유효슈팅 (%)
케빈	127	53(42%)
김도혁	41	14(34%)
벨코스키	37	14(38%)

도움	시즌	경기당
케빈	10	0.30
진성욱	3	0.10
벨코스키	2	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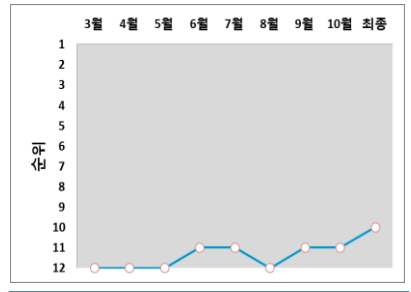
패스	시즌	경기당	성공률
김도혁	1,691	55	79%
요니치	1,601	44	83%
조병국	1,271	43	86%

경합	시즌	경기당	성공률
케빈	1,010	31	46%
진성욱	547	27	38%
김도혁	540	18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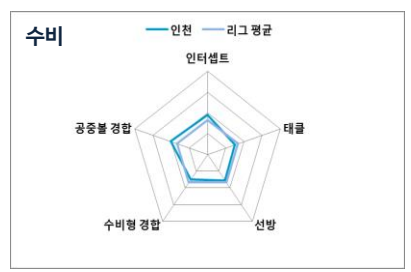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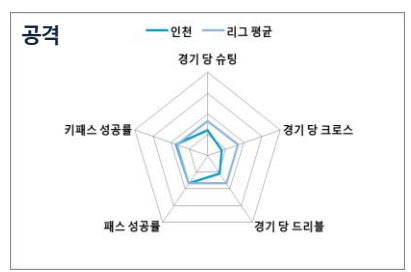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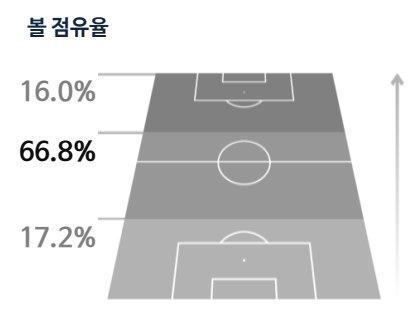
OVERALL

1년 내내 인천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선수는 단연 케빈이었다. 케빈은 팀 내에서 득점 1위 (9골), 슈팅 1위(127개), 도움 1위(10개), 경합 1위(1,010회) 등 5개 부문 중 4개 부문에서 수위를 차지했다. 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뛴 선수 역시 케빈(2,924분)이었다. 케빈 외에는 주로 후반에 교체 투입 돼 1,003분만 뛰고도 5골을 기록한 송시우, 패스 부문에서 팀 내 1위를 차지한 김도혁(1,691회), 노장임에도 2,692분을 뛴 조병국 등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STANDINGS



AVERAGES





성남 FC

창단: 1989

우승: K리그 7회(1993, 1994, 1995, 2001, 2002, 2003, 2006)

리그컵 3회(1992, 2002, 2004), FA컵 3회(1999, 2011, 2014)

AFC 챔피언스리그 2회(1995, 2010), 아시안 슈퍼컵 1회(1996)

A3 챔피언스 컵 1회(2004), 아프로-아시안 클럽 챔피언십 1회(1996)



감독 : 구상범

재임기간:

16.09.13 ~ 16.12.31

성적:

11경기 1승 4무 6패



SQUAD

경기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골키퍼

1	전상욱	1	5	0	0	0
21	김근배	9	874	0	0	210
31	김동준	26	2,507	0	0	214
41	박준혁	3	290	0	0	197

수비수

4	김태윤	33	3,178	1	0	215
5	임재민	21	1,828	0	0	204
6	이태희	28	2,392	1	3	210
24	장석원	14	571	0	0	163
32	연제운	16	1,355	1	0	224
33	장학영	31	2,879	0	2	205
87	박진포	3	215	0	0	218
		(20)	(1,849)	(0)	(1)	

미드필더

3	이후권	10	795	0	0	198
7	황진성	10	527	1	2	189
8	김두현	28	1,870	4	0	200
14	정선호	15	1,038	1	1	204
15	최호정	10	658	0	0	211
16	안상현	23	1,821	0	2	216
22	이중원	25	1,956	0	0	211
26	피투	33	2,305	3	7	212
30	조재철	23	1,496	3	0	203

공격수

10	황의조	37	3,382	9	3	211
11	실빙요	13	740	2	0	200
13	김동희	17	628	0	0	167
17	이창훈	2	124	0	0	219
18	김현	15	845	3	0	177
		(6)	(292)	(0)	(0)	
19	박용지	27	1,648	1	2	195
27	성봉재	5	240	1	0	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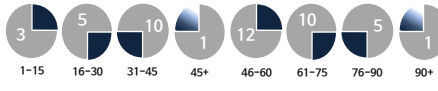
* 1경기 이상 출전선수 기준

* 괄호=이전소속팀 기록, 파란색=챌린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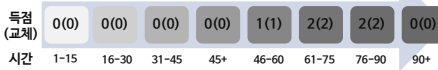
TEAM STATISTICS



시간대별 득점



교체선수 득점



TOP 3

득점	시즌	경기당
티아고	13	0.68
황의조	9	0.24
김두현	4	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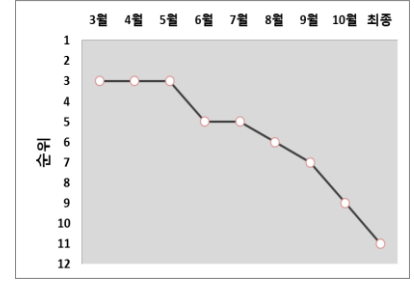
슈팅	시즌	유효슈팅 (%)
황의조	96	31(32%)
티아고	69	30(43%)
피투	47	18(38%)

도움	시즌	경기당
피투	7	0.21
티아고	5	0.26
이태희	3	0.11

패스	시즌	경기당	성공률
장학영	1,468	48	79%
이태희	1,374	52	81%
김태윤	1,361	39	84%

경합	시즌	경기당	성공률
황의조	605	16	32%
티아고	509	26	37%
이태희	436	16	60%

STANDINGS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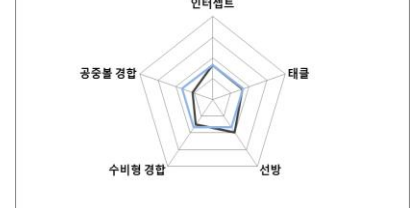
볼 점유율



공격



수비



OVERALL

반 시즌만 뛰고 떠난 티아고의 존재가 아쉬웠다. 티아고는 팀이 치른 38경기 중 19경기만 뛰었는데, 그 기간 동안 18개의 공격 포인트(13득점 5도움)를 기록했다. 반 시즌만 뛰고도 팀 내 득점 1위이며 슈팅 수와 도움은 모두 2위에 오른 등 큰 족적을 남겼다. 티아고가 떠난 뒤에는 황의조가 주포 구실을 했는데, 37경기에서 9골을 넣는 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경기 당 크로스 횟수는 클래식 12개 팀 중 최저(2회)로 공격 불균형도 있었다.

수원 FC

창단: 2003



감독 : 조덕제
 재임기간: 12.01.16 ~ 현재
 *2013년부터 챌린지 참가
 성적: 153경기 56승 41무 56패



SQUAD

경기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골키퍼

21	이인수	5	484	0	0	175
23	박형순	12	1,168	0	0	184
40	이창균	21	2,037	0	0	211

수비수

2	유지노	4	373	0	0	202
4	임하람	17	1,420	0	0	181
5	블라단	27	2,553	3	0	189
14	이준호	28	2,556	0	0	202
19	김민재	12	1,175	1	0	187
24	레이어	28	2,697	0	0	189
38	김근환	30	2,153	0	1	172

미드필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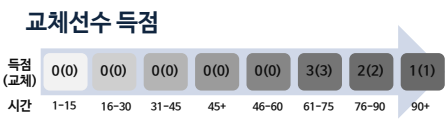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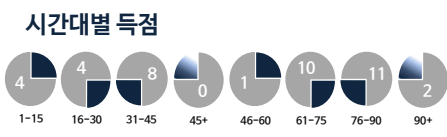
3	황재훈	22	2,024	1	0	170
6	김중국	26	1,921	2	2	191
8	이광진	25	1,938	0	0	189
11	이승현	31	2,186	6	1	171
16	김혁진	6	101	0	1	147
20	가빌란	22	1,519	3	2	176
22	권혁진	5	339	0	0	177
29	이창무	2	31	0	0	86
31	권용현	16	1,368	5	2	187
44	김철호	5	449	0	0	201
77	김부관	25	1,454	1	3	176
90	임창균	12	813	1	1	192
		(18)	(1,340)	(0)	(3)	(174)

공격수

7	김병오	28	2,182	4	3	192
10	김한원	18	1,335	1	0	180
15	브루스	13	879	5	1	197
17	이재안	24	1,640	0	2	183
18	정민우	11	767	1	0	188
28	윤태수	6	224	0	0	157
30	이광훈	3	145	0	0	155
33	정기운	5	109	0	0	93
85	서동현	9	546	1	0	170
		(8)	(410)	(1)	(0)	(143)

* 1경기 이상 출전선수 기준
 * 괄호=이전소속팀 기록, 파란색=챌린지 기록

TEAM STATISTICS



TOP 3

득점	시즌	경기당
이승현	6	0.19
브루스	5	0.38
권용현	5	0.31

슈팅	시즌	유효슈팅 (%)
김병오	64	19(30%)
브루스	47	22(47%)
가빌란	45	14(31%)

도움	시즌	경기당
김부관	3	0.12
김병오	3	0.11
권용현	2	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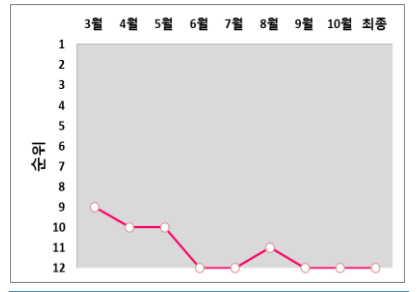
패스	시즌	경기당	성공률
이준호	1,416	50	77%
이광진	1,256	59	80%
레이어	1,135	38	79%

경합	시즌	경기당	성공률
김병오	637	26	41%
김근환	460	19	53%
레이어	435	15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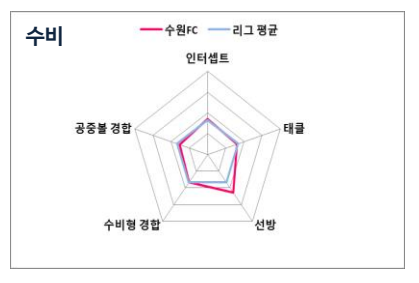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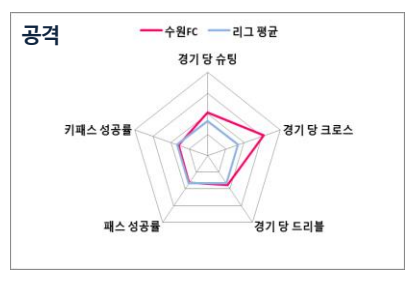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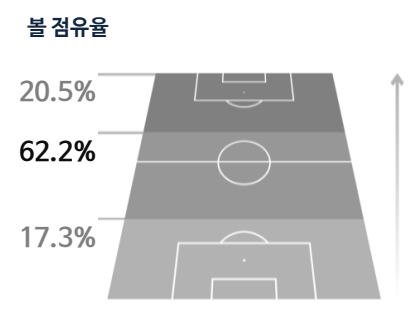
OVERALL

비록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화끈한 공격 축구를 하고자 노력했다. 득점은 클래식 12개 팀 중 가장 적은 40골이었지만, 경기 당 슈팅과 경기당 드리블 등 대부분 공격 지표가 평균 이상이었다. 특히 경기 당 크로스는 5.1회로 리그 전체 2위에 해당하는 만큼 훌륭한 기록이었다. 공격 지역 볼 점유율도 20%가 넘었다. 20.5%의 공격 지역 볼 점유율을 기록해 전북 현대 모터스(26.5%)와 광주FC(22.5%)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20%가 넘는 건 세 팀뿐이다.

STANDINGS



AVERAGES





안산 무궁화 FC

창단: 1996
우승: K리그 챌린지 1회(2016)



감독 : 이흥실

재임기간:
15.01.01 ~ 16.12.31
성적:
80경기 30승 22무 28패



SQUAD

경기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골키퍼

31	김대호	6	505	0	0	179
34	손정현	9	845	0	0	167

수비수

2	정다환	31	2,867	2	3	174
6	조성진	18	1,686	0	0	177
20	안영규	18	1,469	0	1	168
22	김준엽	28	2,106	1	3	173
27	박요한	5	324	0	0	158
32	하인호	3	279	0	0	172
35	김대호	7	628	0	1	176

미드필더

10	이현승	38	3,110	8	6	180
12	하정현	6	194	0	1	145
14	김은선	21	1,591	0	0	178
15	최보경	19	1,806	2	2	187
16	임선영	7	522	1	0	175
17	강승조	14	866	2	0	165
19	주원재	32	2,024	2	2	156
25	최진수	12	571	3	0	137
29	김재웅	16	1,104	2	0	178

공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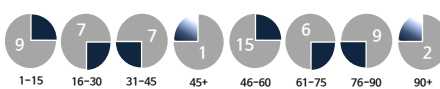
7	한지호	38	3245	10	6	173
9	김동섭	16	1016	4	1	140
11	황지웅	21	873	2	0	138
18	공민현	34	2692	7	1	168
23	남준재	17	1063	2	2	166
30	한홍규	9	181	0	0	110
33	정성민	17	920	5	0	140

* 1경기 이상 출전선수 기준
* 괄호=이전소속팀 기록, 붉은색=클래식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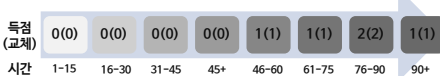
TEAM STATISTICS



시간대별 득점



교체선수 득점



TOP 3

득점	시즌	경기당
한지호	10	0.26
이현승	8	0.21
공민현	7	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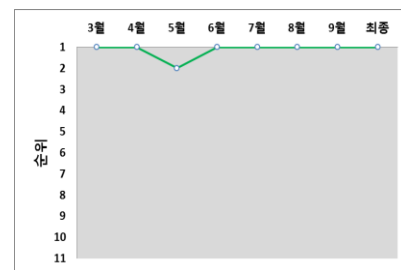
슈팅	시즌	유효슈팅(%)
한지호	70	28(40%)
이현승	46	20(43%)
정혁	45	14(31%)

도움	시즌	경기당
이현승	6	0.16
한지호	6	0.16
김준엽	3	0.11

패스	시즌	경기당	성공률
신형민	1,832	73	88%
정다환	1,828	60	82%
이현승	1,736	53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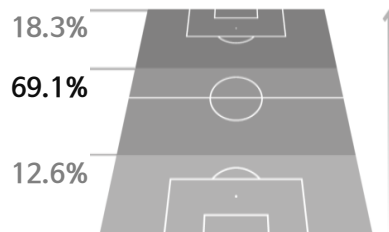
경합	시즌	경기당	성공률
이현승	639	19	44%
공민현	619	22	40%
한지호	589	17	44%

STA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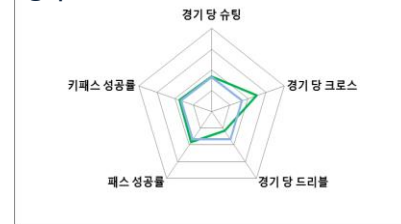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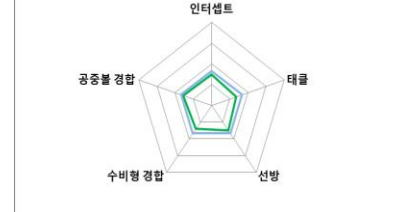
볼 점유율



공격



수비



OVERALL

챌린지 11개 팀 중 순위 변동 폭이 가장 적었다. 5월에만 순위가 3위로 떨어졌을 뿐, 나머지 7달은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시간대 별 득점 분포도 상당히 고르게 나왔다. 전반 초반부터 후반 추가 시간까지 매 15분 단위 득점 분포에 큰 편차가 없다. 다만 후반전 시작 후 15분까지 15골이나 넣어 이 시간대 가장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선수들도 고른 활약을 보였다. 그 중 한지호(10득점, 팀 내 1위)와 신형민(패스 1,832회, 팀 내 1위)이 가장 빛났다.



감독 : 손현준

재임기간:
16.08.13(감독대행)
16.11.22(정식선임) ~ 현재
성적:
16경기 9승 4무 3패



SQUAD

경기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골키퍼

1	이양중	1	97	0	0	169
21	조현우	39	3,814	0	0	187

수비수

2	오광진	7	359	0	0	124
3	정우재	37	3,458	3	3	203
4	박태홍	38	3,718	1	0	187
5	홍정운	20	1,511	0	0	145
13	조영훈	4	118	0	0	87
19	박세진	30	2,789	2	4	190
20	황재원	27	2,341	2	1	177
22	감한솔	5	350	0	1	138

미드필더

6	이재권	39	3,475	2	3	194
8	배신영	3	111	0	0	110
14	신창무	31	1,925	1	0	148
16	김동진	36	3,372	0	0	183
29	류재문	5	485	0	0	199
33	우상호	17	1,401	1	0	184
36	박한빈	6	192	0	0	121
87	김대열	2	62	0	0	186

공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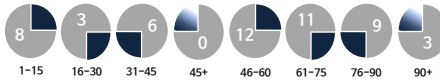
7	최정환	26	915	1	2	114
9	파울로	33	2,546	17	4	192
10	에델	37	3,059	6	2	183
11	세징야	36	3,437	11	8	213
15	한재웅	15	712	0	0	114
17	노병준	14	291	0	0	102
37	김대원	6	175	1	0	131
88	알렉스	20	1,637	5	0	185

* 1경기 이상 출전선수 기준
* 괄호=이전소속팀 기록, 붉은색=클래식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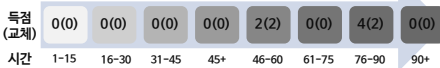
TEAM STATISTICS



시간대별 득점



교체선수 득점



TOP 3

득점	시즌	경기당
파울로	17	0.52
세징야	11	0.31
에델	6	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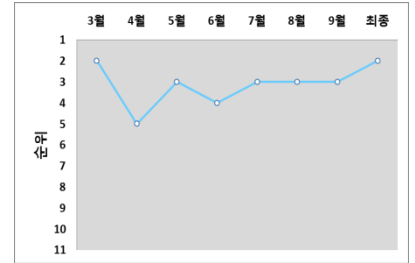
슈팅	시즌	유효슈팅 (%)
세징야	127	41 (32%)
파울로	102	40 (39%)
에델	64	30 (47%)

도움	시즌	경기당
세징야	8	0.22
박세진	4	0.13
파울로	4	0.12

패스	시즌	경기당	성공률
이재권	1,856	52	84%
세징야	1,670	48	76%
정우재	1,589	45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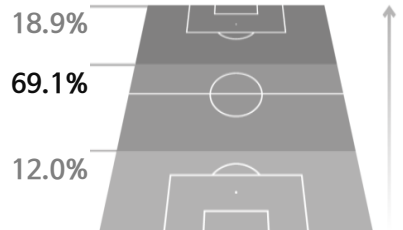
경합	시즌	경기당	성공률
세징야	829	25	44%
정우재	733	22	48%
에델	675	20	64%

STANDINGS



AVERAGES

볼 점유율



공격



수비



OVERALL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좋았다. 팀 내 득점과 슈팅 TOP 3 모두 외국인 선수들이다. 파울로는 팀 내 득점 1위(17골)와 슈팅 2위(102개)를 기록했고, 세징야는 득점 2위(11골)와 슈팅 1위(127개)를 차지했다. 에델은 득점(6골)과 슈팅(64개) 모두 3위였다. 특히 세징야는 도움(8개)과 경합(829회) 부분에서도 1위에 올라 가장 큰 활약을 펼친 선수로 기록됐다. 이들의 활약은 경기 당 슈팅과 드리블 등에서 리그 평균을 크게 웃도는 원동력이 됐다.



감독 : 최윤경

재임기간:
14.12.15 ~ 현재
성적:
84경기 34승 23무 27패



SQUAD

경기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골키퍼

1	송유걸	15	1,457	0	0	185
18	함석민	25	2,438	0	0	180
31	양동원	2	193	0	0	187
		(14)	(1,353)	(0)	(0)	(209)

수비수

3	최우재	5	398	0	0	174
6	안현식	34	3,301	2	0	182
19	길영태	6	465	0	0	164
33	이한샘	39	3,797	2	1	182
77	백종환	33	3,098	0	2	183

미드필더

4	오승범	36	3,357	1	1	190
7	박희도	13	441	0	0	148
8	허범산	37	2,579	3	0	171
11	서보민	36	2,264	3	3	173
13	김윤호	13	707	0	0	169
14	손철민	4	119	0	1	174
16	한석중	36	2,972	1	3	188
22	정승용	41	3,968	4	2	196
24	고민성	11	481	0	1	163
26	박요한	2	12	0	0	0
27	정찬일	3	63	0	0	142
88	세르징요	19	1,770	0	2	188
99	장혁진	37	2,856	2	5	180

공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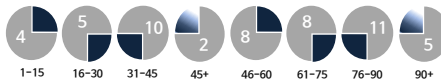
9	루이스	20	1,638	7	4	186
		(11)	(784)	(3)	(2)	(232)
10	최진호	20	840	6	0	149
17	심영성	30	1,079	4	2	155
23	마테우스	37	3,007	12	1	182
32	방찬준	10	415	3	0	166
84	마라냥	13	524	2	0	166

* 1경기 이상 출전선수 기준
* 챌린지 PO 경기 포함
* 괄호=이전소속팀 기록, 붉은색=클래식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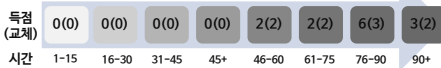
TEAM STATISTICS



시간대별 득점



교체선수 득점



TOP 3

이름	득점	시즌	경기당
마테우스	12		0.32
루이스	7		0.35
최진호	6		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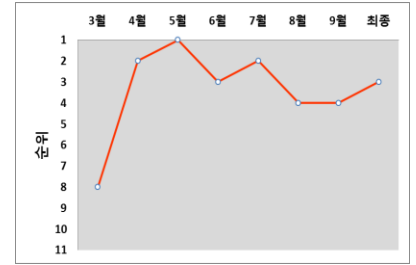
이름	슈팅	시즌	유효슈팅 (%)
마테우스	79		30(38%)
서보민	65		22(34%)
루이스	43		18(42%)

이름	도움	시즌	경기당
장혁진	5		0.14
루이스	4		0.20
서보민	3		0.08

이름	패스	시즌	경기당	성공률
정승용	2,549		61	85%
오승범	2,032		58	88%
한석중	1,899		61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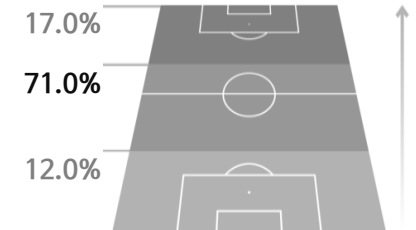
이름	경합	시즌	경기당	성공률
마테우스	931		27	44%
정승용	741		19	62%
장혁진	699		19	43%

STA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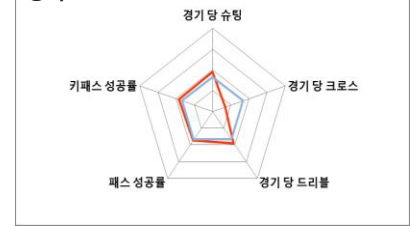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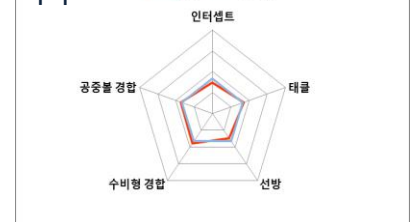
볼 점유율



공격



수비



OVERALL

패싱력을 앞세워 미드필드 지역에서 강한 힘을 보였다. 챌린지 11개 팀 중 안산 무궁화 FC 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패스(2만 2,056회)를 기록했으며, 패스 성공률도 82.7%로 챌린지 전체 2위다. 좋은 패서가 많은 만큼 미드필드 지역에서 볼 점유율도 높았다. 미드필드 지역에서 71%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챌린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공격은 주로 외국인 선수들이 이끌었지만, 오승범과 정승용 등 국내 선수들이 다른 지역을 사수했다.



부천 FC 1995

창단: 2007



감독 : 정갑석

재임기간:
16.10.15 ~ 현재
성적:
5경기 2승 1무 2패



SQUAD

경기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골키퍼

1	류원우	40	4,003	0	0	171
30	최철원	2	107	0	0	114

수비수

4	한희훈	40	3,911	3	0	173
5	임동혁	8	196	0	0	69
6	강지용	38	3,714	1	1	175
13	서명식	6	465	0	0	137
14	이학민	36	3,509	2	2	178
22	유대현	22	1,853	0	0	160
32	배준렬	5	217	0	0	160
45	지병주	13	1,181	1	0	160

미드필더

7	문기환	38	2,579	4	8	153
8	송원재	31	2,106	0	1	156
10	바그닝요	36	3,282	9	3	179
15	조범석	36	2,965	1	2	157
16	진창수	38	2,675	7	6	157
21	김대광	2	29	0	0	75
24	한성규	2	37	0	0	67
77	김영남	37	3,253	1	1	171
87	김진현	14	1,338	0	0	177

공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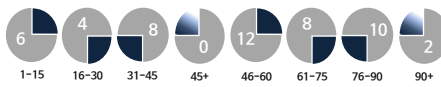
9	루키안	39	3,655	15	4	180
11	에드손	4	169	0	0	140
20	김훈도	27	1,500	0	2	144
23	황신영	8	286	0	0	130
28	이효균	11	519	2	0	144
		(4)	(199)	(0)	(0)	(174)
29	신현준	11	224	1	0	85

* 1경기 이상 출전선수 기준
* 챌린지 PO 경기 포함
* 괄호=이전소속팀 기록, 붉은색=클래식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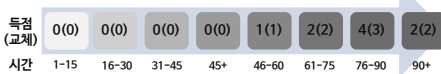
TEAM STATISTICS



시간대별 득점



교체선수 득점



TOP 3

득점	시즌	경기당
루키안	15	0.38
바그닝요	9	0.25
진창수	7	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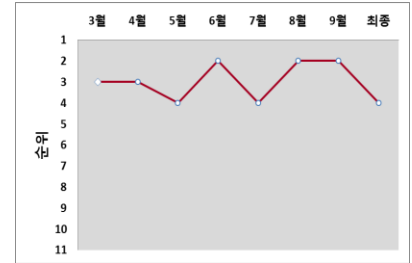
슈팅	시즌	유효슈팅 (%)
루키안	85	33(39%)
바그닝요	72	31(43%)
김영남	46	8(17%)

도움	시즌	경기당
문기환	8	0.21
진창수	6	0.16
루키안	4	0.10

패스	시즌	경기당	성공률
이학민	1,888	52	79%
한희훈	1,771	43	82%
김영남	1,747	51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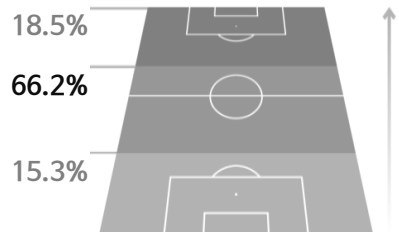
경합	시즌	경기당	성공률
바그닝요	1,044	31	43%
루키안	1,023	28	40%
한희훈	680	18	70%

STA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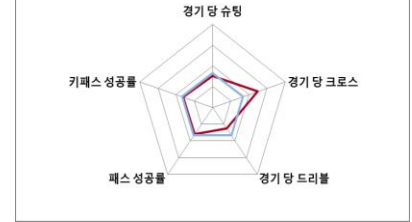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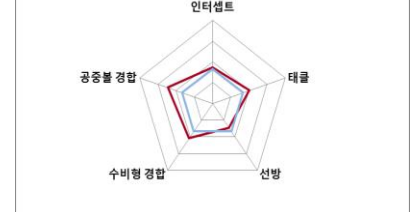
볼 점유율



공격



수비



OVERALL

좌우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이 많았으며, 공격과 수비 시 발생하는 경합에 강점을 보였다. 먼저 경기 당 크로스 성공률이 챌린지 전체를 통틀어 1위다. 크로스 시도 횟수는 전체 3위(506회)였지만, 성공률은 33.2%로 가장 높았다. 크로스 성공 횟수도 168회로 제일 많다. 공중볼 경합과 수비 경합에서도 강점을 드러냈다. 두 가지 지표 모두 챌린지 평균보다 높다. 공격 공중볼 경합은 바그닝요(1,044회), 수비 경합은 한희훈(680회)이 많이 기여했다.



부산 아이파크

창단: 1980

우승: K리그 4회(1984, 1987, 1991, 1997), 리그컵 3회(1997 전기, 1997 후기, 1998)
FA컵 1회(2004), AFC 챔피언스 리그 1회(1986)
아프르-아시안 클럽 챔피언십 1회(1986)



감독 : 최영준

재임기간:
15.10.12 ~ 16.11.05
성적:
48경기 19승 9무 20패



SQUAD

경기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골키퍼

21	구상민	32	3,114	0	0	186
31	김형근	6	585	0	0	185

수비수

3	이원영	24	1,785	2	1	189
5	차영환	33	3,124	1	0	196
6	김중혁	16	1,510	0	1	187
17	이청웅	7	532	0	0	190
20	박병현	1	13	0	0	0
23	김재현	22	2,115	1	1	200
25	장현우	1	99	0	0	175
26	김대호	10	785	0	0	185
27	구현준	14	1,161	0	1	178
29	이동일	1	13	0	0	178
33	유지훈	14	908	0	0	178
36	박경록	2	198	0	0	163
88	용재현	30	2,864	1	1	188

미드필더

11	임상협	8	354	1	0	149
		(25)	(1,545)	(8)	(3)	(201)
13	김진규	6	326	0	0	162
14	정석화	40	3,047	4	10	188
19	고경민	26	1,187	7	4	178
22	이규성	32	2,505	1	3	177
37	이정근	13	976	0	0	181
77	최광희	19	1,766	1	3	189
79	장현수	13	826	2	1	175
		(1)	(47)	(0)	(0)	(173)
86	김영신	20	1,178	0	3	183
89	이영재	17	1,314	1	2	186
93	날손주니어	21	2,039	1	1	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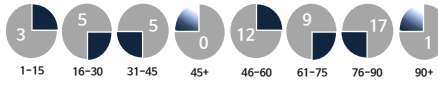
공격수

7	전철철	8	243	0	0	166
8	홍동현	29	2,153	5	2	181
9	김현성	3	53	0	0	170
10	최승인	14	813	2	1	159
15	김지민	1	13	0	0	0
18	스토야노비치	15	1,054	2	1	173
28	김종민	13	429	0	1	110
30	이정진	14	730	2	0	153
94	포프	38	3,130	18	4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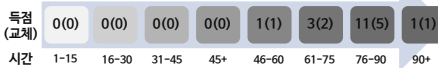
TEAM STATISTICS



시간대별 득점



교체선수 득점



TOP 3

득점	시즌	경기당
포프	18	0.47
고경민	7	0.27
홍동현	5	0.17

슈팅	시즌	유효슈팅(%)
포프	102	46(45%)
홍동현	58	18(31%)
정석화	42	21(50%)

도움	시즌	경기당
정석화	10	0.25
고경민	4	0.15
포프	4	0.11

패스	시즌	경기당	성공률
차영환	1,836	55	81%
용재현	1,598	54	86%
이규성	1,496	55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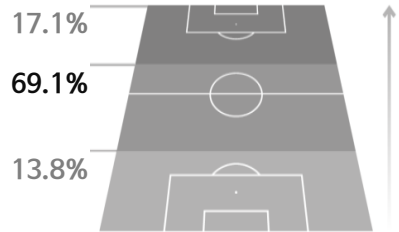
경합	시즌	경기당	성공률
포프	875	24	38%
차영환	586	18	70%
정석화	533	14	43%

STA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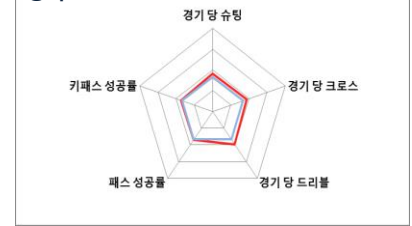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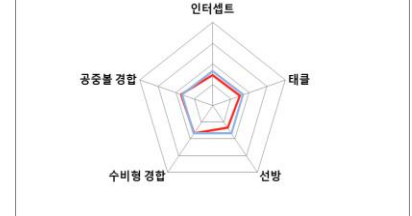
볼 점유율



공격



수비



OVERALL

전반전과 후반전 득점력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다. 전반전엔 추가 시간을 포함해 13골을 넣는 데 그쳤지만, 후반전엔 무려 39골이나 넣었다. 전반전의 정확히 3배다. 또 선제 득점 시 승률이 89.5%로 90%에 육박한다. 리드를 잡으면 대부분 승리로 연결한 셈이다. 먼저 골을 넣는 경기에서 패한 건 딱 한 차례(19전 17승 1무 1패)뿐이다. 주 득점원은 포프였다. 포프는 팀 내 득점 1위(18골), 슈팅 1위(102개)를 차지했다. 경합도 1위(875회)였다.

* 1경기 이상 출전선수 기준
* 챌린지 PO 경기 포함
* 괄호=이전소속팀 기록, 붉은색=클래식 기록



감독 : 박건하

재임기간:
16.06.24 ~ 17.01.09
성적:
23경기 11승 8무 4패



SQUAD

경기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포지션	번호	이름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골키퍼	1	김영광	39	3,797	0	0	173
골키퍼	21	이상기	1	96	0	0	143
수비수	2	심상민	13	1,258	1	0	197
수비수	3	이재훈	11	1,029	0	0	154
수비수	5	칼라일미첼	28	2,447	3	0	173
수비수	6	김동철	34	3,138	1	2	172
수비수	15	김태은	22	1,959	0	0	171
수비수	22	전민광	26	1,926	0	0	151
수비수	27	김봉래	12	1,036	0	3	186
수비수	30	구대엽	1	98	0	0	145
수비수	55	고경준	1	50	0	0	164
수비수	63	김동진	34	3,280	1	3	176
미드필더	4	김준태	24	2,001	1	2	188
미드필더	16	신일수	22	1,727	0	1	169
미드필더	17	안태현	31	1,849	3	1	159
미드필더	25	김현술	7	120	0	0	153
미드필더	26	김창욱	11	794	0	1	153
미드필더	47	김재연	8	291	0	0	132
공격수	9	서정진	19	1,724	0	5	182
공격수	10	유창현	9	252	0	0	120
공격수	11	타라바이	38	3,025	12	3	166
공격수	14	조우진	8	230	0	0	94
공격수	18	주민규	29	2,624	14	3	186
공격수	19	조항기	10	381	0	0	101
공격수	23	최오백	18	1,298	2	4	174
공격수	24	김현규	8	269	0	1	168
공격수	77	유제호	8	429	0	0	160

미드필더

4	김준태	24	2,001	1	2	188
16	신일수	22	1,727	0	1	169
17	안태현	31	1,849	3	1	159
25	김현술	7	120	0	0	153
26	김창욱	11	794	0	1	153
47	김재연	8	291	0	0	132

공격수

9	서정진	19	1,724	0	5	182
10	유창현	9	252	0	0	120
11	타라바이	38	3,025	12	3	166
14	조우진	8	230	0	0	94
18	주민규	29	2,624	14	3	186
19	조항기	10	381	0	0	101
23	최오백	18	1,298	2	4	174
24	김현규	8	269	0	1	168
77	유제호	8	429	0	0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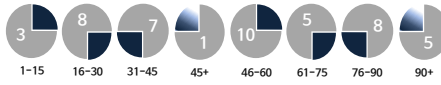
* 1경기 이상 출전선수 기준

* 괄호=이전소속팀 기록, 붉은색=클래식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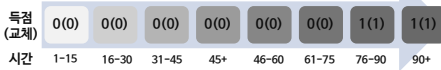
TEAM STATISTICS



시간대별 득점



교체선수 득점



TOP 3

득점	시즌	경기당
주민규	14	0.48
타라바이	12	0.32
벨루스	4	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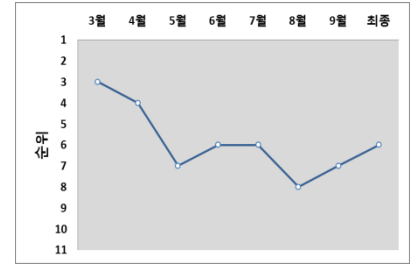
슈팅	시즌	유효슈팅 (%)
주민규	74	28(38%)
타라바이	61	33(54%)
김준태	38	7(18%)

도움	시즌	경기당
서정진	5	0.26
윤성열	4	0.27
최오백	4	0.22

패스	시즌	경기당	성공률
김동철	1,616	48	79%
김동진	1,511	43	85%
김준태	1,334	60	84%

경합	시즌	경기당	성공률
타라바이	681	18	38%
주민규	665	23	39%
김동철	661	20	58%

STA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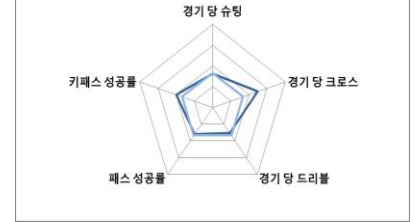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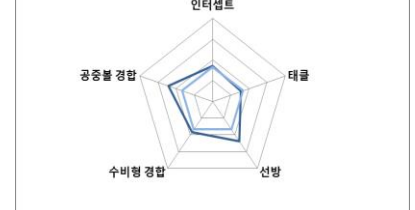
볼 점유율



공격



수비



OVERALL

골키퍼 김영광, 중앙 수비수 칼라일 미첼, 중앙 미드필더 김동철, 중앙 공격수 주민규로 이어지는 축이 강했다. 김영광은 39경기에 출전해 32실점해 경기 당 0.90골만 내줬고, 미첼은 28경기에 나서 2,447분을 소화하며 수비수들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뛰었다. 김동철은 팀 내 패스 1위(1,616회)를 기록했고, 주민규는 팀 내 득점(14골)과 슈팅(74개)에서 수위를 기록했다. 이들 중 김영광은 챌린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선방을 보이며 골문을 수호했다.



대전 시티즌

창단: 1997
우승: FA컵 1회(2001)
K리그 챌린지 1회(2014)



감독 : 최문식

재임기간:
15.06.01 ~ 16.10.30
성적:
66경기 18승 15무 33패



SQUAD

경기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골키퍼

1	박주원	27	2,630	0	0	190
25	이범수	13	1,255	0	0	173

수비수

2	김태봉	6	288	0	0	108
4	우현	11	552	0	1	165
12	박재우	3	162	0	0	179
13	장클로드	37	3,491	2	1	181
14	변정석	1	11	0	0	0
20	강준영	20	1,915	1	0	195
22	오창현	27	2,160	0	0	164
26	김동근	4	144	0	0	179
29	김해식	20	1,609	1	0	167

미드필더

3	김형진	16	1,103	0	0	149
5	김병석	34	3,021	1	0	179
6	황인범	35	3,219	5	5	194
8	김선민	30	2,650	4	3	187
15	강영제	7	299	0	0	168
16	이동수	36	3,318	1	2	181
23	조예찬	24	1,293	1	0	154
27	강윤성	26	1,290	0	0	162
88	고민혁	1	41	0	0	166

공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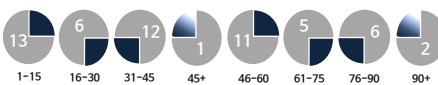
7	한익권	6	271	0	0	115
10	김동찬	39	3,383	20	8	197
11	유승완	22	857	2	1	135
17	진대성	24	1,501	3	5	167
19	박대훈	25	1,279	3	1	149
30	남윤재	1	30	0	0	160
99	구스타보	22	1,496	6	6	184

* 1경기 이상 출전선수 기준
* 괄호=이전소속팀 기록, 붉은색=클래식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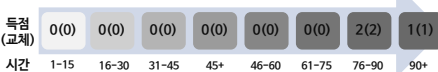
TEAM STATISTICS



시간대별 득점



교체선수 득점



TOP 3

득점	시즌	경기당
김동찬	20	0.51
구스타보	6	0.27
완델손	5	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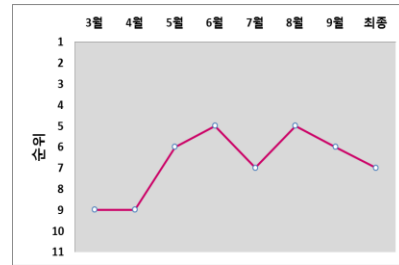
슈팅	시즌	유효슈팅(%)
김동찬	131	61(47%)
황인범	58	17(29%)
완델손	41	15(37%)

도움	시즌	경기당
김동찬	8	0.21
구스타보	6	0.27
진대성	5	0.21

패스	시즌	경기당	성공률
황인범	2,083	60	84%
김동수	1,979	57	83%
김선민	1,914	68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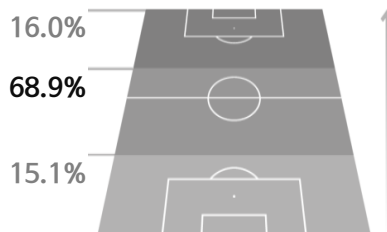
경합	시즌	경기당	성공률
김동찬	679	18	25%
장클로드	595	17	67%
황인범	567	17	42%

STA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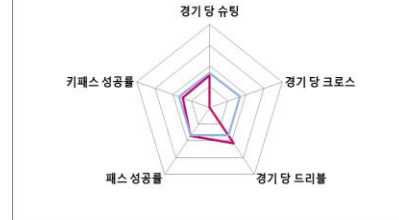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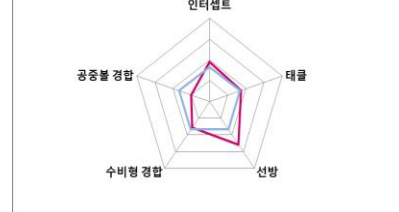
볼 점유율



공격



수비



OVERALL

챌린지 득점왕에 오른 김동찬의 활약이 대단했다. 김동찬은 팀 내 주요 지표 5개 중 4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20골을 넣으며 팀 내 2위 구스타보(6골)보다 14골을 더 많이 성공시켰고, 슈팅도 131개로 최다였다. 도움은 8개를 기록해 역시 구스타보(6개)보다 많고, 경합 상황에도 가장 많이 가담(679회)했다. 김동찬 외에는 황인범의 활약이 돋보였다. 미드필더로 활약한 황인범은 팀 내 슈팅 2위(58개)와 패스 1위(2,083회)를 기록하며 공헌했다.



감독 : 김중부

재임기간:
15.12.02 ~ 현재
성적:
40경기 18승 6무 16패



SQU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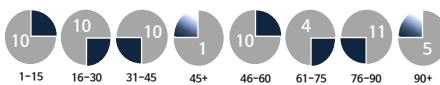
경기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번호	이름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1	이준희	14	1,358	0	0	182
29	하강진	8	774	0	0	161
99	권정혁	13	1,267	0	0	183
수비수						
4	이반	22	1,669	0	1	162
5	이원재	13	1,131	1	0	173
12	전상훈	9	659	0	0	157
15	우주성	33	3,098	0	2	181
23	박지수	35	3,274	1	0	180
27	박주성	8	435	0	0	165
55	이준희	3	177	0	0	181
90	여성해	8	784	0	0	176
		(4)	(386)	(0)	(0)	(197)
미드필더						
6	박태웅	7	419	0	0	186
7	배기종	15	773	4	3	174
8	안성남	37	2,363	4	2	166
13	신학영	24	1,492	1	1	177
14	남광현	7	239	1	1	131
17	이호석	27	2,112	9	10	183
22	김정빈	32	2,706	0	2	174
24	정현철	32	2,439	5	4	175
33	최영준	3	277	0	0	190
		(7)	(463)	(0)	(1)	
36	이관표	19	1,206	2	1	166
37	장은규	36	3,159	1	1	184
77	마르코비치	2	71	0	0	147
80	진경선	21	1,258	1	0	169
공격수						
9	크리스찬	38	3,566	19	6	194
10	이상협	1	40	0	0	177
11	김슬기	16	768	0	0	152
16	송수영	31	2,326	9	6	175
18	김영욱	4	146	0	1	138
88	김도엽	8	496	1	4	178
		(3)	(217)	(1)	(0)	(181)

TEAM STATISTICS



시간대별 득점



교체선수 득점



TOP 3

이름	득점	시즌	경기당
크리스찬	19	19	0.50
이호석	9	9	0.33
송수영	9	9	0.29

이름	슈팅	시즌	유효슈팅 (%)
크리스찬	83	83	36(43%)
송수영	54	54	18(33%)
이호석	36	36	18(50%)

이름	도움	시즌	경기당
이호석	10	10	0.37
송수영	6	6	0.19
크리스찬	6	6	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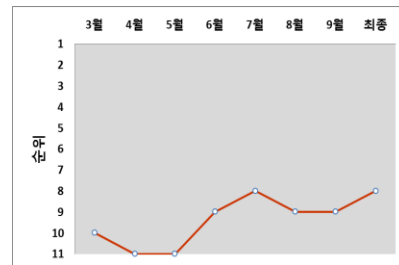
이름	패스	시즌	경기당	성공률
장은규	1,943	1,943	60	88%
우주성	1,688	1,688	50	79%
김정빈	1,394	1,394	50	80%

이름	경합	시즌	경기당	성공률
크리스찬	963	963	27	37%
박지수	512	512	16	71%
장은규	480	480	14	50%

OVER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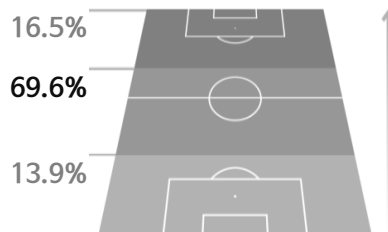
챌린지 전체 득점 1위를 차지했다. 40경기에서 61골을 넣어 경기 당 1.53골을 얻었다. 챌린지 득점 평균 47.2골에 비해 13.8골 많고, 경기 당 평균 1.18골에 비해서 0.35골 많다. 특히 경기 후반에 강한 면모를 드러냈다. 후반 31분부터 45분까지 가장 많은 11골을 성공시켰고, 후반 추가 시간에서도 5골이나 넣었다. 후반 추가 시간에 성공시킨 5골은 서울 이랜드 FC와 함께 챌린지 최다 기록이다. 팀 내 최다 득점자는 19골을 넣은 크리스찬이다.

STA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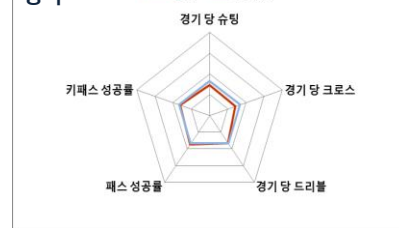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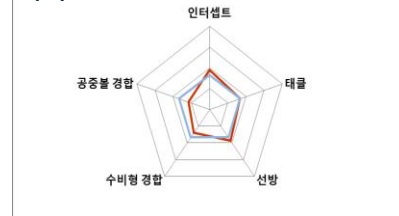
볼 점유율



공격



수비



* 1경기 이상 출전선수 기준
* 괄호=이전소속팀 기록, 붉은색=클래식 기록



FC 안양

창단: 2013



감독 : 이영민
 재임기간: 15.06.16 ~ 16.11.23
 성적: 66경기 23승 20무 23패



SQUAD

경기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골키퍼

1	이진형	7	681	0	0	161
21	최필수	13	1,173	0	0	157
87	김선규	21	2,028	0	0	179

수비수

2	채광훈	9	696	0	0	151
3	안세희	34	2,916	0	0	183
4	이상우	20	1,509	1	3	168
5	유종현	9	655	0	0	139
14	안성빈	28	2,601	1	5	188
15	김태호	15	1,392	0	0	176
20	가솔현	20	1,591	0	0	153
33	이재역	12	802	0	0	135
55	김진환	17	1,625	0	0	165
90	구대영	27	2,547	0	0	182

미드필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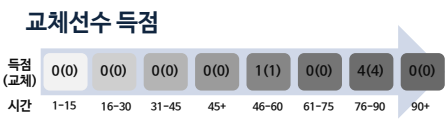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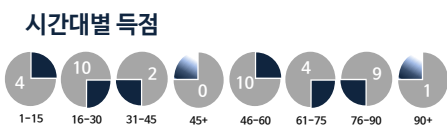
6	유수현	15	1,142	1	1	174
7	김민균	38	2,950	11	4	180
8	서용덕	34	2,641	3	4	174
10	이슬기	2	52	0	0	165
16	안진범	27	1,830	0	3	170
17	박승일	29	1,376	2	0	143
18	김대한	8	517	2	0	156
24	최영훈	25	1,927	0	1	169
26	이태현	4	216	0	0	144
27	정재희	36	2,510	3	1	162
30	박한준	1	18	0	0	134

공격수

9	김영후	20	1,091	3	1	161
19	김동기	6	344	0	0	132
23	김영도	17	906	3	0	152
28	브루닝요	15	962	0	0	158
70	김효기	13	1,185	4	0	166

* 1경기 이상 출전선수 기준
 * 괄호=이전소속팀 기록, 붉은색=클래식 기록

TEAM STATISTICS



TOP 3

이름	득점	시즌	경기당
김민균	11	11	0.29
김효기	4	4	0.31
정재용	4	4	0.25

이름	슈팅	시즌	유효슈팅 (%)
김민균	78	78	24(31%)
정재희	47	47	11(23%)
서용덕	36	36	10(28%)

이름	도움	시즌	경기당
안성빈	5	5	0.18
서용덕	4	4	0.12
김민균	4	4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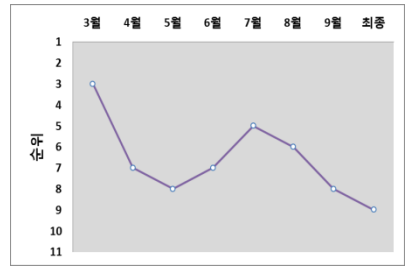
이름	패스	시즌	경기당	성공률
안성빈	1,758	1,758	63	82%
서용덕	1,632	1,632	59	86%
김민균	1,553	1,553	50	80%

이름	경합	시즌	경기당	성공률
김민균	633	633	18	42%
안세희	561	561	17	70%
서용덕	558	558	17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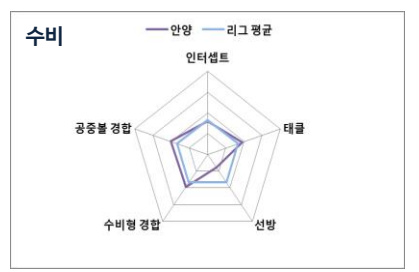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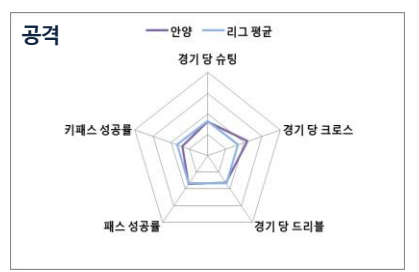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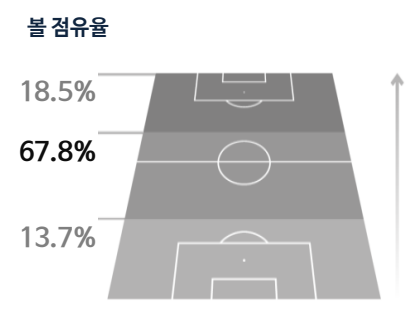
OVERALL

왼쪽 측면 미드필더에서 뛰는 김민균이 가장 도드라지는 활약을 펼쳤다. 김민균은 팀 내 득점 1위(11골), 슈팅 1위(78개), 경합 1위(633회) 등 세 개 부문에서 수위를 차지했다. 또 도움과 패스 부문에서도 팀 내 TOP 3에 들었다. 도움은 4개를 기록해 3위에 올랐고, 패스도 1,553회로 3위를 차지했다. 골부터 경합까지 거의 모든 부문에서 팀에 기여했다. 김민균 외에는 팀 내에서 도움 1위(5개)와 패스 1위(1,758회)를 기록한 안성빈의 활약이 빛났다.

STANDINGS



AVERAGES





충주 험멜

창단: 1999



감독 : 안승인

재임기간:
16.01.01 ~ 16.12.31
성적:
40경기 7승 8무 25패



SQUAD

경기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번호	이름	경기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1	권태안	5	484	0	0	179
26	이영창	27	2,619	0	0	149
41	홍상준	8	771	0	0	163

수비수

3	정인택	2	114	0	0	130
4	송성범	2	20	0	0	69
5	배효성	19	1,706	0	0	165
22	김한빈	40	3,874	1	2	168
25	옹동균	2	137	0	0	146
29	정우인	21	1,490	0	0	151
31	김상필	32	2,959	1	1	166
33	김태환	2	155	0	0	135
50	황수남	19	1,690	0	0	153
68	마우곤	13	1,252	0	0	172

미드필더

6	쿠아쿠	17	1,573	2	0	191
7	최승호	31	2,606	0	0	158
8	오규빈	21	1,818	1	0	149
13	엄진태	21	1,855	0	0	148
14	김정훈	28	1,556	0	1	142
15	홍준기	1	27	0	0	166
23	이태영	10	588	1	4	140
24	김용태	25	1,981	0	4	155
28	곽성환	9	485	1	0	152
36	양세운	1	12	0	0	139
38	신동일	2	70	0	0	146

공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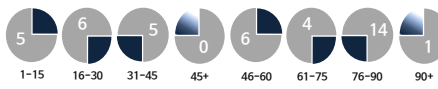
9	김신	35	2,371	13	6	166
10	김도형	34	2,406	3	5	142
18	박지민	31	2,101	5	1	148
19	장백규	28	1,683	4	0	138
20	김용진	7	155	0	0	123
77	하파엘	17	928	5	2	172
99	최유상	30	2,368	3	1	157

* 1경기 이상 출전선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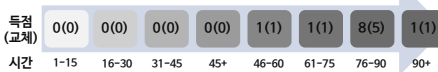
TEAM STATISTICS



시간대별 득점



교체선수 득점



TOP 3

이름	득점	시즌	경기당
김신	13		0.37
하파엘	5		0.29
박지민	5		0.16

이름	슈팅	시즌	유효슈팅 (%)
김신	67		32(48%)
김도형	52		16(31%)
하파엘	40		18(45%)

이름	도움	시즌	경기당
김신	6		0.17
김도형	5		0.15
이태영	4		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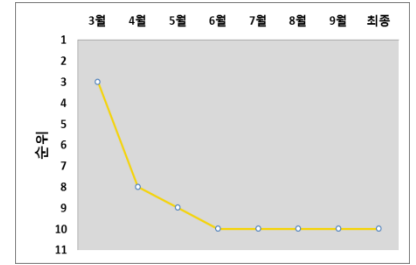
이름	패스	시즌	경기당	성공률
김한빈	2,273		54	83%
최승호	1,716		62	83%
김상필	1,471		45	82%

이름	경합	시즌	경기당	성공률
김한빈	604		15	57%
김상필	584		18	54%
김신	573		17	43%

OVER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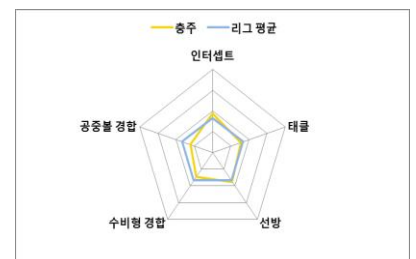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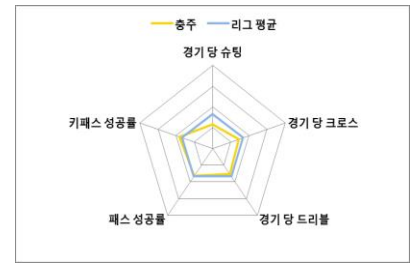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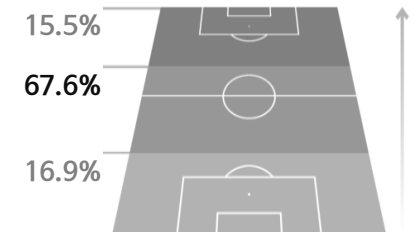
대부분의 지표가 리그 평균보다 떨어졌다. 공격 지표에서는 키 패스 성공률만 리그 평균보다 조금 높고, 수비 지표에서는 인터셉트 정도만 리그 평균을 상회했다. 나머지는 모두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낮았다. 그러나 시간대별 득점에서는 후반 31분부터 45분까지 대단히 강한 면모를 드러냈다. 그 시간대 총 14골을 터뜨렸는데, 이는 17골을 넣은 부산 아이파크에 이어 챌린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단 다른 시간대에선 두 자릿수 득점이 없다.

STANDINGS



AVERAGES

볼 점유율





고양 자이크로 FC

창단: 1980



감독 : 이낙영

재임기간:
16.01.01 ~ 16.12.31
성적:
40경기 2승 10무 28패



SQUAD

경기 출전시간 득점 도움 평점

골키퍼

1	강진웅	33	3,193	0	0	153
21	이승규	3	289	0	0	136
31	임홍현	4	387	0	0	185

수비수

4	김지훈	16	1,020	0	1	135
12	이상돈	38	3,356	0	1	151
13	박승우	25	2,124	0	1	153
15	손세범	6	398	0	0	142
16	박태형	34	3,256	0	0	157
18	권영호	34	3,188	0	0	161
27	김종원	2	194	0	0	155
30	우혜성	19	1,783	0	0	141
33	지구민	5	180	0	0	136

미드필더

5	인준연	30	2,169	2	1	155
6	허재원	25	2,071	0	0	155
17	이도성	29	2,037	1	3	148
20	오기재	23	2,158	0	1	155
22	김필호	18	957	0	1	141
25	김성수	8	350	0	0	136
26	김민수	8	219	0	0	142

공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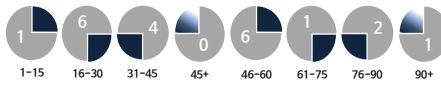
7	데파올라	22	1,323	5	0	135
9	김상준	26	1,431	2	0	146
10	남하늘	16	703	2	0	118
11	박정훈	31	2,106	3	1	144
14	윤영준	23	1,555	2	0	137
23	이예찬	37	3,237	1	1	145
24	김유성	21	1,667	1	0	152
77	빅토르	23	1,102	2	0	143

* 1경기 이상 출전선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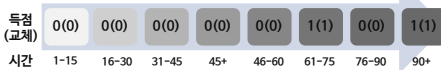
TEAM STATISTICS



시간대별 득점



교체선수 득점



TOP 3

득점	시즌	경기당
데파올라	5	0.23
박정훈	3	0.10
남하늘	2	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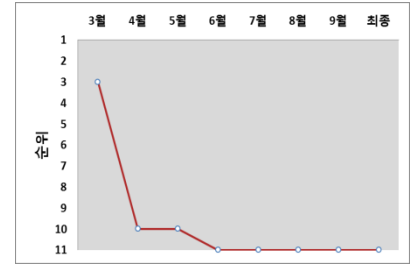
슈팅	시즌	유효슈팅 (%)
데파올라	50	12(24%)
인준연	50	15(30%)
이예찬	44	12(27%)

도움	시즌	경기당
이도성	3	0.10
김지훈	1	0.06
김필호	1	0.06

패스	시즌	경기당	성공률
이상돈	1,606	45	74%
박태형	1,366	39	80%
권영호	1,247	37	80%

경합	시즌	경기당	성공률
박태형	566	17	65%
권영호	482	15	67%
오기재	445	20	52%

STA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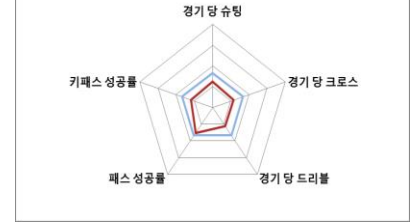


AVER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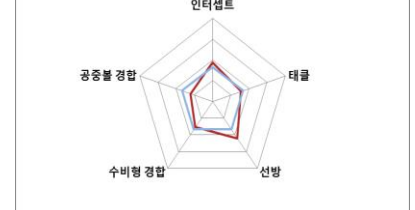
볼 점유율



공격



수비



OVERALL

챌린지에서 가장 많은 72골을 허용했다. 득점은 가장 적은 21골이다. 최다 실점과 최소 득점을 기록해 골 득실 기록도 나빴다. 골 득실이 -51이나 된다. 챌린지는 물론 클래식을 통틀어서도 가장 안 좋은 골 득실 차이이다. 시간대별 득점에서도 7골을 넘은 게 한 번도 없다. 전반 16분에서 30분 사이와 후반 1분부터 15분까지 각각 6골을 넣은 게 최하다. 경기 당 슈팅과 공중볼 경합 등 대부분 지표에서도 리그 평균보다 떨어져 어려운 시즌을 보냈다.



발행처	(사)한국프로축구연맹
데이터 / 편집	스포츠투아이주식회사
발행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46 축구회관 5층
발행일	2017년 1월 20일

* 이 책의 저작권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에 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사진은 FA PHOTOS가 제공한 것으로 허가 없이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사전 허가 없이 책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이 책에 사용된 K리그 기록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공식 기록과 스포츠투아이주식회사의 K리그 부가 기록의 기준에 따릅니다.